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학위논문

‘다시’와 ‘또’의 의미에 대한 연구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劉 宇 鑫

‘다시’와 ‘또’의 의미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전 영 철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유 우 흠

유우흠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월

위 원 장 장윤희 ㊞

부위원장 문숙영 ㊞

위 원 전영철 ㊞

<한국어 초록>

‘다시’와 ‘또’의 의미에 대한 연구

유우흠

본고는 한국어 부사 ‘다시’와 ‘또’의 의미를 밝히고, 이 두 부사 각자가 문장에 나타날 때 발생하는 중의적인 현상, 그리고 이러한 중의성과 두 부사 간의 차이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지를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둔다.

한국어 부사 ‘다시’는 [반복] 의미 외에 대상의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주는 [복원] 의미, 결과를 바꾸거나 수정하는 [수정/새로이]란 의미, 중단된 과정을 이어주는 [계속] 의미, 그리고 선행 행동 후에 순차적으로 다른 행동의 발생을 이어주는 [그런 다음에]란 의미가 있다. ‘또’의 경우에는 [반복] 외에 첨가 초점사로 다른 언어 요소와 함께 [양보]를 나타내고, 화자의 부정적 태도 등을 표현하거나 접속부사로 담화 층위에서도 다양한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중의성은 두 부사가 연산자로서 문장 내에서 어떤 층위를 작용역으로 취하는지에 따라 의미와 해석이 달라진 현상이다. 문장의 의미 층위를 연구하는 논의에 따르면 문장의 의미계층구조를 ‘화행 > 사실 > 명제 > 전체 사건 > 하위 사건’으로 설정한 바가 있는데 부사가 연산자로 각 의미 층위를 작용역으로 취하여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은 범언어적인 현상이다.

2장에서 먼저 ‘다시’와 ‘또’의 의미, 두 부사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사전 기술과 의미지도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부사의 다기능적 사용과 중의적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인 문장의 의미계층구조와 사건구조, 그리고 이러한 의미 차이를 반영하는 통사구조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이 외에 ‘반복’은 양화의 개념으로 규명하기도 하였다.

3장에서 ‘다시’가 각 층위에 작용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시’가 하위 사건인 결과상태를 작용역으로 취할 때 [복원]으로 해석되지만 원래 가졌던 상태가 없거나 화용적인 요인으로 [수정/새로이]로 해석되기도 한다. ‘다시’의 이런 의미는 결과상태를 가진 복합사건 동사와 결과 구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에 ‘다시’가 중단된 과정을 이어주는 [계속] 의미를 살펴보았다. 과정을 수식하는 부사(어)로 방식 부사어를 위주로 연구해 왔는데 ‘다시’가 방식 부사와 달리 행위의 진행 방식이나 모습을 명시하는 역

할을 하지 않고 그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든 중단되면 이어주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다시'가 [반복]을 나타낼 경우에는 주로 원자성을 보장된 완성, 달성 동사와 공기하되 일부 장면 층위 술어인 상태 술어와 어울리기도 한다. 마지막에 '다시'가 한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연쇄적인 두 사건을 연결하고, 더 나아가 텍스트적 응집성을 위한 장치로 발전되는 기능도 살펴보았다.

4장에서 '또'가 각 층위에 작용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는 사건구조에 있어서 전체 사건만 작용역으로 취하고 [반복]을 표현하므로 [복원]이나 [계속]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집합성이 강한 '다시'에 비해 배분적이며 경계성이 모호한 동작 사건에 경계를 지어주는 역할을 한다. 사건 층위를 넘는 '또'의 의미·기능은 보다 다양하다. 우선, 명제·사실 층위에서 첨가 초점사로 대조나 조건을 뜻하는 연결어미 등 다른 언어 요소와 함께 [양보]를 나타낸다. 다음에 화행에 작용하면 '또'가 명제의 진리치와 무관하여 화자의 놀라움이나 부정적인 태도 등을 나타내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에 화자가 상위언어적으로 선행 발화나 선행 상황에 후행 발화를 추가하는 접속부사로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다시'와 '또'는 문득 모두 반복을 나타내어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문장의 의미계층구조와 사건구조를 기반으로 두고 분석하면 둘이 전체 사건에 작용할 때만 같은 뜻을 획득하고 다른 층위에서 의미와 기능은 차이가 난다. '다시'는 주로 사건 및 사건 이하의 층위에 작용하는 반면에 '또'는 사건 및 사건 이상의 층위에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차이는 통사구조에도 반영된다. 뿐만 아니라, 두 부사의 이러한 의미론적 차이는 VP_1, VP_2, EP의 설정을 통해 통사구조에 반영되기도 한다.

5장에서는 앞에서 '다시'와 '또'에 대한 논의를 '또다시'와 '다시 또', 그리고 부정극어 '다시는'과 접속부사 '또는'의 분석에 적용해 보았다. 이를 통해 '다시'와 '또'가 각 의미계층에 작용할 때 드러나는 경향성이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된다.

주요어: 부사, 작용역, 계층구조, 사건구조, 양화, 반복, 배분성·집합성, 양보, 접속부사

학번: 2019-23460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및 대상 ····· 1

1.2. 선행 연구 ····· 3

1.3. 논의의 구성 ····· 4

2. 기본적 논의 ····· 6

2.1. ‘다시’와 ‘또’의 의미와 문장의 계층 구조 ····· 6

2.1.1. ‘다시’와 ‘또’의 공통점과 차이점 ····· 6

2.1.2. 부사 분류의 준거로서의 문장의 의미계층구조 ····· 13

2.2. 사건구조와 통사구조에 따른 부사의 작용역 ····· 21

2.2.1. 사건구조와 통사구조에 대한 이론적 고찰 ····· 21

2.2.2. 사건과 반복 ····· 26

2.2.3. 작용역에 따른 ‘다시’와 ‘또’의 해석 양상 ····· 34

2.3. 전제 유발표현으로서의 ‘다시’와 ‘또’ ····· 38

2.4. 요약 ····· 42

3. ‘다시’의 의미와 통사 ····· 44

3.1. 하위 사건 층위의 ‘다시’ ····· 44

3.1.1. 결과상태에 작용하는 ‘다시’ ····· 44

3.1.2. 과정에 작용하는 ‘다시’ ····· 59

3.2. 사건 층위의 ‘다시’ ····· 68

3.3. ‘다시’의 사건 접속과 발화 접속 ····· 79

3.4. 요약 ····· 86

4. ‘또’의 의미와 통사 ····· **88**
4.1. 사건 층위의 ‘또’ ····· 88
4.2. 명제, 사실 층위의 ‘또’ ····· 102
4.3. 화행 층위의 ‘또’ ····· 109
4.4. 접속부사로서의 ‘또’ ····· 114
4.5. 요약 ····· 121

5. ‘또다시’ ‘다시 또’ ‘다시는’ ‘또는’에 관한 문제 ····· **122**
5.1. ‘또다시’와 ‘다시 또’의 차이 ····· 122
5.2. ‘다시는’과 ‘또는’ ····· 127
5.3. 요약 ····· 131

6. 결론 ····· **133**

참고문헌 ····· **137**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대상

한국어에서 반복을 뜻하는 부사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가장 먼저 ‘다시’와 ‘또’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두 부사의 의미는 아래에서 확인되듯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1) ㄱ. 논문 **다시** 써?
ㄴ. 논문 **또** 써?

(1ㄱ)은 논문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할 만한 질문인 반면에 (1ㄴ)은 오히려 논문을 잘 쓰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전자는 제대로 못 썼거나 통과되지 못한 논문을 고치고 보완하여 다시 쓴다는 뜻이라면 후자는 한 편의 논문을 쓰고 나서 또 다른 한 편을 쓴다는 뜻이다. 언뜻 유사해 보이는 ‘다시’와 ‘또’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차이가 존재한다.

본고는 한국어 부사 ‘다시’와 ‘또’의 의미를 면밀히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다시’와 ‘또’의 중의적 해석 양상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중의성과 두 부사 간 의미 차이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2) ㄱ. 철수가 **다시** 고향으로 갔다.
ㄴ. 철수가 만두를 삶았고, **다시** 감자를 튀겼다.
ㄷ. 주화는 동준의 시신 앞에 머리를 바닥에 댄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끓어 오르는 슬픔이 목구멍으로 토해졌다. **다시** 심장이 파득거렸다.

(3) ㄱ. 철수가 **또** 고향으로 갔다.
ㄴ. 철수가 만두를 삶았고, **또** 감자를 튀겼다.
ㄷ. 누가 **또** 알겠니? 복권이라도 당첨될지.
ㄹ. 휴가는 **또** 무슨 휴가, 하루 집에서 잠이나 잤으면 좋겠어.

(2ㄱ)에서 ‘다시’는 중의적이다. 철수가 이전에도 고향으로 돌아간 적이 있고 이번에 한 번 더 고향으로 갔다고 할 때 ‘다시’는 [반복]을 의미한다. 그러나 철수가 이번에 처음으로 집을 떠나 다른 도시에서 지내다가 처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경우에도 ‘다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다시’가 철수가 고향에 있는 상태로 회복된다는 뜻으로 즉, [복원]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이외에도 (2ㄱ)은 철수가 고향에 가는 도중에 친구 집에서 며칠 머물렀다가 다시금 고향으로 출발한 경우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때 ‘다시’는 중간에 중단되어 끝까지 완성되지 못했던 동작의 재시작을 의미하는 [계속]의 기능을 가진다.

(2ㄴ)에서 ‘다시’는 철수가 감자를 한 번 더 튀긴다는 [반복] 의미 외에도 만두를 삶은 후에 이어서 감자를 튀기는 행동을 한다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 이때 ‘다시’는 연쇄적인 두 사건 사이에서 [그런 다음에]라는 의미를 담당한다. (2ㄷ)의 ‘다시’는 사건에 관여한다기보다 ‘주화’의 일련의 행동을 이어가는 역할을 한다. ‘다시’가 텍스트 응집성 장치로 발전되어 담화 지향적인 기능을 보이는 것이다.

(3ㄱ-ㄴ)은 (2ㄱ-ㄴ)의 ‘다시’를 ‘또’로 치환한 문장이다. 이때 (3ㄱ)에서는 ‘또’가 [복원]이나 [계속]으로는 해석되지 못하고 [반복] 의미만 가능함을 볼 수 있다. 한편, (3ㄴ)의 ‘또’는 전형적인 접속부사로 쓰여 선·후행 발화를 연결한다. 이외에 ‘또’는 담화 차원에 쓰여 (3ㄷ)에서처럼 다른 연어 요소와 어울려 [양보]를 나타내기도 하고 (3ㄹ)처럼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표현하기도 한다.

본고는 ‘다시’와 ‘또’가 보이는 이러한 중의적인 현상, 그리고 두 부사 간의 의미 차이가 이들이 작용하는 문장 의미 층위가 다양한 데서 기인한다고 본다. ‘다시’의 경우에는 하위 사건인 결과상태를 작용역으로 취하면 [복원], 과정에 관여하면 [계속], 전체 사건에 작용하면 [반복]을 의미한다. 그리고 연쇄적인 두 사건 사이에 놓여서는 [그런 다음에]로 해석되고 사건구조를 넘어 담화 층위에 올라가면 텍스트적인 기능을 획득하여 일종의 응집성 장치로 발전한다. 이와 달리 ‘또’는 사건구조에 있어서 전체 사건만을 작용역으로 삼아 [반복]을 의미한다. 담화 지향적인 부사로 기능할 때에는 명제·사실 층위에 관여하여 다른 연어 요소와 함께 [양보] 의미를 형성하고, 화행 층위에 관여하여서는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기도 한다. 이외에 접속부사로 쓰여 선·후행 발화 단위나 선행 상황에 후행 발화를 추가하는 등의 다층위적 접속 기능을 가진다.

1.2. 선행 연구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아주 높은데도 ‘다시’와 ‘또’를 위주로 분석하는 연구가 많지 않다. 있다고 해도 대부분 경우에 사전에서 두 부사를 기술하는 의항에 기반을 두어 의미 차이를 비교하는 정도에만 그쳤다.

‘다시’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그의 중의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주로 영어 ‘again’에 대한 연구를 참조하여 진행되었다(Oh, Sei-Rang 2015, Lee, Juwon 2017, 2018). 이외에 ‘다시’의 ‘순차적 해석’을 강조하는 류병래(2018)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구조적 분석(Structural Analysis)이나 어휘적 분석(Lexical Analysis) 중 하나에 입각하여 ‘다시’의 중의성을 설명하였다. Oh(2015)는 [반복]을 의미하는 하나의 ‘다시’만을 설정하며 해석의 중의성은 부사가 작용하는 층위가 전체 사건인지 결과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Lee(2017, 2018)은 ‘다시’를 다의어로 보고 기본적으로 [반복]을 의미하는 ‘다시’와 [복원/역방향]을 의미하는 ‘다시’가 있다고 분석한다. 류병래(2018)은 여기에 ‘순차적 다시’를 추가하였다. 한편, ‘또’의 사용 양상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논의를 찾기가 더욱 어려웠다. 대개는 접속부사나 문장부사에 대한 연구에서 간단히 언급되는 차원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두 부사의 의미 차이를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 자체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차이들을 의미론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더욱 드물다. 필자가 살펴본 바로는 윤재학(2007)이 유일한 것 같다.

윤재학(2007)에서는 ‘다시’는 [단순반복], [수정], [원상회복]의 세 가지 의미로, ‘또’는 [단순반복]이라는 하나의 의미로 파악하였다. Pustejovsky의 생성 어휘론을 바탕으로 ‘다시’는 결과상태에 대한 수식이 가능하므로 [원상회복]을 의미하게 되나 ‘또’는 결과상태 수식이 불가능하기에 [단순반복]으로만 해석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해당 논의에서는 [계속]과 [그런 다음에]를 의미하는 ‘다시’의 기능은 포착하지 못하였다. 이외에도 담화 측면에서 [양보]의 의미, ‘화자 부정적 태도 표현’이나 접속부사로 기능하는 ‘또’에 대한 언급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반복] 외에 ‘다시’와 ‘또’가 실제로 담당하는 다양한 의미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윤재학(2007)에서는 ‘다시’의 [원상회복] 의미가 결과상태 수식과 관련이 깊다

는 사실만을 제시하고 [수정]의 의미는 순전히 화용적인 것으로 처리하였다. 명령문, 청유문에서 '다시'가 아래처럼 [수정]으로 해석된다는 관점이다.

(4) ㄱ. 이 기안서를 **다시** 써 와.
ㄴ. 바닥을 **다시** 닦아, 임마!

(윤재학 2007: 3)

본고에서는 이러한 [수정] 의미도 결과상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때 그것을 고치거나 보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전과 같은 혹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 [수정]이나 [새로이]로의 해석은 '다시'가 결과상태에 작용하면서 여기에 다른 화용적인 요인이 함께 작동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윤재학(2007)에서는 '다시'와 '또'의 [반복] 의미가 과정에 관여한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는 반복을 양화의 개념으로 규명하지 않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놀이터에 또 갔다'라는 반복 사건은 놀이터에 가는 시작점과 끝점으로 이루어진 전체 사건의 반복이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놀이터에 가는 과정의 반복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반복]은 양화의 개념으로 규명해야 하고 양화의 대상은 경계성을 가진 '전체 사건'이란 완전체여야 하며 경계성이 모호한 과정이나 결과상태는 반복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1.3. 논의의 구성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다시'와 '또'의 의미, 두 부사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사전 기술과 의미지도를 통해 살펴보고 두 부사의 중의적 특성과 의미 차이를 기술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할 것이다. 이어지는 3장과 4장에서는 이러한 이론 틀을 바탕으로 '다시'와 '또'라는 두 부사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다시'가 각 층위에 작용할 때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다시'는 하위 사건인 결과상태를 작용역으로 취할 때에는 [복원]으로 해석된다. 단, 원래 가졌던 상태가 없거나 기타 화용적인 요인에 따라 [수정/새로이]의 의미 또한 가진다. '다시'가 중

단된 과정을 이어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는 [계속] 의미로서 포착된다. ‘다시’는 또한 원자성을 획득한 전체 사건을 양화하여 [반복]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때는 주로 완성 동사나 달성 동사와 공기하며 일부의 경우에서는 상태 술어와 어울리기도 한다. 이외에도 ‘다시’는 한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연쇄적인 두 사건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더 나아가서는 텍스트적 응집성을 위한 장치로 발전한 ‘다시’의 쓰임 또한 관찰된다.

4장에서는 ‘또’가 각 층위에 작용할 때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또’는 사건구조에 있어서 하위 사건에는 작용하지 않고 주로 전체 사건을 작용역으로 취하여 [반복]을 표현한다. 명제·사실 층위에서는 첨가 초점사로 쓰여 [양보]와 관련되는 의미를 가진다. ‘또’는 또한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나 놀라움, 강조 등을 나타내는, 명제의 진리치와는 무관한 화행 층위에서의 의미 기능을 갖기도 한다. 이외에도 다층위적인 요소를 접속하여 후행 발화를 선행 발화나 상황에 추가하는 접속부사로서의 ‘또’의 기능을 살펴볼 것이다.

5장에서는 이상의 ‘다시’와 ‘또’에 대한 논의를 ‘또다시’와 ‘다시 또’, 그리고 부정극어 ‘다시는’과 ‘또는’의 분석에 적용할 것이다. 6장에서는 남은 문제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논의를 정리하기로 한다.

2. 기본적 논의

본 장에서는 ‘다시’와 ‘또’의 중의적 현상과 두 부사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논의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 근거와 틀을 마련한다. 각 부사의 중의성과 두 부사 간의 의미 차이는 함수로 기능하는 부사가 작용하는 문장의 의미 층위가 다름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문장의 의미 계층 구조를 면밀히 짚어보고자 한다. 특히 계층의 하나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2.1절에서는 ‘다시’와 ‘또’ 각각의 의미 그리고 두 부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존 사전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다. 이어서 부사 분류의 의미론적 기준이자 본 논의의 기본 틀인 문장의 의미 계층 구조를 살펴볼 것이다. 2.2절에서는 ‘사건’ 범주에 중점을 두어 사건구조와 이에 따른 문장의 통사구조를 살펴볼 것이다. 부사의 의미 차이는 사건구조와 통사구조 모두에 반영되는데 이는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2.3절에서는 그간 전제 유발표현으로 많이 거론된 ‘다시’와 ‘또’를 전제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1. ‘다시’와 ‘또’의 의미와 문장의 계층 구조

2.1.1. ‘다시’와 ‘또’의 공통점과 차이점

‘다시’와 ‘또’는 반복표현으로 일을 거듭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부사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선행 연구 중에는 ‘다시’와 ‘또’를 가장 낮은 빈도, 즉 일이 한 번만 더 일어남을 표현하는 빈도부사로 분류한 경우도 있다.

(1) ㄱ. 이런 일이 **다시/또** 일어나서는 안 된다.
ㄴ. 작품을 **다시/또** 만들었다.

(1)에서는 ‘다시’와 ‘또’가 모두 동일한 일을 반복해서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래 (2)를 보면 ‘다시’와 ‘또’ 각각이 연결되는 상황이 항상 같지는 않은 듯하다.

(2) ㄱ. 서류를 **다시/또** 복사해 와.
ㄴ. 논문을 **다시/또** 써?

(2ㄱ)의 발화 상황이 서류를 잘못 복사하거나 글자가 흐릿하게 나온 상황이라면 ‘다시’를 사용하여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복사 행동을 한 번 더 하기를 요구할 것이다. 즉, 복사본의 상태가 좋지 않은 현재의 결과를 좋게 수정하기 위해 같은 행동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의 ‘다시’는 [수정] 혹은 [새로이]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에 ‘또’는 서류의 내용이나 모양 등 질적인 문제와 무관하게 양이 부족해서 더 많은 사본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된다. 이때 ‘또’는 ‘더’에 가까운 의미로 이해된다. (2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시’가 사용될 때는 논문의 ‘질(quality)’에 불만족 하여 논문을 고쳐 쓴다는 뜻에 가까우나 ‘또’가 사용되면 논문의 편수, 즉 ‘양(quantity)’이 증가한다는 뜻이다.

‘다시’와 ‘또’는 겉으로 보기에는 반복을 나타내는 부사로서 서로 유사해 보이나 각자 관여하는 내부 속성이 다르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다시’는 ‘질’이라는 개념과 더 가깝고 ‘또’는 ‘양’이라는 개념과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질과 양은 화맥에 따라 반의어로 쓰이기도 할 만큼 이질적이다(김태인 2014: 7). 질은 ‘사물의 속성, 가치, 유용성, 등급 따위의 총체(<표준국어대사전>)’란 개념으로 내면이나 내재적인 특징에 대해 평가와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만 양은 ‘세거나 잴 수 있는 분량이나 수량’이란 개념으로 평가나 판단 대상의 내적인 속성이 아니라 윤곽을 가지는 전체 대상에 초점을 두어 계산하는 것이다.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다시’와 ‘또’가 질과 양에서 보이는 이러한 대립은 그들이 관여하는 사건의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시’는 주로 하위 사건인 결과상태와 과정, 즉 사건 내부에 관여하는 데 반해 ‘또’는 주로 전체 사건 및 그 이상의 층위에서 기능한다.

다음으로 ‘다시’와 ‘또’에 대한 사전 기술을 통해 이 둘이 어떤 의미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는지를 살펴보자.

(3) ‘다시’와 ‘또’의 사전 기술

	다시	또
표준국어대사전	「1」 하던 것을 되풀이해서. ¶다시 보아도 틀린 곳을 못 찾겠어. 「2」 방법이나 방향을 고쳐서 새로이.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해 봐. 「3」 하다가 그친 것을 계속하여. ¶한참을 쉬다가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4」 다음에 또.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다시 만나. 이야기하세. 「5」 이전 상태로 또. ¶다시 건강이 좋아져야지.	「1」 어떤 일이 거듭하여. ¶이번에도 똑같은 사고가 또 났다. 「2」 그 밖에 더. ¶무엇이 또 필요한가?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던 대로 그의 눈은 안개가 낀 듯 희부옜고 쉰 듯한 목소리였으나 그런 목소리가 또 그렇게 맑게 들릴 수가 없었다.≪송기숙, 녹두 장군≫ 「4」 ((주로 ‘-으면’ 뒤에 쓰이거나 일정한 뜻을 가지는 의문문에 쓰여)) 그래도 혹시. ¶어른은 그 구멍으로 들어갈 수 없겠지만 어린애라면 또 모르겠다. 「5」 그뿐만 아니라 다시 더. ¶그는 변호사이며 또 국회 의원이다. 「6」 단어를 이어 줄 때 쓰는 말. ¶하루 또 하루가 흐른다. ¶그녀의 눈은 맑고 또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었다. 「7」 ((의문 대명사 앞에 쓰여)) (구어체로) 놀람이나 안도의 뜻을 나타내는 말. ¶난 또 무슨 일이라고. 「8」 ((같은 말이 나란히 쓰일 때 그 사이에서 관형사 ‘무슨’과 함께

		쓰여)) 앞에 있는 말이 뜻하는 내용을 부정하거나 의아하게 여길 때 쓰는 말. ¶밥은 또 무슨 밥, 라면이나 먹자.

사전 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기존논의에서 제시된 두 부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공통점

1) 모두 [반복]의 의미를 지닌다.

(4) ㄱ. **다시/또** 보아도 틀린 곳을 못 찾겠어.
ㄴ. 며칠 후 상처가 좀 나아졌다. 나는 **다시/또** 학교로 갈 수 있게 되었다.

2) 모두 [뒤에/나중에]의 의미를 나타낸다.

(5) ㄱ.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다시/또** 만나 이야기하세.
ㄴ. 다음에 **다시/또** 만나기로 하고 오늘은 그만 일어납시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두 가지의 공통 의미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두 번째 공통 의미로 제시된 (5)의 '다시', '또'의 의미까지를 모두 [반복] 의미로 볼 것이다. [뒤에/나중에]라는 의미는 '또, 다시'를 통해 나타난다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는 주어진 맥락에서 획득되는 것이다. [반복]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사건에 관여하며 선행 사건의 시점에서 후행 사건은 당연히 그 뒤에, 나중에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차이점

1) '다시'는 [수정]이나 [새로이]를 의미하지만 '또'네는 이러한 의미가 없다. '또'는 단순히 동작이나 행위의 반복을 나타낸다. 이는 위에서 예문 (2)를 통해 이미 살펴본 것이다.

2) [+계속]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다시'의 사용은 자연스럽지만 '또'는 그렇지 않다.

(6) ㄱ. 그는 김 선생과 나에게 잠시 눈길을 주고 **다시/?또** 이야기를 계속했다.
ㄴ. 휴정했다가 **다시/?또** 재판을 속개하겠습니다.
ㄷ. 멈추지 말고 **다시/?또** 달려.

3) '다시'는 결과상태를 수식할 수 있지만 '또'는 결과상태와 무관하다.

(7) ㄱ. 철수가 문을 **다시** 닫았다. (①② 다 가능)
ㄴ. 철수가 문을 **또** 닫았다. (①만 가능)
① 철수는 전에도 문을 닫은 적이 있다.
② 철수는 전에 그 문을 닫은 적이 없으나 문이 닫혀 있는 상태로 회복시킨다.

4) '또'는 양의 추가를 의미하지만 '다시'는 이런 의미를 나타낼 수 없다.

(8) ㄱ. **또/*다시** 딴 물건은 없나요? (다른 물건의 추가)
ㄴ. 사고 싶은 거 **또/*다시** 있으면 말해. (사고 싶은 물건의 추가)
ㄷ. 그는 변호사이며 **또/*다시** 국회 의원이다. (신분의 추가)
ㄹ. 학생이 **또/*다시** 한 명 왔다. (사람의 추가)

5) '또'는 문장부사의 일종인 접속부사로 쓰여 선행절이나 문장에 후행 발화를 추가한다. 이와 달리 '다시'는 성분부사로만 기능한다.

(9) ㄱ. 오늘은 집에서 아내를 도와 청소도 하고 **또/*다시** 빨래도 했다.
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우리가 세계를 너무 모르고 있고 **또/*다시** 우리 스스로를 모르고 있다는 점에 강하게 깨우쳐 주고 있다.

6) '또'가 '-으면' 뒤나 일정한 뜻을 가지는 의문문에 쓰여 '그래도 혹시', '양보하자면'의 뜻을 나타낸다.

(10) ㄱ. 어린애라면 **또/*다시** 몰라. 어른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ㄴ. 누가 **또/*다시** 알아? 그 사람이 다시 올지.
ㄷ. 끈기가 없지만 잘하기는 **또/*다시** 잘해요.

7) '또'는 의문 대명사 앞에 쓰여 놀람이나 안도의 뜻을 나타낸다.

(11) ㄱ. 이건 **또/*다시** 뭐야?
ㄴ. 난 **또/*다시** 누구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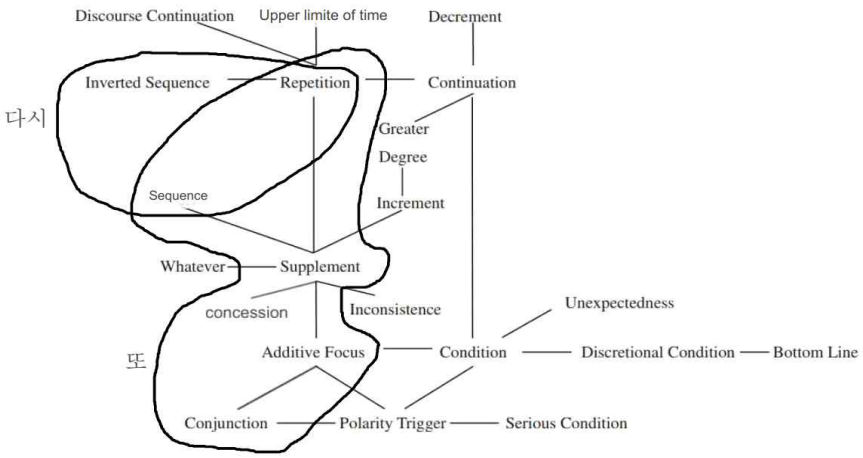
8) '또'는 관형사 '무슨'과 함께 쓰여 앞에 있는 말이 뜻하는 내용을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는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기능이 없다.

(12) ㄱ. 밥은 **또/*다시** 무슨 밥, 라면이나 먹자.
ㄴ. 생일은 **또/*다시** 무슨 생일, 그냥 저녁이나 같이 먹자.

지금까지 기존 사전의 기술을 바탕으로 '다시'와 '또'의 의미상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아래의 의미지도를 통해 이러한 여러 의미 간의 연관성을 더욱 뚜렷하게 보일 수 있다.

[반복] 의미를 중심으로 27개 언어를 조사한 의미지도에 '다시'와 '또'를 반영하면 아래 (13)과 같다.

(13) The connecting pattern of Repetition and related functions (Guo 郭锐 2010: 37)



ㄱ. repetition:

다시/또 보아도 틀린 곳을 못 찾겠어.

ㄴ. sequence:

철수가 만두를 삶았고, **다시/또** 감자를 튀겼다.

ㄷ. supplement:

사고 싶은 거 ***다시/또** 있으면 말해.

ㄹ. inverted sequence:

다시/*또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ㅁ. concession:

누가 ***다시/또** 알아? 그 사람이 다시 올지.

ㅂ. additive focus:

학생이 ***다시/또** 한 명 왔다.

ㅅ. conjunction:

오늘은 집에서 아내를 도와 청소도 하고 ***다시/또** 빨래도 했다.

그런데 (13)에서 화자의 태도 표현 같은 의미기능은 찾아볼 수 없다. 앞에서 기술하

였듯이 화자는 '또'를 통해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또'의 기능이 [양보] 의미로부터 발전되었다고 본다. [양보]는 흔히 '기대의 부정'으로 논의된 것으로, 담화적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인정하고 나서 그와 반대된 의견을 추가하는 것이다. 즉, [양보]는 기본적으로 '부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2.1.2. 부사 분류 기준으로서의 문장의 계층 구조

부사를 분류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형태론적 관점, 통사론적 관점, 의미론적 관점 등 연구자마다 따르는 관점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중 어느 하나의 분류 방법만이 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국어 부사 분류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는 부사가 통사적으로 어떤 대상을 수식하는지에 따라 크게 문장부사와 성분부사로 분류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 왔다. 성분부사는 특정한 성분을 수식하는 부사를, 문장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를 가리킨다. 그러나 부사를 이분법적으로 문장부사가 아니면 성분부사라고 분류하는 것은 개별 부사들의 다양한 의미를 제대로 포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예컨대 '또'는 '철수가 또 울었다'라고 할 때에는 동사를 꾸미는 성분부사가 되지만, '철수가 성격이 좋고, 또 공부를 잘해'처럼 쓰일 때에는 문장부사에 속하는 접속부사가 된다. 이외에도 '일은 또 무슨 일'에서와 같이 '화자 태도 표현'의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다. '또'는 문장부사의 하위부류인 접속부사뿐 아니라 양태부사로도 취급될 수 있다.

이러한 이분 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들어 한국어 부사 체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검토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신서인(2014)와 김현아(2015)는 주로 Ramat & Ricca(1998)에서 제시한 부사 체계를 참조하여, 부사가 관여하는 층위를 크게 담화층위(discourse level), 관계층위(interpersonal level), 표상층위(representational level)로 나누고 한국어의 문장부사(어)를 다시 '접속부사' '발화행위부사', '영역부사', '명제부사'로 세분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후인(2015)에서는 문장부사의 두 하위부류인 양태부사와 접속부사가 서로 반드시 대립적이지 않음을 인식하고 두 부류 간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동시에 두 언어

단위를 연결하는 부사들을 '양태접속부사'로 간주하였다.

한편, 김태인(2014, 2016, 2019)에서는 문장의 의미 층위를 '화행(speech-act) > 사실(fact) > 명제(proposition) > 전체 사건(event) > 하위 사건(subevent)'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 부사(어)를 분류를 제안하였다.

(14) ㄱ. 사건 지향적 부사어

-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곧 방식(manner)

→ 방식부사어: 잘, 빨리, 멋있게

-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가, 곧 결과(result)

→ 결과 부사어: 깨끗이, 납작하게

- 언제,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곧 시간과 공간

→ 장소 부사어, 시위치 부사어: 운동장에서, 세 시에

- 왜 발생했는가, 사건의 연쇄, 곧 인과 관계

→ 원인 부사어: 화재로, 재정 파탄으로

ㄴ. 담화 지향적 부사어

- 화자는 해당 명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 양태부사어: 아마, 확실히, 분명

- 화자는 해당 명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 평가부사어: 다행히,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 화자는 해당 발화를 수행하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가

→ 화행부사어: 솔직히

- 화자는 해당 발화를 수행하면서 청자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 (겸양부사어: 송구스럽지만, 죄송하지만)

- 화자는 해당 발화를 수행하면서 청자의 주목을 어떻게 끄는가

→ 담화표지어: 음, 근데

- 화자는 상위언어적으로 발화 단위 간의 논리를 어떻게 연결하는가

→ 접속부사어: 그리고,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김태인(2019: 134)

(14)에서 부사어 체계는 크게 사건 지향적인 부사어와 담화 지향적인 부사어로 나뉘고 있다. 문장의 의미 계층 중 하나인 사건은 주로 시공간에 존재하는 실체로서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과 공간, 사건의 결과와 진행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사건 지향적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 그중에서도 결과 부사어와 방식 부사어는 각각 하위 사건인 결과 상태와 과정에 관여하는 부류이다. 사건 이상의 의미 층위로는 명제, 사실, 화행이 있는데, 이들 층위에 작용하는 담화 지향적 부사어는 사건을 넘어 담화 차원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다.

먼저 사건과 명제의 구분을 알아보도록 하자. 명제는 참, 거짓의 판단 대상으로 시공간에 존재하는 사건과 달리 개념적인 존재이다. Lyons(1977)에서 제시한 존재론적(ontological) 지위의 유형과 특성에 따르면 사건은 2차 실체로서 시간상의 자리를 차지하며 관찰 가능한 것인 데 반해 명제는 3차 실체로서 개념적이며 시간상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관찰할 수 없는 것이다. 즉, 현실 세계에는 사건이 있고, 인식 주체는 이를 개념화하여 머릿속에서 명제화한다.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5) Lyons(1977: 442-446)의 존재론적 지위의 유형 및 그 특성

ㄱ. 1차 실체(first-order entity): (예) 사람, 동물, 사물 등.
- 공간과 시간 속에 위치함. 관찰할 수 있음.

ㄴ. 2차 실체(second-order entity): (예) 사건, 과정, 사태 등.
- 시간 속에 위치함. 관찰할 수 있음.
- 존재한다기보다 발생함(occur, take place).

ㄷ. 3차 실체(third-order entity): (예) 이유, 명제, 공리 등.
- 시공 속에서 발생하거나 존재할 수 없음. 관찰할 수 없음.
- 실재(real)의 문제가 아닌 참(true)의 문제라 할 수 있음.
- 단언되거나 부정될 수 있고 기억되거나 잊혀질 수 있음.
- 이유(reason)가 될 수는 있으나 원인(cause)이 될 수는 없음.
- 믿음, 기대, 판단 같은 명제 태도(propositional attitude)의 대상이 됨[1)]

일부 기존연구에서는 (14)에서 제시된 평가부사어, 양태부사어, 시위치 부사어 등을

1) Lyons 존재론에 관한 귀납과 번역은 김태인(2019), 박지용(2020)을 참조하였다.

모두 문장부사어로 분류한다. 예컨대, ‘분명 어제 철수가 빵을 먹었다’라는 발화에서의 ‘분명’과 ‘어제’는 모두 ‘철수가 빵을 먹었다’란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어이므로 이들을 모두 문장부사어로 간주하는 식이다. 그러나 ‘어제’라는 시위치 부사는 철수가 빵을 먹은 사건의 발생 시간을 규명하고 사건의 시간 속성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부사이므로 ‘어제 철수가 빵을 먹었다’란 문장은 여전히 ‘사건’을 나타낸다. 반면에 ‘분명’이라는 양태 부사어의 사용은 ‘어제 철수가 빵을 먹었다’라는 문장을 시공간을 점유하는 객관적인 사건 실체를 나타내는 문장이 아니라 화자가 ‘어제 철수가 빵을 먹은 것’이 참임을 확신함을 나타내는 진리치 판단의 속성을 가진 명제를 나타내는 문장이 되게 한다. 사건은 시공간적인 속성을 지니는 관찰되는 개체인 반면 명제는 참과 거짓으로 판단되는 속성을 가지며 관찰될 수 없다. ‘어제’는 사건의 시간 속성을, ‘분명’은 명제의 진리치 판단 속성을 드러낸다.

사건과 명제의 구별은 개별 명사가 불구보문과 완형보문 중 무엇의 수식을 받는가에서도 나타난다. 예컨대, ‘사건, 일, 장면’ 등의 사건 지시명사는 ‘철수가 빵을 먹은 사건/일/장면’에서처럼 ‘-은/는/을’을 취하는 불구보문의 수식을 받지만, ‘주장, 소식, 내용, 소문’ 등의 명제 지시명사는 ‘철수가 빵을 먹었다는 주장/소문/소식’에서처럼 완형보문의 수식을 받는다(강범모 2000: 206-207, 김태인 2016: 72-73 참조).[2)]

명제가 참으로 판정되는 순간 문장은 사실을 나타내게 된다. 어떤 명제가 화자의 평가 대상이 될 때 그 명제의 진리치가 참이 아니라면 평가 자체는 불가능해진다. 가령, ‘다행히, 내 룸메가 밀접 접촉자가 아니야’라는 발화에서 화자가 자신의 룸메가 밀접 접촉자가 아님을 사실로 생각하지 않은 채로 그것을 ‘다행’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사실 층위는 현실 세계에서 해당 명제가 실제로 참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단지 화자가 해당 명제를 참으로 인식하기만 하면 된다. 실제로는 룸메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화자가 아닌 것으로 믿거나 생각하기에 화자는 ‘내 룸메가 밀접 접촉자가 아니다’란 명제를 참으로 인정하고 이 사실에 대해 다행이라고 평가한다. ‘다행히, 안타깝게도’와 같이 사실 층위에 있는 평가부사어들은 ‘아마, 확실히’ 등 명제 층위에 있는 양태부사어와 달리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지

2) 사건과 명제의 이러한 구분은 ‘보다, 믿다’ 등 동사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 두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지 않고 해당 명제를 참으로 인정하면서 그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를 내리는 의미를 가진다(김태인 2019: 66-85 참조).[3)]

화행(speech act)은 다리로 걸어 다니거나 눈으로 보는 등 인간이 행하는 다른 행위와 같이 언어 형식을 통해 실행하는 발화 '행위'를 말한다. 발화라는 행위에는 발신자와 수신자 역할을 담당하는 화자와 청자가 요구된다. 화자는 문장이나 발화를 통해 청자에게 요청, 명령, 감사, 약속, 사과, 제안, 초대, 경고, 반박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이때 화자는 참인 명제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부디, 제발' 등과 같이 청자에게 자신의 태도를 표명한다. 화행 층위에 작용하는 화행 부사어는 '솔직히, 어제 철수가 빵을 먹었다'의 '솔직히'처럼 화자의 발화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며 '부디 건강하십시오'의 '부디'처럼 화자의 청자에 대한 요청이나 기원을 나타내기도 한다.

현실 세계의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는 사건과 이것이 인지 주체에게서 개념화된 명제, 명제가 참으로 판단된 사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화자가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가 섞인 발화(화행)는 엄연히 서로 구분되는 실체이다(김태인2019: 68 참조). 가령 '철수가 2021년 8월 19일 12시에 도서관에서 마스크를 턱까지 내렸다'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이 상황을 목격한 영희가 '철수가 2021년 8월 19일 12시에 도서관에서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사건'을 개념화하고 머릿속에 명제로 저장하여 여러 가지 언어적인 가공을 할 수 있다. 예컨대 도서관 관리자에게 영희는 '어이없게도 어떤 학생이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고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 같습니다'라는 발화를 통해 이 일을 평가하고, 이를 고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시공간적 속성을 가진 사건은 영희의 머릿속에서 개념화된 명제가 되고 이러한 명제에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자기의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를 추가하거나 경어법을 붙이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언어적 가공이 더해져 최종적인 발화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 문장의 의미 층위는 (14) 같은 부사어 분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부사의 중의성을 해석하는 데도 유용하다. 김태인(2014)에서 부사 '잘'은 작용

3) 강범모(2000: 209)에서 비사실과 사실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명제를 설정하고 '사실'을 '명제'의 하위 범주로 파악한 바가 있다. 그러나, 본고는 김태인(2016, 2019)에서 지적하였듯이 양태부사어와 평가부사어를 구분하는 데에 명제와 사실 범주의 구별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을 '명제'와 다른 층위로 보는 관점을 따르고자 한다.

하는 층위에 따라 ‘방식부사’ ‘빈도부사’ ‘평가부사’라는 세 가지 지위가 있다고 하였다. 아래 (16)에서 ‘잘’은 하위 사건인 과정을 작용역으로 삼을 때 사건의 진행 방식을 규정하는 방식부사가 되어 지훈이가 차를 아주 평온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문다는 뜻이다. 그리고, 전체 사건을 작용역으로 하면 지훈이가 운전을 좋아해서 운전을 자주 함을 뜻하는 빈도부사로 ‘잘’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사실 층위에서 화자가 지훈이나 지훈의 운전 기술을 칭찬하기 위해 ‘잘’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때 ‘잘’은 평가부사의 지위를 획득한다.

(16) 지훈이가 운전을 잘 한다.

이러한 부사어와 문장의 의미 층위 사이의 관계는 논항구조 및 사건 의미론 등의 연구에서와 동일하게 두 단위가 결합하는 과정을 표상하는 함수(functor), 논항(argument)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범주문법에서는 자연언어를 통사론적으로나 의미론적으로나 함수와 논항의 관계로 결합하면서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으로 포착한다(강범모 2001: 1, 5). 가령 ‘철수가 빵을 먹었다’는 ‘먹다’라는 함수가 ‘철수, 빵’이라는 논항을 취하는 것으로, 즉 ‘먹다(철수, 빵)처럼 제시할 수 있다. 사건 의미론에서는 사건 개체가 도입됨에 따라 부사도 사건을 논항으로 취할 수 있는 함수가 된다. 이러한 흐름에서 함수로서의 부사어는 전체 사건뿐만 아니라 하위 사건인 과정이나 결과상태, 더 나아가서는 사건의 상위 층위인 명제, 사실, 화행까지도 모두 논항으로 삼아 작용할 수 있는 함수자로 설정될 수 있다.[4)]

이상에서 살펴본 문장이나 발화를 의미론적으로 범주화하는 기존 관점을 따라 본고에서는 ‘다시’와 ‘또’ 각각의 의미와 두 부사 간의 의미 차이를 작용하는 문장 층위에서의 차이에서 설명하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시’는 주로 사건 및 사건 이하에 작용하는 반면에 ‘또’는 하위 사건은 작용역으로 취하지 않고 주로 사건 및 사건 이상의 층위에 작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14)의 논의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결과상태에 관여하는 부사어는 결과부사어로, 과정에 작용하는 부사어는 방식부사어로 지칭해 왔다. 그러나 ‘다시’가 결

4) 이는 모든 부사가 각 층위에 모두 작용할 수 있는 뜻이 아니다.

과상태와 과정을 작용역으로 취한다고 해서 이를 ‘결과부사’나 ‘방식부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테이블을 깨끗하게 닦았다’에서는 ‘-게’형 결과부사어인 ‘깨끗하게’가 테이블의 결과상태를 기술하지만 ‘철수가 다시 고향에 갔다’에서 [복원]을 의미하는 ‘다시’가 철수의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방식부사인 ‘빨리’는 ‘철수가 빨리 집에 갔다’에서 철수가 집에 가는 과정이 빨랐음을 나타내지만 [계속]을 의미하는 ‘다시’가 ‘철수가 쉬고 나서 다시 집으로 갔다’에서 집에 가는 과정을 기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전체 사건에 관여하는 부사들은 빈도부사로 다루어져 왔는데 반복표현인 ‘다시’와 ‘또’도 전체 사건에 작용하는 것은 동일하나 다른 빈도부사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처럼 ‘다시’와 ‘또’에 전형적인 결과부사나 방식부사, 혹은 빈도부사로서의 통사적 지위를 부여할 순 없다. 그럼에도 본고는 두 부사가 작용역에 따라 그 의미 해석이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차이를 통사구조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보다 뚜렷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의미 범주와 통사 범주가 완전한 일대일의 대응을 보인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상(mapping) 가설들이 가정하는, 의미론적 범주가 의미론적 작용역의 관계에 따라 통사적 범주로 사상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Ernst(2004: 10)에서는 문장의 각 의미 범주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미 범주들이 아래 (17ㄴ)처럼 통사적으로도 실현된다고 하였다.

(17) ㄱ. [SPEECH-ACT [PROPOSITION [EVENT [EVENT-INTERNAL V]]]]
ㄴ. CP IP VP? VP

이는 의미부와 통사부를 밀접하게 연결하는 연결 이론(linking theory)이나 사상 이론(mapping theory)에서의 통사-의미 접면(semantics-syntax interface)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Travis(1994/2010)에서는 Malagasy어의 타동화(어휘적 사동) 접사와 생산적인 사동 접사를 구별하기 위해 구절 구조에 사건 구(Event phrase, EP)라는 기능핵을 설정하는데 이로써 사건 층위도 통사구조에 반영되게 되었다.

(18) 타동화(어휘적 사동)접사: an-

ㄱ. manala 'to take x out'
m-an-√ala

ㄴ. miala 'to go out'
m-i-√ala

(19) 생산적인 사동 접사: a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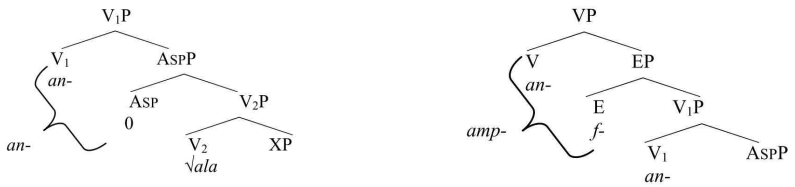
ㄱ. manala 'to take x out' mampanala 'to cause y to take x out'
m-amp-an-√ala

ㄴ. miala 'to go out' mampiala 'to cause y to go out'
m-amp-i-√ala

(Travis 2010: 84)

(18),(19)에서 보이듯이 Malagasy어에는 타동사 및 어휘적 사동을 만드는 'an-'과 사동화된 동사에 다시 붙어 생산적인 사동 접사로 쓰이는 'amp-'가 있다. Travis(2010: 85, 168)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20) ㄱ. 타동화(어휘적 사동형) ㄴ. 생산적인 사동형



(20ㄱ)에서 'an-'은 타동화의 기능을 가지는 접사로 자동사와 결합하여 행위주를 추가하며 문장은 행위주가 VP라는 행위를 한다는 의미가 된다. (20ㄴ)에서 생산적 사동형을 만드는 접사 'amp-'는 이미 타동화된 동사를 한 번 더 타동화한다. 이때 'f-'는 동사가 요구하는 의미격틀이 완전히 포화된 사건을 자신의 보어로 취하는 핵으로 사건 구를 이룬다. 임채훈(2012)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의 완전한 사건을 나타내는 구조적 경계에 EP가 존재한다고 보면서 EP 설정의 타당성은 하나의 완전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확인된다고 하였다(임채훈 2012: 96).[5] 본고 또한

5) 사건-구 EP의 설정이 전체 사건의 반복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는 사실은 아래 2.2절에서

Travis(1994, 2010), 임채훈(2012)의 관점을 따라 의미적인 범주인 전체 사건 층위는 통사구조에서 EP에 대응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문장의 각 의미 범주와 그에 대응하는 통사 범주는 아래와 같이 수정할 수 있다.

(21) ㄱ. [SPEECH-ACT [PROPOSITION [EVENT [EVENT-INTERNAL V]]]]
ㄴ. CP IP EP VP

전체 사건뿐 아니라 하위 사건에 관여하는 부사어에 대해서도 그들이 각각 결과상태와 과정에 작용한다는 사실을 통사구조 표상에 반영할 수 있다. 이는 아래에서 논의할 것이다.

2.2. 사건구조와 통사구조에 따른 부사의 작용역

본 절은 앞 절에서 살펴본 문장의 의미적 계층 구조 중에서도 사건 및 하위 사건 층위를 사건구조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부사(어)와 사건구조와의 상호 관계가 통사구조에도 반영됨을 실례를 통해 확인할 것이다.

2.2.1. 사건구조와 통사구조에 대한 이론적 고찰

앞에서 살펴봤듯이 문장의 의미 계층 구조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 것은 사건의 내부 구조이다. 사건 내부 구조를 밝히는 것은 문장의 의미를 사건이란 틀을 가지고 기술하는 연구의 한 흐름이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Vendler(1967)의 동사 상 부류(aspectual classes)에 관한 연구에서 출발하였다(남승호 2007: 67 참조).

상(aspect)은 '상황의 내부적 시간 윤곽을 바라보는 다양한 방식'이다(Comrie 1976: 3). Smith(1997: 1)에서는 상을 관점(viewpoint)과 상황 유형(situation type)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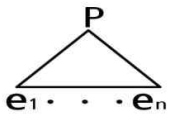
으로 나누었다. 전자는 문법 범주화된 상으로서 주로 문법표지를 통해 실현되고 후자는 동작류(Aktionsart)라 하여 어휘가 표상하는 사건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시간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Vendler(1967: 97-121)에서는 동사가 지닌 상적 속성에 따라 사건을 네 가지 부류로 나눈 바 있는데, 상태(states), 동작(activies), 완성(accomplishments), 달성(achievements) 유형이 그것이다. Smith(1997: 20)에서는 순간(semelfactive) 사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각 유형에 따른 대표적인 동사는 다음과 같다.

(22) 상태: 알다, 믿다, 사랑하다, 원하다
동작: 뛰다, 걷다, 수레를 밀다, 운전하다
완성: 그림 하나를 그리다, 의자 하나를 만들다, 백 미터를 달리다, 집을 짓다
달성: 깨닫다, 찾다, 잃어버리다, 정상에 도달하다, 죽다
순간: 재채기하다, 기침하다, 깜빡이다

Pustejovsky(1991/1995)의 생성어휘론에서는 Vendler의 네 가지 상 부류를 다음 (23)과 같이 사건구조로 표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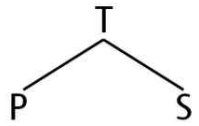
(23) ㄱ. 상태(state): 단일 사건
구조 표상:

ㄴ. 과정(process): 동일한 의미 표현을 나타내는 사건의 연속
구조 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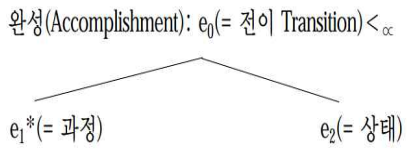
ㄷ. 이행(transition): 선행 사건과 후행 사건이 반대일 경우

구조 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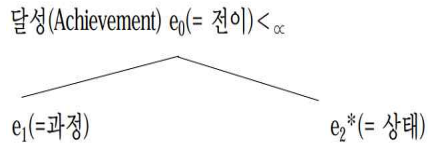


Pustejovsky(1991: 56)

(24) ㄱ.



ㄴ.



남승호(2004: 82)

상태(state)와 행위(activity)는 각각 (23ㄱ)과 (23ㄴ)처럼 단순 사건으로, 완성(accomplishment)과 달성(achievement)은 (23ㄷ)처럼 복합사건으로 표상된다. 그리고 완성과 달성은 (24)와 같이 두 하위 사건(sub-event) 가운데 어느 것이 의미적으로 부각되어 핵(Head)이 되는지에 따라 다시 구분될 수 있다. 완성의 사건구조에서는 e_1*(과정 Process)가, 달성의 사건구조에서는 e_2*(상태 State)가 핵이 된다.

(17)에서 제시하였듯이 문장의 각 의미 계층은 'CP > IP > EP > VP'처럼 통사구조에 반영되는데, VP를 더 세분함으로써 이러한 복합사건의 내부 구조도 통사구조에 반영될 수 있다.

복합사건 구조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은 대표적인 형식들을 들 수 있다.

(25) ㄱ. McCawley (1968): "x kill y"
[CAUSE [x, [BECOME [NOT [ALIVE (y)]]]
ㄴ. Carter (1976): "x darken y"
[x CAUSE ((y BE DARK) CHANGE)]

ㄷ. Dowty (1979): "He sweeps the floor clean"

[[He sweeps the floor] CAUSE [BECOME [the floor is clean]]]

ㄹ. Hale and Keyser (1993): "the cook thinned the gr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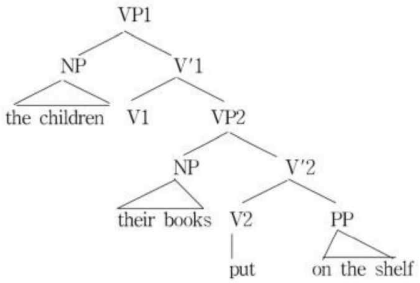
[vp the-cook [v' V1 [vp the-gray [v' V2 [A thin]]]]]

(남승호 2007: 68)

(25)에서 볼 수 있듯이 복합사건의 경우는 CAUSE와 BECOME라는 두 개의 술어로 기술된다. (25ㄱ), (25ㄴ)에서는 CAUSE라는 기초 술어를 개체와 사건 사이의 이항 관계 술어로 취급하며, (25ㄷ)에서는 CAUSE가 두 명제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즉, 복합사건의 하위 사건인 과정과 결과상태는 각각 'CAUSE'와 'BECOME'라는 술어로 구분되어 제시된다. (25ㄹ)은 (25ㄱ), (25ㄴ), (25ㄷ)과 달리 'VP-껍질' 구조를 도입한다. 이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위 동사 V1은 암묵적으로 CAUSE의 의미를, 하위 동사 V2는 BECOME의 의미를 담당한다(남승호 2007: 68-69 참조).

'VP-껍질' 구조는 Larson(1988)에서 복수의 내적 논항(internal argument)을 허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가적인 핵어를 따로 만들어 설정한 것이다.

(26) The children put their books on the shelf.



Larson 1988 (박소영 2003:22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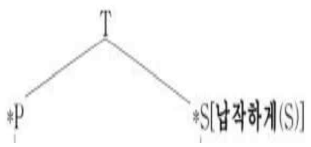
'put their books on the shelf' 같은 사건은 책을 놓는 과정 사건과 책이 책장에 있게 된 결과상태 사건의 복수 사건을 가진 사건 유형으로, 통사 표상에도 VP1과 VP2의 두 개의 VP가 존재한다. 박소영(2003: 22-23)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V2에 있던 동사 put는 '핵어-이동(head-movement)'에 의해 V1 자리로 이동한다. 전치사

구 on the shelf는 목표역(goal)으로 하위 V의 보충어(specifier)가 되고, 대상역(theme)의 직접 목적어 their books는 하위 VP의 지정어가 된다. 그리고 행동주역(agent)의 주어 the children은 상위 VP의 지정어가 된다. 이처럼 통사적 구절 구조의 위치와 의미역 간의 상관성이 포착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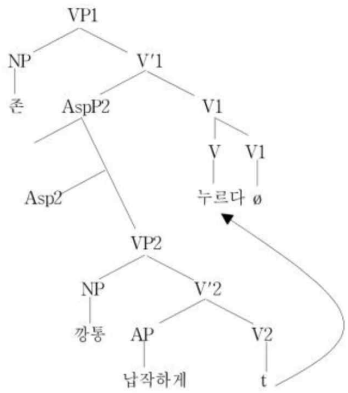
박소영(2003: 125-127)에서는 이러한 ‘VP-껍질’ 구조 가설을 받아들여, VP 구조를 이중적인 구조로 파악하면서 하위 사건인 결과상태를 수식하는 결과 부사어와 과정을 수식하는 방식 부사어의 차이를 아래처럼 사건구조와 통사구조 모두에 반영하였다.

(27) 결과 부사(어) ‘납작하게’의 사건구조와 통사구조:

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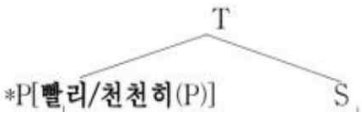


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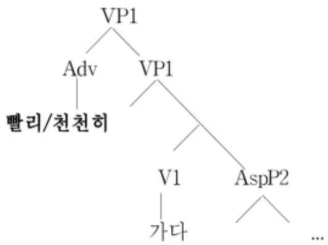


(28) 방식 부사(어) ‘빨리/천천히’의 사건구조와 통사구조:

ES:



SS:



(27),(28)에서 볼 수 있듯이 결과 부사어인 ‘납작하게’는 사건구조에서 하위 사건인

결과상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사들은 통사적으로 AP로 실현되며 결과상태를 가지는 복합사건, 특히 상태 변화를 수반하는 종결성이 있는 사건에 실현된다는 제약을 가짐으로써 AspP2에 의하여 그 실현이 점검된다. 반면에 방식 부사어는 사건구조에 있어서는 하위 사건인 과정을 수식하고, 통사구조에서는 VP1에 결부되어 행동주성의 사건을 수식하는 특성을 보인다(박소영 2003: 126-127 참조).

본고는 부사어가 사건구조에서 하위 사건인 결과상태에 관여하는지 아니면 과정에 관여하는지에 따라 통사구조에서도 서로 다른 기능핵에 결부된다는 이러한 논의를 '다시'의 설명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 '다시'가 과정에 관여하는 경우와 결과상태에 관여하는 경우, 이들이 각각 다른 의미를 나타내며 이런 의미 차이는 통사구조에도 반영됨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2.2.2. 사건과 반복

앞에서는 사건 내부 구조를 의미적, 통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어서는 반복의 대상인 전체 사건과 '반복'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반복'을 '같은 일을 되풀이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같은 일이 한 번 더 발생한다는 뜻이다. 가령 A란 일이 있을 때 A를 반복했다면 이는 적어도 A가 두 번 일어났음을 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복'을 어떤 일의 발생이 한 번 더 셈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반복'과 '빈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듯하다. 사전에서는 '빈도'를 '같은 현상이나 일이 반복되는 도수'로 정의하였다.

(29) ㄱ. 준이는 그 책을 **다시/또** 읽었다.
ㄴ. 준이는 그 책을 **자주** 읽었다.

(29ㄱ)은 반복 표현인 '다시/또'를 사용하는 경우이고 (29ㄴ)은 빈도부사 '자주'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두 문장 모두에서 준이가 그 책을 읽는 일이 적어도 두 번 일어났다는 의미가 전달된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 논의에서는 '다시'와 '또'를 빈도부사로 다

루기도 한다.

(30) 김상태(2005: 54-56 발췌):

ㄱ. 단순 반복: **다시, 또**, 또다시, 도로, 거듭 등

ㄴ. 주기 반복

1) 규칙적 반복: 날마다, 매일, 매달, 매번, 번번이 등

2) 불규칙적 반복:

a. 고빈도성 시간부사: 자주, 흔히, 잘, 곧잘, 일상 등

b. 저빈도성 시간부사: 가끔, 이따금, 더러, 때때로, 종종 등

(31) 왕문용·민현식(1993: 187 발췌):

반복상부사: [단순반복] **다시, 또,** 또다시, 도로

[주기반복] 날마다, 매일, 자주, 빈번히, 흔히 ---

(32) 손남익(1995: 83-84 발췌):

가끔, 가끔가다가, 가나오나, 가다가, 가다가다, 각각으로, 간간, 간혹, 갱히, ---

{중략} **다시**, 다시금, 단결에, 단김에, 더러, 때때로, 때로, 때로는, **또**, 매기, ---

{중략} 왕왕, 이따금, 일부일, 일상

(30)-(32)에서 볼 수 있듯이 부사 체계를 연구한 기존 논의에서 '다시'와 '또'를 빈도부사와 함께 다룬 경우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30)에서는 빈도부사를 '반복상부사'라고 지칭하는데 반복을 빈도의 상위 개념으로 잡는 듯 보인다. (31)에서는 빈도부사를 '사건이 단순하게 또는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을 표현하는 시간부사'라고 정의하면서 행위의 단순한 반복을 표현하는 '또, 다시' 등의 부사를 빈도부사의 목록에 포함하였다. (32)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시'와 '또'를 빈도부사의 목록에서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다시'와 '또'는 사건을 셈한다는 점에서 빈도부사와 공통되며 이에 양화표현의 하나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Partee(1995: 543-544)에 따르면 양화(quantification)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한다.

(33) 자연언어 양화의 두 부류

ㄱ. D-Quantifier: quantificational constructions that rely on determiners

ㄴ. A-Quantifier: quantificational constructions that do not rely on determiners. ‘adverbs, auxiliaries, affixes, argument-structure adjusters’

(33ㄱ)은 한정사(determiner)에 의한, 주로 명사구에 대한 D-양화를, (33ㄴ)은 부사(adverb), 조동사(auxiliary), 접사(affix) 등에 의한 A-양화를 설명한다. 전자는 ‘no boy’나 ‘every girl’에서의 ‘no’나 ‘every’ 등을, 후자는 ‘Jin often/sometimes read that book’나 ‘Jin may/must go fishing tomorrow’에서의 ‘often/sometimes’등의 부사나 ‘may/must’등의 조동사를 말한다. 강범모(2014: 8)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양화 표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34) ㄱ. D-양화

어떤, 모든, 각, 한, 두, 세, 네 . . .

ㄴ. A-양화

부사: 언제나, 늘, 반드시 . . .

접사: 매-, -마다 . . .

보조용언/구성: -어야 한다, -곤 하다 . . .

그리고 A-양화에 속하는 양화부사의 부류로 Lewis(1975: 3)은 다음의 목록을 제시한다.

(35) The class of adverbs of quantification

a. always, invariably, universally, without exception

b. sometimes, occasionally, [once][6)]

c. never

d. usually, mostly, generally, almost always, with few exceptions, [ordinarily], [normally]

6) Lewis(1975: 3)에 따르면 []안의 표현들은 다른 부사와 의미 차이가 있으나 빈도부사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다.

e. often, frequently, commonly
f. seldom, infrequently, rarely, almost never

빈도부사는 A-양화에 속하며 양화부사의 대표적인 부류이다. 만약 반복부사가 사건을 개체로 계산하고 양화하는 측면에서 빈도부사와 같다면 반복부사인 '다시'와 '또'도 빈도부사와 함께 양화부사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복'은 '빈도'와 차이가 있다. '빈도'는 '사건이 반복되는 도수'라고 정의된다. 이처럼 빈도부사가 사건 발생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정의되는 순간, 백인영(2019: 10)에서 지적하였듯이 빈도부사는 "평가의 문제가 되며 그러한 평가의 기준을 요구하는 표현"이 된다. 이때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연산자(operator), 작용역(nuclear scope)'과 함께 양화의 삼부구조(tripartite structure)를 이루는 '제약부(restrictor)'가 된다(백인영 2019: 27-31 참조).

가령 '철수는 영어 수업 때 대개 잔다'는 발화는 '철수가 영어 수업에 참여하는 사건들의 집합(F)'과 '철수가 자는 사건들의 집합(G)'의 교집합의 크기가 '철수가 자지 않고 영어 수업을 듣는 사건들의 집합(F-G)'보다 커야 성립된다. 명사를 양화하는 경우와 대비하면 30명의 학생(F)으로 이루어진 한 반에서 백신을 맞은 학생의 수($F \cap G$)가 백신을 안 맞은 학생의 수(F-G)를 넘어야 '대부분 학생들이 백신을 맞았다'란 발화가 성립하는 것과 같다. 이때 평가의 기준은 배경 정보로 존재하는 '철수가 영어 수업에 참여하는 사건들의 집합'이나 '30명의 학생들의 집합' 즉, 집합 F가 된다. 사건을 한정하는 '대개'과 명사를 한정하는 양화사 '대부분'은 집합 간의 비례 관계로, '$|F \cap G| > |F - G|$'처럼 표상될 수 있다.

반면에 '반복'은 횟수의 많고 적음을 평가하지 않는다. 단지 기존의 횟수에 한 번을 더 추가할 뿐이다. '항상, 자주' 등의 대표적인 빈도부사와 달리 반복을 나타내는 '다시'와 '또'는 집합 간의 비교를 통해 그 정도를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집합 F에 같은 요소를 추가하기만 한다. 다시 말하면 '빈도'가 횟수를 세는 것과 이 횟수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개념이라면 '반복'은 횟수를 한 번 더 세는 것에만 그친다. 양화는 수학적인 개념으로 기존연구에서는 배경 정보의 역할을 하는 비교 대상이 설정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once, twice' 등 기수적(cardinal)인 양화사와 'often, always' 등 비례

적(propositional)인 양화사를 구분하고 이들에 논의의 중점을 두었다. 반면 'again'처럼 배경으로 볼 만한 선행 사건의 집합은 존재하나, 그러한 집합에 같은 구성 요소를 하나 더 추가한다는 의미의 부사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36) ㄱ. Jin read that book twice.
ㄴ. Jin read that book again.
ㄷ. Jin always read that book.

(36)은 같은 사건을 각각 기수적인 양화사 'twice', 반복 표현 부사 'again', 그리고 비례적인 양화사 'always'가 양화하는 문장이다. (36ㄱ)은 배경 혹은 전제된 사건 집합없이 사건을 누적적으로 두 번 계산하는 상황이고, (36ㄷ)은 Jin이 책을 읽는 사건들의 집합을 전제로 이 집합의 구성 사건 중에 대부분이 'that book'을 읽는 사건임을 뜻한다. (36ㄴ)은 이 두 경우의 중간적 성격을 보인다. 전제된 사건 집합은 존재하되 이 집합의 구성원을 비례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구성원을 누적적으로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기수적 양화 부사', '반복표현 부사', '비례적 양화 부사'는 연속적 특징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반복'을 뜻하는 '다시'와 '또'는 '반복의 정도'를 뜻하는 빈도부사와 함께 양화의 개념에 속하지만 정도성에 초점을 두는지의 여부에서 차이가 난다. 한 번 더 셈을 뜻하는 '반복'은 '반복의 정도'를 뜻하는 '빈도'와 다르다. 전자는 덧셈표 '+'라면 후자는 부등호 '>' 혹은 '<'로 비유할 수 있다.

이상에서 '반복'을 표현하는 '다시'와 '또'가 양화부사 및 빈도부사와 맺는 관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백인영(2019: 19)에서 제시된 위계에 반복 표현 부사 '다시', '또'까지를 포함한 것이다.

(37) 양화표현 > A-양화표현 > 양화부사 > 빈도부사
> 반복표현 부사 '다시' '또'

반복을 의미하는 '다시'와 '또'는 양화부사로서 문장에서 연산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때 양화의 대상, 곧 작용역은 사건이 된다. 주지하듯이 Davidson(1967)의 사건 의

미론에서는 전통적으로 명사만을 서술어의 논항으로 취급해 온 것과 달리 사건까지를 개체로 도입하여 부사어의 논항으로 간주하였다.

(38) [[Brutus stabbed Caesar in the back with a knife]]
= ∃e[stab'(caesar)(brutus)(e) ∧ in_back'(e) ∧ with_knife'(e)]
(곽은주 1999: 463)

사건을 개체 영역에 도입함으로써 사건도 사물이나 사람과 같이 개체성을 가지게 되어 양화의 대상, 즉 셀 수 있는 대상이 된 것이다. 아래 (39)처럼 문장은 부사 'often/sometimes'의 수식을 받아 Jin이 그 책을 읽는 사건이 두 번 이상 발생했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 복수 사건이 형성된다.

(39) Jin **often/sometimes** read that book
∃e[read (e) ∧ Agent(e, Jin) ∧ Theme(e, that book)(e) ∧ often (e)]

중요한 것은 사건구조에 있어서 경계성이 명확한 전체 사건 E만 개체성을 가지고 양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위 사건인 과정이나 결과상태는 종결점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양화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는 명사에 대비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책, 자동차, 책상' 등 셀 수 있는 가산명사(count NP)와 '물, 밀가루, 우유' 등 셀 수 없는 물질 명사(mass NP)가 있다. 전자가 일정한 형상이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셀 수 있으며 단수와 복수를 구별하는 반면에 후자는 명사가 지시하는 사물 자체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나누어 셀 수 없다.

이와 비슷하게 일정한 시공간에 존재하여 경계성을 가진 전체 사건은 양화의 대상이 되지만 물이나 밀가루 등의 물질 명사처럼 일정한 한계가 없는 과정과 결과상태는 그 자체로는 셈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결과상태는 상태로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중단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속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빈도부사나 [반복]을 의미하는 '다시'와 '또'의 수식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과정 또한 그 자체로는 시공간에 존재하는 뚜렷한 한계가 없어 동작의 진행만을 나타내므로 셈해질 수 없다.

(40) 진이 김치찌개를 **다시/또** 데웠다.
→ 전제: 진이 전에 김치찌개를 데운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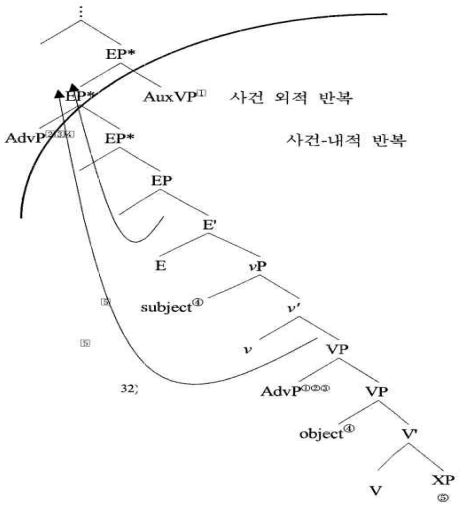
'다시'와 '또'가 [반복]으로 해석될 때 (40)은 찌개를 데우기 시작하는 시작점과 찌개가 뜨거워져 전자레인지를 껐다는 종결점으로 이루어진 사건 전체를 한 번 더 셈한다는 뜻이지 찌개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과정이나 찌개가 뜨거워진 결과상태를 한 번 더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양화의 대상은 일정한 한계나 비교적 명확한 윤곽을 가져야 하며, 이에 '다시'와 '또'가 반복으로 해석되는 경우, 이는 하위 사건이 아니라 전체 사건에 관여한다.

앞에서 사건 구 EP의 설정을 이미 살펴보았다. 이러한 EP는 하나의 완전한 사건을 나타내는 구조적 경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특성에 기반하여 임채훈(2012: 116-148)은 사건 반복을 설명하는 데 해당 기능범주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EP는 사건-내적과 사건-외적을 구분하는 선이 된다. (41)에서 보이듯 EP 상위에 결합하는 부사(어)나 보조용언들만이 반복 사건을 나타낼 수 있다.[7)]

---

7) 사건-외적 반복의 구성 요소(임채훈 2012: 147).
EP 상위에 부가되는 보조동사: -곤 하
EP 상위에 부가되는 빈도 부사어 : 종종, 가끔, 두 번, 세 번 등
-한정적 빈도 부사어의 경우 연속적 행위를 의미하지 않는 경우
EP 상위에 부가되는 의성어/의태어 착착, 띄엄띄엄 등
-서술어가 내부 국면을 가지 않는 순간적 동작류를 의미하는 경우
EP 상위에 부가되는 기간 부사어: 동안 등
-서술어의 내적 기간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EP 상위로 이동하는 명사구 : NP마다, NP씩/양화된 명사구
-서술어나 '함께, 같이' 등의 부사어에 의해 구성 요소들이 통합되지 않는 경우

(41)



임채훈(2012: 146)

사건-내적과 사건-외적의 구분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철수가 수레를 10분 동안 밀었다'라는 발화에서 '-동안' 시간 부사구는 철수가 수레를 미는 과정의 지속시간을 수식하여 사건 내부에 있다. 반면에 '철수가 10년 동안 수레를 밀었다'라는 발화는 습관적 해석을 받는다. 이때 문장은 철수가 10년 동안 수레를 미는 일을 직업으로 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동안' 시간 부사구는 '철수가 수레를 미는 사건'의 외부에 존재한다.

정리하면 [반복]은 양화의 개념으로 규정되며 따라서 하위 사건이 아니라 전체 사건을 작용역으로 삼고 복수 사건을 형성한다. 이는 통사구조에서 전체 사건 E에 대응하는 통사범주인 EP에 반복 의미를 나타내는 '다시'와 '또'가 결합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반복'의 의미를 전체 사건을 그 양화 대상으로 취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윤재학(2007)에서는 '다시'와 '또'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생성어휘론의 하위 사건 중점 구조를 달성 동사를 포함한 모든 상황 유형의 사건구조에 있어서 과정이 항상 핵 사건[8]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바꾸어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와 '또'가 과정을 수식할 때 [반복]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결과인 것으로

8) 윤재학(2007)에서는 Pustejovsky의 'head event'를 중점사건으로 번역하였다.

보인다. 그러나 이는 해당 논의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무리한 측면이 있다.

윤재학(2007)에서 ‘반복’을 과정의 반복으로 본 분석은 또 다른 문제도 야기한다. ‘또 아프다’나 ‘배가 또 고프다’처럼 ‘또’는 몇몇 장면층위 술어와 어울릴 수 있다. 이때 ‘반복’의 의미를 과정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또’는 아프거나 고픈 상태에 이르는 과정을 수식하는 의미가 된다. ‘머리가 또 아프다’라고 할 때 반복되는 것이 머리가 아픈 사건이 아니라 머리가 안 아플 때부터 머리가 아플 때까지의 과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다.

이외에도 ‘다시’의 [복원]해석을 설명하는 일부 논의에서는 ‘결과상태의 반복으로 인해 원상회복 해석이 얻어진다’는 설명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상태의 불가산성을 무시하여 사건의 [반복]과 상태의 [복원]을 뭉뚱그린다는 점에서 분명 문제가 있다.

본고에서는 [반복]을 ‘다시’, ‘또’가 전체 사건을 양화할 때 획득하는 의미로 확정한다. 그럴 때에 위에서 제시했던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먼저 완성 동사와 달성 동사의 하위 사건에 핵(head)을 구별되게 부여하는 생성어휘론의 기본논의를 바꿀 필요가 없다. 더불어 장면층위 술어가 ‘다시’와 ‘또’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현상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장면층위 술어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나타나는 상태를 기술하기 때문에 종결점이 예상되는 개체 사건으로 인식되기 쉽다는 설명이다. 또한, ‘다시’가 결과상태를 작용역으로 삼을 때에는 상태의 반복이 아니라 대상이 원래 가졌던 상태로의 회복을 뜻한다고 보면 [반복]과 [복원]을 서로 구별되는 두 의미로 논의할 수 있다.

2.2.3. 작용역에 따른 ‘다시’와 ‘또’의 해석 양상

부사(어)가 작용하는 문장 층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현상은 범언어적으로 존재한다. Travis(1988: 292)에서는 부사 ‘quickly’가 통사적 위치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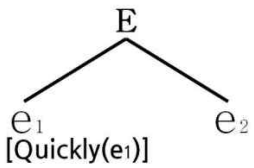
(42) ㄱ. John will quickly be arrested by the police.
ㄴ. John will be arrested by the police quickly.

ㄷ. Quickly john will be arrested by the pol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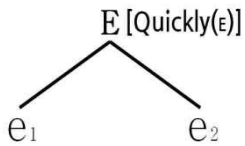
ㄹ. John quickly will be arrested by the police.

(42ㄱ)과 (42ㄴ)에서 'quickly'는 체포의 과정이 민첩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42ㄷ)과 (42ㄹ)은 체포 사건이 범행이 저질러진 바로 직후에 일어날 것임을 의미한다. 이를 사건구조 도식을 통해 이해하면 다음 (43)과 같다. (43ㄱ)은 John을 잡는 과정이 민첩한 방식일 것임을 표현한다면, (43ㄴ)은 John이 범행 직후에 경찰에게 잡힐 것을, 즉 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짧음을 나타낸다.[9)]

(43) ㄱ.



ㄴ.



아래와 같이 부사 'Cleverly'도 중의적으로 해석되는데 Jakendoff(1972: 49)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44) ㄱ. John cleverly dropped his cup of coffee.

ㄴ. John dropped his cup of coffee cleverly.

(The manner in which John dropped his cup of coffee was clever.)

ㄷ. Cleverly, John dropped his cup of coff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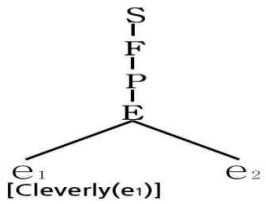
(It was cleverly of John to drop his cup of coffee.)

(44ㄱ)은 (44ㄴ)으로도, (44ㄷ)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중의적인 문장이다. (44ㄴ)은 'John'이 커피잔을 떨어뜨리는 방식이 기발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cleverly'는 방식부사가 된다. 한편, (44ㄷ)은 가령 John이 일부러 커피잔을 떨어뜨림으로써 누군가의 시선을 끄는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화자가 John이 잔을 떨어뜨린 일이 현명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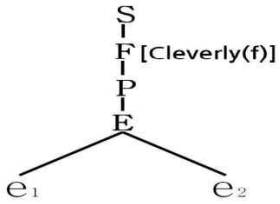
9) 아래에서 각 부사의 중의성을 도식화하는 방식은 김태인(2014)에 따른 것이다.

다고 평가하는 경우를 의미할 수 있다. Jakendoff(1972:57)에서는 (44ㄷ)의 ‘cleverly’ 같은 경우를 향주어 부사(subject-oriented)라고 명명하였다. 이영헌(2008 : 155)과 김태인(2014: 28) 등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향주어 부사를 평가부사(어)로 처리하기도 한다. (44)의 부사 ‘cleverly’의 두 해석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45) ㄱ.



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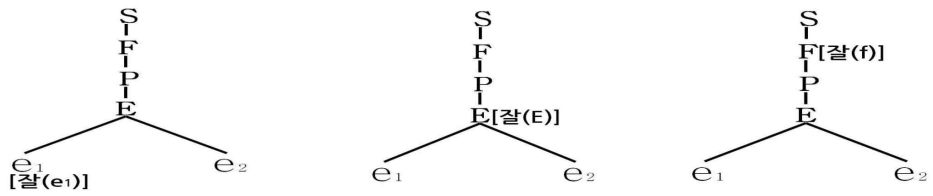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한국어 부사의 중의성을 다룬 연구로는 김태인(2014)가 있다. 해당 논의에 따르면 한국어 부사 ‘잘’은 작용하는 문장 층위에 따라 각각 ‘방식부사’, ‘빈도부사’, ‘평가부사’의 지위를 획득한다.

(46) 연우는 잘 뛰었다.

김태인(2014: 1)

(46)이 ‘연우는 빠르게 뛰었다’의 의미를 나타낸다면 이때 ‘잘’은 방식부사로의 쓰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문장이 ‘연우는 시도 때도 없이 자주 뛰었다’의 의미로 쓰인다면 이때의 ‘잘’은 [자주]의 의미로 빈도부사의 지위를 가진다. 만약 연우는 뛰었기 때문에 기차를 놓치지 않았고 단우는 뛰지 않아서 기차를 놓쳤다는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면 (46)의 ‘잘’은 방식부사도 빈도부사도 아닌 [다행히]를 의미하는 평가부사가 된다. 이를 도식을 통해 이해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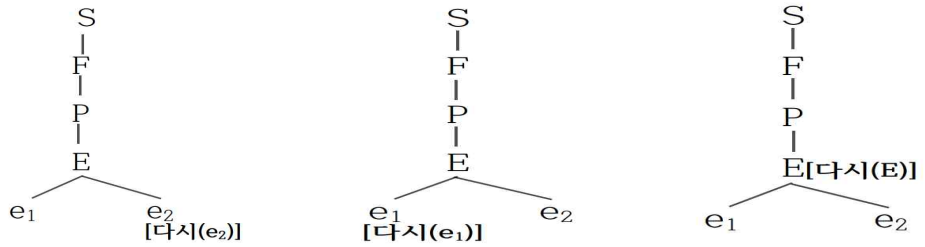
(47) ㄱ. 방식부사 ‘잘’ ㄴ. 빈도부사 ‘잘’ ㄷ. 평가부사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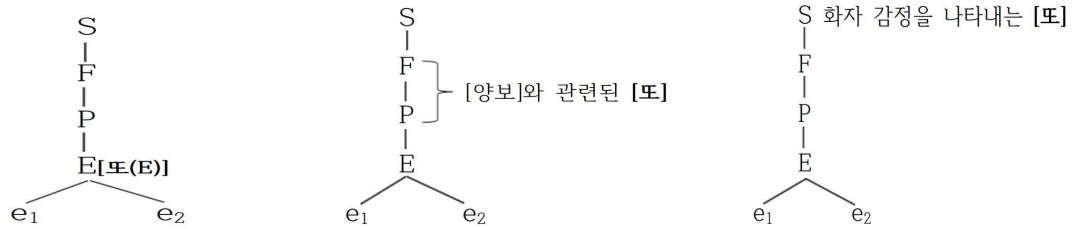
김태인(2014: 31)

이상에서 부사의 의미 해석이 작용하는 문장 층위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고는 ‘다시’와 ‘또’의 중의적 특성과 두 부사 간의 의미 차이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두 부사가 문장의 각 층위에 작용할 때의 양상을 도식화하면 (48)과 같다.

(48) ㄱ. [복원] ㄴ. [계속] ㄷ. [반복]



(49) ㄱ. [반복] ㄴ. [양보] ㄷ. 화자의 감정 표현



(48)에서 ‘다시’는 결과상태에 작용하면 [복원], 과정에 작용하면 [계속], 전체 사건에 작용하면 [반복]을 의미한다. (49)에서 ‘또’는 전체 사건에 작용하면 [반복]을 의미하고 명제·사실에 작용할 때에는 [양보]를 나타내는 데서 첨가 초점사로 기능한다. 화

행 층위에 작용하면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나 놀라움, 강조 등을 나타낸다.

(48)-(49)에서 제시한 의미 외에도 '다시'는 종종 문두에 위치하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텍스트적인 기능도 보인다. 이때의 '다시'는 접속적 기능을 가지게 되어 더 이상 사건 지향적이지 않고 담화 지향적인 부사로 발전한다. 한편, '또'는 전형적인 접속부사로 기능할 수 있다. 접속부사는 발화와 발화 혹은 선행 상황과 후행 발화 사이에 놓이기에 문장 내부를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문장이 나타낼 수 있는 의미 층위를 사건, 명제, 사실, 화행으로 계층적으로 구분하였는데 접속적인 기능의 '또'는 한 문장의 층위를 넘어 기능한다.

2.3. 전제 유발 표현으로서의 '다시'와 '또'

반복을 의미하는 '다시'와 '또'는 전제를 유발하는 표현으로 다루어져 왔다(문금현 2004, 양용준 2018, 황현동 2020 등). 이 절에서는 의미론과 화용론의 한 주제인 전제의 관점에서 '다시'와 '또'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 과정에서 두 부사의 같고 또 다른 특징들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50) 윤기가 수영장에 **또/다시** 갔다고?
전제: 이전에 윤기가 수영장에 간 적이 있다.

반복을 의미하는 '다시'와 '또'를 사용한 (50)과 같은 발화는 윤기가 수영장에 간 일이 이전에 적어도 한 번은 발생했음을 전제한다. 전제는 당연히 참인 것으로 간주되는 명제이다. 전제를 일으키는 어휘 항목이나 구성들을 흔히 전제 유발자, 전제 유발 표현(presupposition triggers)이라고 한다(Huang 2007: 65). 이러한 전제 유발 표현에는 '후회하다, 알다, 모르다' 등의 사실 동사, '시작하다, 계속하다' 등의 상태변화 동사, 분열문이나 비교 표현 등이 해당한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반복표현 부사 '다시'와 '또'도 여기에 속한다.

전제는 어떤 진술의 진리치를 판별하기 위해 반드시 먼저 참이 되어야 하는 의미적 내용이다. 그렇기에 명제를 부정하여도 전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51) ㄱ. 윤기가 **또/다시** 수영장에 간다고?
전제: 이전에 윤기가 수영장에 간 적이 있다.
ㄴ. 아니야, 사정이 생겨서 못 간대.
ㄷ. 아니야, 안 가기로 했대.
ㄹ. *아니야, 걔 수영장에 간 적 없어.

(51ㄴ), (51ㄷ)처럼 단언된 내용을 부정하는 응답은 자연스럽지만 (51ㄹ)과 같이 '다시'와 '또'가 유발한 전제 내용을 부정하는 발화는 응답으로 부적절하다. 부정 하에서도 진리치가 유지되는 것(constancy under negation)은 전제의 기본 성립 조건에 포함된다.

(52) P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발화 S의 전제이다.
ㄱ. S가 참이면, P가 참이다.
ㄴ. S가 거짓이면, P가 여전히 참이다.
(Huang 2007: 68)

그런데 '다시'와 '또'는 다른 전제 유발 표현과 비교할 때 부정소와 공기 시 보이는 특이한 특성이 있다.

(53) ㄱ. 윤기가 수영장에 간 것을 후회한다.
전제: 윤기가 수영장에 갔다.
ㄴ. 윤기가 수영장에 간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윤기가 수영장에 간 것을 후회를 안 한다.
전제: 윤기가 수영장에 갔다.

(54) ㄱ. 윤기가 **다시/또** 수영장에 갔어.
전제: 윤기가 수영장에 간 적이 있다.
ㄴ. 윤기가 [**다시/또** 수영장에 가]지는 않았어.
전제: (이번에 안 갔지만) 윤기가 수영장에 간 적이 있다.

→ 부정소의 작용역 > ‘다시/또’의 작용역

ㄷ. 윤기가 **다시/또** [수영장에 안 갔어].

전제: 윤기가 수영장에 안 간 적이 있다.

→ ‘다시/또’의 작용역 > 부정소

(53)은 사실 동사 ‘후회하다’가 전제 유발 표현으로 나타난 문장이다. 이때 윤기가 수영장에 간 것을 후회하는지, 후회하지 않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윤기가 수영장에 간 적이 있다는 전제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54)에서는 ‘다시’와 ‘또’가 부정소에 비해 좁은 작용역을 취하는지 넓은 작용역을 취하는지에 따라 선호되는 해석과 유발하는 전제가 변한다. (54ㄴ)은 (54ㄱ)의 부정이며 이때 두 발화의 전제는 동일하다. 그런데 동일하게 (54ㄱ)에 부정표현을 추가한 문장인 (54ㄷ)은 조금 다른 내용의 전제를 유발하는 듯하다. (54ㄴ)의 경우에는 부정소의 작용역이 반복표현 부사보다 넓은 반면, (54ㄷ)에서는 반복표현 부사의 작용역이 부정소보다 넓다. 부정소 ‘안’ 혹은 ‘-지 않다’, ‘못’ 혹은 ‘-지 못하다’는 통사적으로 부사로 분류되어 왔다(남기심·고영근 외 2019: 493). 이들은 ‘다시’, ‘또’와 공기할 때 작용역 다툼을 보일 수 있다.

통사적으로 부사는 동사, 동사구, 문장을 수식한다고 논의되어 왔다. (54ㄴ)과 (54ㄷ)의 차이는 결국 ‘다시’와 ‘또’가 포함된 동사구가 부정소의 수식을 받는지 아니면 부정소가 포함된 동사구가 ‘다시’와 ‘또’의 수식을 받는지에서 비롯된다. (54ㄴ)과 (54ㄷ)에서 부정소는 모두 동사에 결합되어 윤기가 이번에 수영장에 가지 않았음을 표현한다. 단, 차이는 윤기가 수영장에 가는 일을 반복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수영장에 안 가는 일을 반복한 것인지에 있다.

‘다시’와 ‘또’는 전제를 유발한다는 특성은 공통되나 전제된 내용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55) ㄱ. 지훈이가 방에서 **다시** 라면을 먹었어, 저번에도 방에서 라면을 먹었는데.

ㄴ. 지훈이가 방에서 **다시** 라면을 먹었어, *저번에도 방에서 햄버거를 먹었는데.

(56) ㄱ. 지훈이가 방에서 **또** 라면을 먹었어, 저번에도 방에서 라면을 먹었는데.

ㄴ. 지훈이가 방에서 **또** 라면을 먹었어, 저번에도 방에서 햄버거를 먹었는데.

‘다시’가 쓰인 (55ㄱ)은 지훈이가 이전에 방에서 라면을 먹은 적이 있음을 전제하며, 이는 ‘또’가 쓰인 (56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달리 (55ㄴ)과 (56ㄴ)에서 전제는 ‘방에서 무엇인가를 먹었다’라는 명제인데 이때 먹는 대상을 라면에서 햄버거로 바꾸게 되면 (56ㄴ)은 적절하나 ‘다시’가 쓰인 (55ㄴ)은 적절하지 않은 발화가 된다.[10] 이에 대해 일부 논의에서는 ‘또’는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관련되는 상황을 전제로 유발할 수 있지만 ‘다시’는 동일 사건만을 전제 내용으로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아래 예문을 보면 ‘다시’와 ‘또’가 전제 내용에서 보이는 차이를 단지 상황이나 사건의 동일함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처리할 수는 없어 보인다.

(57) 철수가 문을 **다시** 닫았다.
ㄱ. 철수가 그전에 문을 닫은 적이 있다.
ㄴ. 문이 그전에 닫혀 있던 적이 있다. (영희가 닫아놓은 문이 바람 때문에 열렸다. 철수가 그 문을 다시 닫았다.)

(58) 철수가 문을 **또** 닫았다.
ㄱ. 철수가 그전에 문을 닫은 적이 있다.
ㄴ. *문이 그전에 닫혀 있던 적이 있다. (영희가 닫아놓은 문이 바람 때문에 열었다. 철수가 그 문을 또 닫았다.)

(57)과 (58)을 비교해 보면 ‘다시’는 단언된 사건과 동일하지 않은 사건을 전제할 수도 있지만 ‘또’는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차이는 ‘다시’는 결과상태의 [복원]을 의미할 수 있으나 ‘또’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되지 못한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59) ㄱ. 지훈이가 방에서 **다시** 라면을 먹었어, *저번에는 방에서 햄버거를 먹었는데.
ㄴ. 지훈이가 저번에 방에서 햄버거를 먹었고, ?이번에 **다시** 라면을 먹었다.
ㄷ. 지훈이가 집에서 치킨을 만들었고, **다시** 수제버거를 만들었다.

---

10) 먹는 대상이 달라도 ‘또’의 사용이 자연스러운 이유는 ‘또’의 배분성에 있다고 본다. 이는 5장에서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59)의 세 발화는 아래로 갈수록 더 자연스럽다고 느껴진다. (59ㄱ)은 (55ㄴ)과 같이 '단언+전제'의 발화 연쇄로 이루어진 문장인데, 이때 '다시'의 사용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이와 달리 (59ㄴ), (59ㄷ)은 '전제+단언'의 연쇄로 이루어진 발화이다. (59ㄴ)은 다소 부자연스럽지만 (59ㄱ)보다는 수용도가 높고 (59ㄷ)은 정문으로 받아들여진다. (59ㄴ), (59ㄷ)에서도 전제와 단언이 기술하는 사건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단지 두 상황이 어떤 공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때는 '다시'의 사용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는 (59ㄷ)에서는 '다시'가 [반복]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그런 다음에]를 의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제+단언'의 연쇄로 발화되면 상황 발생의 시간 순서가 반영되어 발화의 수용도가 한층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 전제의 관점에서 '다시'와 '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두 부사는 전제를 유발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나 각자가 지니는 의미가 달라 구체적인 전제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임이 관찰되었다.

2.4. 요약

본 장에서는 전체 논의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이론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먼저 사전에서의 '다시'와 '또'의 기술을 고찰함으로써 두 부사 각각의 의미와 서로 간의 차이를 논의하였다. '다시'와 '또'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높은 빈도로 사용됨에도 그간 두 부사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서로 간의 차이와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한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본고는 이에 대해 충실한 논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두 부사의 의미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의미지도를 통해 뚜렷하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고는 부사와 피수식 단위의 의미 결합을 함수와 논항의 결합 관계로 파악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논항 역할을 하는 문장의 각 의미 계층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문장이나 발화를 의미론적으로 범주화하면 '화행(Speech-Act) > 사실(Fact) > 명제(Proposition) > 전체 사건(Event) > 하위 사건 (Subevent)'으로 나눌 수 있다. '다시'와 '또'는 이러한 각각의 범주에 다양하게 작용하면서 서로 다른 여러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의미론적 관점에서 한국어의 부사어를 분류한 기존 체계에서는 ‘다시’와 ‘또’를 어느 한 부류에 포함시키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 부사가 사건구조에서 보이는 차이가 어떤 식으로 통사구조에 반영되는지를, 통사와 의미의 접면에 관한 기존논의들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반복’을 양화의 개념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체성을 갖춘 전체 사건만이 반복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외에 ‘다시’와 ‘또’가 흔히 전제 유발 표현으로 거론되어 온 것을 바탕으로 전제의 관점에서 두 부사를 논의하기도 하였다.

3. ‘다시’의 의미와 통사

본 장에서는 ‘다시’의 문법을 다룰 것이다. ‘다시’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때 주로 어떤 동사와 공기하며 어떤 언어 요소의 영향을 받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다시’가 작용하는 층위를 크게 하위 사건과 전체 사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하위 사건의 경우는 다시[11] 결과상태와 과정으로 구별하여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시’의 접속적 기능을 다루는데 이러한 용법은 문법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3.1. 하위 사건 층위의 ‘다시’

3.1.1. 결과상태에 작용하는 ‘다시’

한국어 ‘다시’에 관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영어 ‘again’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아래 예문 (1)과 (2)에서 보이듯이 ‘다시’와 ‘again’은 모두 행위의 반복뿐 아니라 대상이 원래 가졌던 상태로 회복된다는 의미 즉, [복원] 해석도 가능하다.

(1) Jimmy opened the window again.

(1′) a. Jimmy opened the window, and that had happened before. (repetitive)

b. Jimmy opened the window, and the window had been open before. (restitutive)

(2) 철수가 창문을 다시 열었다.

---

11) 이 문장에서의 ‘다시’의 사용도 생각해 볼 만하다. 우리는 1차적으로 무엇을 구분한 후 거기에 2차적 분류를 더할 때 ‘다시’를 사용하곤 한다. 이는 ‘다시’가 사건 내부에 관여하며 일종의 하향적인 특징을 가지는 것의 반영이다.

(2′) ㄱ. 철수가 창문을 열었고, 이전에도 철수가 이 창문을 연 적이 있다. (반복)
ㄴ. 철수가 창문을 열었고, 이전에도 그 창문이 열려 있던 적이 있다. (복원)

(1b′)과 (2ㄴ′)에서 ‘again’과 ‘다시’는 모두 여는 동작의 반복이 아니라 창문이 열린 상태로 복원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행동주는 창문을 여는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창문은 열려 있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나 바람 때문에 창문이 닫혔다. 그래서 Jimmy이나 철수가 그 창문을 열린 상태로 복원시켰다. 이처럼 ‘again’과 ‘다시’는 단지 ‘open(v)’이나 ‘열다’라는 동작뿐만 아니라 해당 행동의 결과인 ‘open(adj.)’이나 ‘열린 상태’를 수식하기도 한다.

‘again’의 복원해석에 대한 설명에는 기본적으로 두 관점에 의한 것이 있다. 하나는 Stechow(1995, 1996)을 비롯한 구조적 접근(Structural approach)이고, 다른 하나는 Fabricius-Hansen(2001), Kamp and Rossdeutscher(1994) 등을 비롯한 어휘적 접근(Lexical approach)이다. 우선 구조적 이론을 기반으로 한 관점을 살펴보자.

Beck(2005: 9)에서 Stechow(1995)의 이론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 바 있다. 해당 분석에서는 ‘again’의 중의성은 순전히 구조적인 것으로 본다.

(3) a. Sally hammered the metal flat.
b. [[the metal] [1[VP Sally [V# t1 [V# hammered [SC PRO1 flat]]]]]

(4) Sally hammered the metal flat again.

(4′) a. [VP [the metal] [1**[VP** [VP Sally [V' t1 [V' hammered [SC PRO1 flat]]] again**]]]**
→ $\lambda e''.again_{e''}(\lambda e.\ hammer_{e}(t_m)(S)\ \&\ \exists e'[BECOME_{e'}(\lambda e^{*}.\ flat_{e*}(t_m))\&\ CAUSE(e')(e)])$
b. [VP [the metal] [1[VP Sally [V' t1 [V' hammered **[sc** [scPRO1 flat] again**]]]]]**
→ $\lambda e.hammer_{e}(t_m)(S)\ \&\ \exists e'[BECOME_{e'}(\lambda e''.again_{e''}(\lambda e^{*}.\ flat_{e*}(t_m))\ \&\ CAUSE(e')(e)]]$

우선 결과 구문인 (3)에 대해서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나 전치사구 부분은 작은 절(Small Clause)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절의 주어는 음성적으로는 비어 있지만 의미적으로 문장의 직접 목적어가 그것을 채운다고 하였다. 따라서 (3a)의 LF(Logical Form)은 (3b)와 같다. 원인과 결과상태는 대등적 연결로 포착한다. (4)에서의 'again'의 중의적 해석은 각각 (4a′)와 (4b′)로 표현한다. 즉, 'again'은 [반복]의 의미만을 가지나 반복의 대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다. 전체 사건이 반복의 대상이 되면 단순반복으로 해석되지만 결과상태가 반복 대상이 되면 복원 해석을 가진다.

한국어 '다시'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분석이 가능하다.

(5) 샐리가 쇠를 다시 평평하게 폈다.[12)]

ㄱ. $\lambda e''.\ 다시_{e''}(\lambda e.\ 폈다_{e}(쇠)(샐리)\ \&\ \exists e'[BECOME_{e'}(\lambda e^{*}.\ 평평하게_{e*}(쇠))\ \&\ CAUSE(e')(e)])$ (반복)

ㄴ. $\lambda e.\ 폈다_{e}(쇠)(샐리)\ \&\ \exists e'[BECOME_{e'}(\lambda e''.다시_{e''}(\lambda e^{*}.평평하게_{e*}(쇠))\ \&\ CAUSE(e')(e)]]$ (복원)

이러한 접근법은 부사(어)가 그 영향권에 따라 다른 해석을 획득한다고 보는 것에서 본고의 주장과 유사하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반복]에 대한 정의이다. 2장에서 규명하였듯이 반복은 양화의 개념으로 양화의 작용을 받는 대상은 계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결과상태는 상태성을 띠고 있으므로 경계성과 개체성을 갖기 어렵다. 즉, 반복이나 양화의 대상으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다. 문의 열린 상태나 쇠의 평평한 상태 등 어떤 상태가 두 번 발생했다고 셈하는 것은 우리의 직관에 잘 맞지 않는다.

이어서 어휘이론에 입각한 기존 설명을 살펴보자. 해당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again'을 다의어로 보고 'again'에는 반복(repetitive)의 의미를 지닌 '$again_{rep}$'과 복원(restitutive)/역방향(counterdirectional)[13)]의 의미를 갖는 '$again_{ctrdir}$'이 있다고 본

12) 'hammer'는 많은 논의에서 '두드리다, 두들기다'로 번역되었다. 그런데 '두들기다'를 사용하면 문장은 결과 구문으로는 읽히지 못하며 결과상태를 포함하는 상태변화 동사인 '펴다'로 바꾸어야 비로소 두 가지 해석이 모두 나온다(김윤신 2014: 84). 이에 본고는 'hammer'를 '펴다'로 번역하였다.

13) 어휘이론을 취하는 일부 논의에서는 반복(repetitive) 외에 역방향(counterdirectional)의

다. Beck(2005: 15)에서는 어휘이론에서 ‘again’을 분석하는 관점을 아래와 같이 설명해 주었다.

(6) (The temperature was falling all morning.) Now it is rising again.

(6′) a. [[$again_{rep}$]] (P<i,t>)(e)

=1 iff P(e) & ∃e'[e'<e & P(e')]

=0 iff ~P(e) & ∃e'[e'<e & P(e')]

b. [[$again_{ctrdir}$]] (P<i,t>)(e)

=1 iff P(e) & ∃e'[e'<e & Pc(e') & resPc(e')=preP(e)]

=0 iff ~P(e) & ∃e'[e'<e & Pc(e') & resPc(e')=preP(e)]

‘again’이 반복 해석을 가질 때에는 (6a′)와 같이 사건 e와 동일 사건인 e'가 이전에 발생하였으면 (6)이 참이 된다. 반면에 ‘again’이 [복원]으로 해석될 때에는 (6b′)처럼 사건 e가 일어나기 전에(P(e)) 그와 방향이 반대된 사건 e'(Pc(e'))가 존재한 적이 있었고, 사건 e'의 결과상태(resPc)가 사건 e의 시작 상태(preP)와 같으면 문장이 참이 된다. (6)을 통해 설명하자면 기온이 올라가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와 반대되는, 기온이 내려간 사건이 존재하였고, 기온이 내려가 있는 결과상태가 기온이 다시 올라가는 사건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어 ‘다시’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분석을 제시한 논의로는 Oh(2015)이 있다. Oh(2015: 865)는 두 가지 해석을 허용하는 ‘다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7) ㄱ. 반복적 ‘다시’: ‘동일한 사건이 이전에 일어난 적이 있다.’

$[\![tasi_{rep}]\!] = \lambda e'.\lambda P.\lambda e : e' < e \ \& \ P(e').\ P(e)$

ㄴ. 복원적 ‘다시’: ‘역방향 사건이 이전에 일어난 적이 있다.’

$[\![tasi_{ctrdir/rest}]\!] = \lambda e'.\lambda P.\lambda e : e' < e \ \& \ Pc(e').\ P(e)$

‘again’을 설정하고 복원(restitutive)이란 의미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역방향’은 행위성을 강조한다면 ‘복원’은 상태성에 더 가까운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결과상태를 작용역으로 하는 ‘다시’를 ‘복원’ 해석으로 인정하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단순히 부사(어)가 가능한 해석들을 하나의 의항으로 나열하기만 하고 각 의미가 어떤 기제로 인해 획득되는지까지는 설명해 주지 못한다. 더불어 어휘이론에 따른 '다시'의 선행 연구에는 [계속]이나 [그런 다음에]를 표현하는 '다시'와 텍스트적 응집성을 위해 사용된 '다시'에 대한 기술은 모두 결여되어 있다.[14]

한편 Tenny(2000)에서는 위의 두 관점을 중립적으로 취한다. 'again'과 공기하는 동사가 핵심 사건(core events)[15]을 가지는지에 따라 'again'을 분석하면서 'again'이 핵심 사건을 가질 수 있는 동사와 공기할 때에만 중의적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소위 핵심 사건이 있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CAUSE'와 'BECOME'으로 이루어진 복합 술어와 일치하고 복합 사건구조를 가진다. 이런 동사들은 대상의 최종 상태나 이동의 착점을[16] 통해 핵심 사건의 종결점이 명시되어 경계성을 얻는다.[17] 아래 예문과 같이 핵심 사건이 있는 동사들이 나타난 문장에서는 'again'이 [복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핵심 사건이 없는 동사들이 나타난 문장에서의 'again'은 [반복]으로만 이해된다.

---

14) Pustejovsky(1995)에서는 의미 나열 어휘부(SEL: Sense Enumeration Lexicon) 관점은 어휘 의미의 중요한 세 가지 특성을 무시한다고 지적하였다.

① 어휘들의 창조적 사용(THE CREATIVE USE OF WORDS): 어휘요소는 새로운 문맥에서 새로운 의미로 사용된다.

② 어휘 의미의 투과성(THE PERMEABILITY OF WORD SENSES): 어휘 의미는 원소적(atomic) 정의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의미들과 겹치기도 하고 이를 지시하기도 한다.

③ 다양한 통사적 형태의 표현(THE EXPRESSION OF MULTIPLE SYNTACTIC FORMS): 한 단어의 의미는 다양한 통사적 방법으로 실현된다.

15) 핵심 사건을 지니는 동사들은 아래와 같다(Tenny 2000: 303)

상태변화 동사: melt, die, close the door, cure the patient, fill the glass

누적 대상이 있는 동사: eat a sandwich, build a house

척도나 도착점이 있는 이동동사: run a mile, run to the drugstore

방치류 동사: put the book on the table, set the bowl on the shelf

핵심 사건이 없는 동사의 예는 다음과 같다.

접촉 동사: kick, touch, hit

정태 심리 동사: love, know

지각 동사: hear, see

16) 이런 최종 상태는 BECOME 절에 속하고 주로 대상의 상태변화나 이동의 도착점 등을 나타내는 부사어나 전(후)치사구로 실현된다.

17) That final state makes the verb telic, supplying a definite endpoint to the temporal extent of the event represented by the verb. The verbs with core events are precisely those with necessary temporal endstates associated with some change in their direct object(Tenny 2000: 298).

(8) Verbs with core events:

a. Maggie filled the glass again.

b. Marge ran to the drugstore again. (Marge ran back to the drugstore)

c. David put the book on the table again. (David put the book back on the table.)

d. *Martha ate the sandwich again. [in the restitutive reading of again]

(9) Verbs without core events:

a. *Bob kicked the wall again. [in the restitutive reading of again]

b. *Michael loves music again.

c. *Ned knows algebra again.[18)]

Tenny(2000: 311-312)

(8d)와 (9a)은 비문이 아니라 'again'에 대한 복원 해석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9a)의 'again'을 복원으로 해석하면 'Bob이 벽을 찬 적은 없지만, 벽이 예전에 Bob의 발에 접촉된 적이 있고 지금은 접촉된 상태로 회복되었다'라는 어색한 의미가 된다. (8d)에서는 소비 동사인 'eat'이 쓰였는데, 먹고 난 후에는 누적 대상인 샌드위치가 없어지므로 대상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

이상에서 영어 'again'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구조적 관점 및 어휘적인 관점을 따라 한국어 '다시'를 분석한 연구들도 함께 살펴보았다. 논의를 이어가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본고에서는 '다시'의 [복원] 의미를 '다시'가 상태성을 띠는 하위 사건인 결과상태를 작용역으로 삼을 때 나타나는 해석으로 본다. 이에 공기하는 사건구조는 적어도 결과상태를 하위 사건으로 가지는 복합사건이어야 한다. 단순 사건인 상태 술어나 동작 동사와 공기할 때에는 '다시'가 [복원] 해석을 갖지 못한다. 즉, 본고는 '다시'의 중의성을 순전히 구조적인 것, 혹은 어휘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Tenny(2000)과 같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

18) Tenny(2000)에 따르면 영어에서 'again'이 (8b, c)처럼 어떤 해석으로든 'love, know'과 공기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다시'는 '철수가 영희를 다시 사랑한다' 혹은 '영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알았다'처럼 쓰일 수 있다.

남승호(2007: 68)에서는 복합 사건구조로 분석되는 사건에는 인과적 사건뿐 아니라 상태변화, 처소 변화, 형태 변화 등 모종의 변화를 내포하는 사건들이 있다고 하였다. 아래 예문은 '다시'가 이러한 복합 사건구조를 가진 동사들과 공기하는 경우이다. 이를 통해 '다시'의 복원해석을 다시 살펴보자.

(10) ㄱ. 엄마가 휴지를 **다시** 말았다.
ㄴ. 아들은 어머니께서 해준 김치찌개를 **다시** 데웠다.
ㄷ. 짓궂은 아이들이 남준이가 막 맞춰진 퍼즐을 **다시** 파괴했다/부수었다.
ㄹ. 친구가 술잔을 **다시** 채웠다/비웠다.
ㅁ. 윤기가 친구의 옷을 **다시** 말렸다.

(10)은 '다시'가 복합 사건구조를 가진 2항 상태변화 동사들과 공기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예문에서 '다시'는 행동주가 해당 행위를 두 번 했다는 [반복] 해석도 물론 가질 수 있지만 이에 더해 [복원]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10ㄱ)은 아이가 장난치면서 두 루마리 휴지를 풀어놓았는데 엄마가 그것을 보고 풀린 휴지를 마는 상황이다. 이때 엄마는 풀린 휴지를 처음 말아보는 것일 수 있다. 즉, 휴지가 말린 상태로 회복된다는 의미로 '다시'가 쓰일 수 있다. (10ㄴ)은 집에 늦게 돌아온 아들이 이미 식은 김치찌개를 따뜻하게 먹기 위해 식은 찌개를 원래의 뜨거웠던 상태로 회복시켰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아들은 그 찌개를 처음 데운 것일 수 있다. (10ㄷ)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시'는 짓궂은 아이들이 남준이를 괴롭히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그들이 완성된 퍼즐을 퍼즐을 맞추기 전의 산산조각인 상태로 되돌렸음을 의미한다. 나머지 예문들도 이와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다.

(10)의 각 예문과 관련하여 휴지가 마른 상태가 되면 마는 행위가 그치고, 김치찌개가 뜨거워지면 데우는 행위는 종결되며 퍼즐이 산산조각으로 변하는 순간 파괴하는 행위도 끝이 난다. 마찬가지로 술잔에 술이 꽉 채워짐에 따라 잔에 술을 채우는 행동이, 옷이 더 이상 젖은 상태가 아님에 따라 말리는 사건이 종결된다. 즉, (10)은 대상의 변화된 최종 상태를 통해 행위의 종결이 드러나는 경우들이다.

(11) ㄱ. 강아지는 불편해서 주인이 입혀준 옷을 스스로 **다시** 벗었다.
ㄴ.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봐 보물을 **다시** 땅속에 숨겼다.
ㄷ. 정순이가 그 책을 **다시** 윤기에게 주었다.

(11ㄱ), (11ㄴ)은 '행동주-대상' 논항 구조를 가진 2항 이동 동사이고 (11ㄷ)은 '행동주-대상-착점'의 논항 구조를 가진 3항 이동 동사이다. (11ㄱ)에 대해 옷을 처음 입어본 강아지가 옷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혼자 발버둥치다가 그 옷을 벗은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때에는 강아지가 옷을 입어본 것과 옷을 벗어 본 것이 모두 처음이므로 옷을 한 번 더 벗었다는 [반복]의 의미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문장에서 '다시'가 여전히 사용될 수 있는데, 강아지가 난생처음으로 옷을 벗었고, 벗고 나서 원래 자유의 몸인 상태로 돌아갔다는 뜻을 표현할 때에 그러하다. (11ㄷ)에서 이전에 정순이가 윤기에게 책이든 무엇이든 돌려준 적이 없는 경우에도 '다시'의 사용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이는 '다시'가 윤기가 그 책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 회복된다는 [복원] 해석을 가지기 때문이다.

(12) ㄱ. 톰이 **다시** 미국에 갔다.
ㄴ. 아이가 **다시** 집으로 달렸다.
ㄷ. 그가 **다시** 마을로 돌아갔다.

(12)는 모두 조사 '-(으)로'나 '-에'에 의해 도착점이 명시되는 처소 변화 구문이다. 이동의 착점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처소 변화를 겪은 대상이 도착점에 있게 된다는 결과상태가 도출되고 이동 행위의 종결도 함께 실현된다. (12ㄱ)은 평생에 미국에 살았던 톰이 여행하러 한국에 왔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쓰일 수 있다. 톰은 이전에 미국을 떠나본 적이 전혀 없고 따라서 미국으로 돌아간 적도 당연히 없다. 즉, 이때 '다시'는 [반복] 해석을 받지 못하며 문장은 톰이 미국에 있는 상태로 회복된다는 [복원] 해석을 가진다. (12ㄴ), (12ㄷ)에서도 마찬가지의 '다시'의 [복원] 해석이 성립된다.

이상에서 '다시'가 상태변화 동사 및 도착점을 명시하는 이동동사와 공기하는 경우, [복원] 의미를 나타냄을 살펴보았다. 복합사건 구조를 가지며 완성 사건 유형에 속하

는 이러한 동사들은 모두 사동(causative)의 의미를 드러내고 사동의 의미구조에서 야기된 결과 사건(result/caused event)을 형성한다. 이들 동사들이 곧 결과 구문을 형성하는 전형적인 동사이기도 한 것이다.

결과 구문에 관한 연구는 통사적 관점, 의미적 관점 모두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다. 쉽게 정의하면 결과 구문이란 한 문장 속에 주서술어(1차 서술어 CAUSE)와, 주서술어의 사건이 완성된 후의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결과 술어(2차 서술어 BECOME)가 함께 들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황주원 2011: 532).[19]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러한 구성은 '다시'가 [복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필요조건이다.

그간 한국어의 결과 구문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것으로는 '금속을 평평하게 폈다, 테이블을 깨끗하게 닦았다' 등과 같은 '형용사-게 V' 형식이 있다. 박소영(2003: 83-87)에 따르면 '-게'형 결과 부사(어)는 상태변화 동사[20]와 공기할 때 서술어 동작의 결과, 목적어의 상태변화, 즉 결과상태를 나타낸다.

(13) ㄱ. 엄마가 휴지를 **다시** 동그랗게 말았다.

---

19) 이러한 기술에 따르면 과정과 결과상태는 완전히 배타적인 시간 관계를 갖는 듯 보인다. 하지만 Pustejovsky(1995: 69-71)에서는 두 하위 사건 e_1과 e_2의 관계를 시간순서와 중복 여부에 따라 세 가지로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한다.

① 배타적이면서 순서지어진 것(exhaustive ordered part of): e_1과 e_2가 배타적이면서 시간적으로 전자가 후자를 선행하는 순서를 지킨다. 예: 기동동사와 사역동사

② 순서지어진 부분 중첩(ordered overlap): e_1과 e_2가 배타적이지만 동시에 일어나고 중복된 부분이 있다. 예: 집을 짓다

③ 배타적 완전 중복(exhaustive overlap part of): e_1과 e_2가 동시에 일어나고 완전히 중복된다. 예: accompany

20) 박소영(2003: 84)에서는 '-게'형 결과 부사어와 공기하여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의 목록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상태변화 동사:

닦다, 청소하다, 씻다, 빨다, 정돈하다, 자르다, 썰다, 부수다, 깨다, 폭파하다, 굽히다, 구부리다, 펴다, 줄이다,

늘이다, 갈다, 말리다, 익히다, 식히다, 조이다. 말다, 뭉치다, 굳히다 등

제조 동사:

짓다, 쑤다, 짜다, 찍다. 튀기다, 굽다, 말다, 접다, 빚다, 깎다, 갈다, 꼬다, 엮다, 가꾸다, 꾸미다, 차리다, 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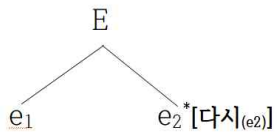
그리다, 쓰다, 짓다, 파다 등

이외에 비대격 동사(야위다, 흐리다, 시들다, 굳다, 식다, 얼다 등)와 피동 동사(깨지다, 뭉쳐지다, 고정되다, 정돈되다, 씻겨지다, 끊어지다, 비워지다, 지워지다 등)도 '게'형 결과 부사어와 공기하면 주어의 결과상태를 표현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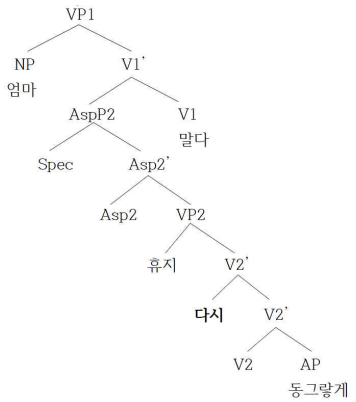
ㄴ. 아들이 김치찌개를 **다시** 뜨겁게 데웠다.
ㄷ. 윤기는 탁자를 **다시** 깨끗하게 닦았다.

(13)은 전형적인 '-게'형 결과 구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상태변화 동사가 나타난 문장들과 마찬가지로 (13)의 '다시'도 [복원]으로 해석된다. 휴지를 말은 결과 휴지가 동그란 상태로, 김치찌개를 데운 결과 찌개가 뜨거운 상태로, 탁자를 닦은 결과 탁자가 깨끗한 상태로 회복된다는 의미로 '다시'가 쓰인 것이다. 이처럼 '다시'는 '-게'형 결과 부사어와 공기하여 대상이 회복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더욱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다시'는 '-게'형 결과 부사어와 함께 하위 사건인 결과상태를 작용역으로 취한다. 물론 결과 부사어는 결과상태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면 '다시'는 결과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그러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됨을 나타내므로 두 유형의 부사어가 담당하는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사구조에 반영된다. 사건구조에 있어서는 [복원]을 의미하는 '다시'와 결과 부사어가 모두 결과상태에 작용하지만 통사구조에서 이 둘이 서로 다른 위치를 가지는 것이다. 사건구조와 통사구조에서의 '다시'의 지위를 아래와 같이 파악할 수 있다.

(14) ES:



SS:



'다시'는 사건구조에서는 하위 사건인 결과상태에 작용하며 통사구조에서는 결과 부사어가 포함된 V2'의 외곽 즉, 결과절에 해당하는 부분에 결부되어 [복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장이 '-게'형 결과 부사어를 포함하거나 결과상태를 포함하는 복합 사건구조를 가진다고 해서 언제나 '다시'의 [복원] 해석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15) ㄱ. 아이가 교과서를 **다시** 너덜너덜하게 찢어 버렸다.
ㄴ. 어머니가 고추를 **다시** 가루로 빻았다.
ㄷ. 크리스가 **다시** 처참하게 죽었다.

(15)은 모두 결과 구문이나 앞선 경우들처럼 '다시'가 전형적인 [복원] 해석을 갖지는 못한다. (15ㄱ)의 '너덜너덜하게'는 찢은 행위를 한 후에 교과서가 너덜너덜한 결과상태가 된 것으로, 교과서가 원래 너덜너덜한 상태로 존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복원해석은 불가능하다. (15ㄴ)은 고추가 원래 가루 형태였다가 채소로 변한 것이 아니기에 역시 다시 가루 상태로 돌아갔다는 복원 해석은 어색하다. (15ㄷ)에서도 크리스가 목숨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면 '다시'는 어떤 의미로든 '죽다'와는 공기하기 어렵다. (15)의 문장들은 모두 상식적으로는 [복원]으로 해석되기 어려운 경우이다.

그리고 유의해야 할 것은 '형용사-게'형 부사어는 결과 부사어뿐 아니라 방식 부사어로도 쓰이기 때문에 '-게'형 부사어가 있다고 해서 모두 결과 구문인 것은 아니며 '다시'가 [복원] 해석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16) ㄱ. 학생들이 선생님께 **다시** 무례하게 대하면 안 된다.
ㄴ. 수업을 잘 안 들어서 쉬운 문제도 **다시** 어렵게 풀었다.

(16)에서 '무례하게'와 '어렵게'는 선생님을 대한 결과나 문제를 푼 결과가 아니라 행동의 과정을 수식하는 방식 부사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문장에서는 '다시'가 [복원]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다. 이때 '다시'는 무례한 상태나 어려운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다. '다시'는 전체 사건의 반복을 뜻하지 상태의 회복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한편 아래의 예문들은 복합사건 구조와 결합한다고 해서 언제나 '다시'가 [복원] 해석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17), (18)은 각각 달성동사, 완성동사 구문으로 복합사건 구조를 가지지만 이때 '다시'는 [새로이]나 [수정]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17) 열아홉 살에 **다시** 발견한 바다는 유년의 도화지에 문질렀던 맑은 남색의 투명한 바다가 아니었다.

(18) ㄱ. 윤기는 (남준이가 망친) 잡채를 **다시** (맛있게) 만들었다.
ㄴ. 민호는 집을 **다시** (예쁘게) 지었다.
ㄷ. 어머니께서 빵을 **다시** 구웠다.
ㄹ. 정국이가 그림을 **다시** 그렸다.

(17)은 화자가 죽은 친구의 골분을 친구 어머니께서 바다에 뿌리는 장면을 보고는 친구와 바닷가에서 즐겁게 놀았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또 이제는 바다에 대한 자신의 감상이 변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문장이다. 여기서 '다시'는 '발견하다'와 결합하여 전체 사건의 [반복]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무엇을 한번 발견하고 나면 그것을 알게 되었기 마련인데 이를 모르는 것처럼 한 번 더 발견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또한 발견하는 과정은 처음 겪지만 발견한 후의 상태로 회복된다는 식의 [복원] 해석도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이때 '다시'는 여전히 결과상태를 작용역으로 삼는 듯하다. '다시'는 '발견하다'라는 달성동사와 결합하여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결과상태로의 회복이 아니라 알게 된 내용이나 인식 등 결과 내용 자체를 갱신하거나 변경하는 뜻으로 쓰인다. 즉, (17)에서 '다시'는 바다를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는 뜻으로 [수정/새로이]란 해석을 갖는다.

(18)은 '다시'가 제조 동사를 포함한 산출 구문에서 나타난 경우이다. 이때 '다시'는 행동주가 같은 행위를 단순히 한 번 더 했다는 의미의 [복원]보다는 [수정]의 의미에 더 가깝다. (18ㄱ)은 윤기가 잡채는 처음 만들어 보지만 평소에 요리를 잘했기 때문에 남준이가 망친 잡채에 조미료 등을 넣어 잡채의 맛을 살려낸 경우를 말할 수 있다. (18ㄴ)에서 민호는 이전에 집을 지어본 적은 없지만 집의 구조나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집을 재건하거나 리모델링을 하였을 수 있다. (18ㄷ)에서도 물론 어머니가 빵을 한 번 더 구웠다고 할 수도 있으나 아들이 못 구운 빵을 어머니가 맛있게 구웠다는 의미로 '다시'가 사용될 수도 있다. 정리하면 (18)과 같은 산출 구문에서 '다시'는 [복원] 해석을 받지 않고 [수정/새로이]의 의미로 이해된다.

원상태로 회복하려면 원래의 상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산출 구문의 경우, 직접

목적어는 창조된 대상으로 제조하는 행위를 통해 세상에 처음 존재하게 된 것이다. 원래 가졌던 상태가 없으며 이에 따라 복원해석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결과상태에 작용하는 '다시'는 기존 상태를 바꾸거나 갱신한다는 의미로 발전한다. 결과상태에 결합한 '다시'가 [수정/새로이]의 의미를 얻게 되는 것은 인간의 인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수정하거나 고치려는 의도는 행위주가 기존의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않을 때 생긴다. 이전에 한 행동에 의해 얻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으면 행위주는 그 결과를 바꾸거나 개선하기 위해 전과 같거나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다.

특정한 어휘와 공기하는 것 외에도 '다시'가 [수정]이나 [새로이]를 의미하게 하는 다른 영향 요인이 있다. 대표적으로 과거 시제소 '-었-'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해 온 대부분의 문장을 살펴보면 이들이 과거시제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어의 과거 시제 표지 '-었-'이 사건의 종결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늙었다, 잘생겼다'와 같이 결과상을 지시하는 기능도 있음과 관련된다. 문숙영(2009: 140-147)에 따르면 '-었-'은 완료에서 단순과거로의 문법화 과정에 있다. 이러한 문법화를 겪은 언어 요소는 아래 Bybee *et. al.*(1994: 51)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세계의 여러 다른 언어들에서 발견된다.

(19) 완료(perfect)→ 결과(resultative) → anterior → 완결(perfective)/단순과거 (simple past)

Bybee *et al.* 1994: 51(문숙영 2009: 146에서 재인용)

(19)에서 볼 수 있듯이 '완료'를 나타내는 언어 요소는 단순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결과'나 '결과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로 인해 핵 사건이 과정에 놓이는 완성 동사가 이러한 상적인 특징을 가진 시제소 '-었-', 그리고 결과상태에 작용하는 '다시'와 함께 쓰이면 사건의 초점이 결과상태로 옮겨 갈 수 있다. 결과상태의 부각에 따라 '다시'는 완성 유형에 속하며 과거 시제 '-었'과 결합한 제조 동사와 공기하여 [수정/새로이]의 의미를 더 강하게 드러내게 된다.

(20) ㄱ. 빵을 굽는다/집을 짓는다/그림 하나를 그린다: E = $*e_1+e_2$
ㄴ. 빵을 다시 구웠다/집을 다시 지었다/그림 하나를 다시 그렸다:

$E = e_1 + * e_2$

‘다시’의 해석은 또한 상태가 변화한 결과를 뜻하는 결과 부사어의 영향을 받는다. ‘-게’형 결과 부사어는 단순히 상태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우에 해당 행동을 하고 나서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도록’과의 교체가 가능하며 ‘목적절’로 분석되거나 문장에서 ‘목표역’을 가진다고 설명되기도 한다. (21)에서 상태의 변화 결과를 뚜렷하게 표현하는 문장에서 ‘다시’의 [수정/새로이] 의미가 더욱 강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21) ㄱ. 정순이가 대충 닦은 테이블을 윤기가 **다시** 깨끗하게 닦았다.
ㄴ. 승호가 잘못 쓴 필기는 민호가 **다시** 정확하게 써 주었다.
ㄷ. 지훈이는 지저분해진 정원을 **다시** 깔끔하게 꾸몄다.

이 외에 명령문이나 청유문과 같이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화용적인 요인의 영향 아래 ‘다시’의 [수정/새로이]의 의미가 유도되기도 한다.

(22) ㄱ. 논문을 **다시** 써와.
ㄴ. 바닥을 **다시** (깨끗하게) 닦아!

(22)의 예문들에서 화자는 직접 목적어인 대상의 기존 상태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결과에 만족할 수 있게끔 대상의 상태를 수정해 달라는 의미로 청자에게 명령을 내린다. 물론 전체 사건, 즉 논문을 쓰는 일이나 바닥을 닦는 일을 한 번 더 하라는 뜻의 [반복]의 의미도 전달하지만 이에 더해 대상의 상태의 수정까지를 분명히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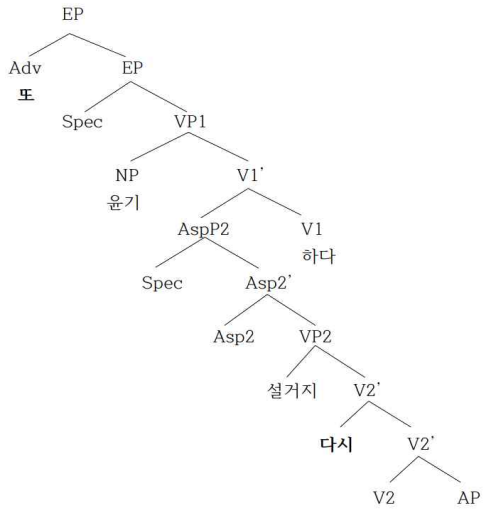
정리하면 ‘다시’는 복합 사건구조를 가진 동사와 공기하여 결과상태를 그 작용역으로 취하면 기본적으로 [복원] 해석을 가진다. 단, 복원할 원상태가 없거나 원상태로 회복하지 않고 오히려 원상태를 바꾸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장 전체의 의미나 맥락의 영향을 받아 [수정/새로이]의 의미로 발전한다.

마지막으로 ‘다시’와 ‘또’의 간단한 비교를 통해 ‘다시’가 자신의 작용역으로 결과상태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3) ㄱ. 윤기가 설거지를 **다시** 했다.
ㄴ. 윤기가 설거지를 **또** 했다.

(23)은 '다시'와 '또'가 교체된 두 문장이다. 이때 (23ㄱ)에서는 윤기가 전과 동일한 내용물의 설거지를 하는 해석이 일차적이라면, (23ㄴ)은 윤기가 전과 다른 새로운 식사에 대한 설거지를 하는 경우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하위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전체 사건의 반복에만 참여하는 '또'와 다르게 '다시'는 하위 사건인 결과상태를 작용역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있는 논항까지를 성분-통어(c-command)하지 못한다는 것과 관련된다. 이를 아래에 제시하는 통사구조를 통하여 더 명료하게 보일 수 있다.

(24)



(23)에서 두 문장의 목적어는 모두 맨 명사구 '설거지'이다. 그러나 (23ㄱ)에서의 '설거지'가 낱개체(objects)의 실체를 지시하여 특정적인 것과 달리 (23ㄴ)에서의 '설거지'는 종류(kind)를 지시하며 총칭적이다.[21] 위의 통사구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21) 전영철(2013: 2)에 따르면 한국어 명사구에서 명사가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은 다른 많은 언어에 비해 훨씬 더 크다. 관사 체계가 없는 한국어에서는 맨 명사구(bare noun phrase)가 총칭성과 특정성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 예컨대 '학생'이라는 하나의 맨 명사구에 'a student', 'the student', 'students', 'the students' 등의 매우 다양한 영어 표현들이 대응됨을 볼 수 있다.

‘다시’는 V2’에 결부되기에 V2’의 자매항인 직접 목적어 ‘설거지’를 성분-통어하지 못한다. 반면에 ‘또’는 EP에 결합하여 그 아래 층위에 있는 ‘설거지’를 성분-통어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내부에 관여하고 결과상태를 일차적인 작용역으로 선호하는 ‘다시’가 나타날 때 동사가 기술하는 행위는 전제 사건과 동일한 대상에 실행되지만, 전체 사건을 양화하는 ‘또’가 나타나면 이는 하나하나의 독립적인 사건에 관여하므로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도 더 이상 전제 사건과 같은 지시체가 아니라 사건의 변환으로 인해 같은 유형이지만 다른 개체로 변하게 된다.

3.1.2. 과정에 작용하는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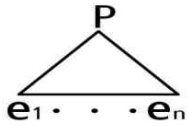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표준>에는 ‘하다가 그친 것을 계속하여’라는 의미가 ‘다시’의 한 의항으로 등재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고려>에서는 ‘하다가 그친 것을 또 잇대어’라는 의미로, <연세>에서는 ‘계속해서’라는 의미로 ‘다시’의 과정을 이어주는 의미, 즉 [계속]으로서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

(25) ㄱ. 김 선비가 한참 쉬었다가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ㄴ. 그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넘어졌는데도 일어나서 **다시** 뛴다.
ㄷ. 친구랑 얘기했다가 **다시** 밥을 먹는다.

(25)에서 ‘다시’는 과정을 나타내는 동작 동사와 공기하고 있다. (25ㄱ)에 대해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던 김 선비가 너무 피곤해서 한참 쉬고 난 뒤 길을 재촉하여 서울로 계속 걸어가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다. 이때 ‘다시’는 끊긴 과정을 이어주는 기능을 하며 [계속]의 의미를 획득한다. 서울로 걸어가는 사건은 서울에 도착해야 끝난다. 이 과정이 중간에 다른 어떤 사건, 가령 쉬는 사건에 의해 끊겨서 완성되지 못하였을 때 ‘다시’는 끊긴 사건을 완성하기 위해 계속한다는 뜻을 부여한다. 이는 다른 예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뛰는 사건이 넘어지는 사건 때문에 중단되었고, 밥을 먹는 과정이 친구와 얘기하느라 잠시 그쳤기 때문에 화자는 전에 하던 일을 계속한다는 의미로 ‘다시’를 사용하여 끊긴 과정을 서로 연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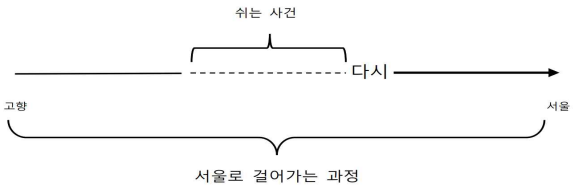
2장에서 제시하였듯이 Pustejovsky(1991)에 따르면 하위 사건인 과정의 사건구조는 아래와 같다.

(26)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과정은 단일하지 않아 n개로 쪼개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Link(1998: 231-237, 284-287)에서는 과립성(granularity)이라 명명한 바 있다. 곧 단일 사건이라 하더라도 관점에 따라 그 과정을 더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고 세분화의 정도에 따른 다단계적인 체계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예문과 도식으로 설명하자면 서울로 가는 사건은 고향에서 서울까지 길을 걷는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길을 걷는 과정에서 쉬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며 사람과 얘기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사건이 개입될 수도 있다. 즉, 서울로 가는 일이 단일 사건이라고 하되 관점에 따라 쉬거나 밥을 먹는 등 'e_1, e_2 ---e_n'와 같은 여러 단계로 나눌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립성에 관여하고 e_1, e_2 --- e_n 사이에 놓이는 '다시'는 각 단계를 전체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주며 [계속]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27)



따라서 과정으로만 이루어진 동작 사건과 공기할 때 '다시'는 [계속]을 나타내곤 한다.

(28) ㄱ. 윤기 **다시** 뛴다!
ㄴ. 휴정했다가 재판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ㄷ. 잠깐 나갔다가 못다 한 숙제를 **다시** 하기 시작했다.

(28ㄱ)에 대해 윤기가 천 미터 달리기 대회에 나가 뛰다가 갑자기 넘어졌는데 일어나서 계속 뛰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윤기를 응원하러 온 친구는 윤기가 일어나서 경기를 계속하려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서 (28ㄱ)과 같이 발화할 수 있다. 문장은 윤기가 뛰는 행위를 반복해서 함을 의미하기보다는 윤기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린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8ㄴ)에서 '다시'는 한 재판이 휴정 때문에 상반부와 하반부로 나뉘게 되었는데 휴정 후 재판을 이어서 하겠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28ㄷ)도 마찬가지이다. '다시'는 다 못한 숙제를 완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이때는 '다시'가 '-기 시작하다'와 결합하여 과정의 이어짐이라는 의미가 더 명료해졌다.

중단된 과정을 이어주려면 일단 해당 사건구조에 과정이 있어야 한다. 기본논의 및 아래의 (29)에서 알 수 있듯이 과정은 동작 사건뿐 아니라 완성과 달성 사건의 하위 사건이기도 하다.

(29) ㄱ. 동작: I …… FArb
ㄴ. 완성: I …… FNat R(명시적인 결과)
ㄷ. 달성: …… E R ……
ㄹ. 순간: E
ㅁ. 상태: (I) ——— (F)

Smith(1997: 23-32)에서는 각 상황 유형을 위의 도식으로 나타내었다.[22] 여기서 '……' 부분은 동작 동사와 완성 동사의 상황 유형에서 과정에 해당하고 달성 동사의 경우에서는 각각 예비과정과 결과상태의 지속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즉, 과정을 하위 사건으로 내포하고 있는 상황 유형으로는 동작, 완성, 그리고 달성 사건이 있다. 달성

22) ㄱ. ——— [+상태성]
ㄴ. …… [+동작성]
ㄷ. I FArb 시작과 임의적인 끝점
ㄹ. I FNat 시작과 내재되어 있는 끝점

사건은 결과상태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예비과정은 다른 언어 요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상 발화에서 부각되지는 않는다. 한편, 완성 사건은 사건구조에 과정이 포함될 뿐 아니라 사건의 중점도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시'는 동작 동사와 완성 동사 사이에서 [계속]과 [반복] 간의 중의성이 발생하기가 쉽다. 이러한 중의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사건의 과립성과 원자성, 그리고 동작 사건과 완성 사건의 차이를 드러내는 언어적 현상을 먼저 알아보자.

과정을 다단계적으로 나누어 주는 과립성에 대(對)하는 개념으로 원자성(atomicity)이 있다. 곽은주(1999: 473)에 따르면 어떤 사건을 '원자 사건(atomic event)'으로 지칭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 한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원자성을 가진 사건이 둘 이상의 사건이 모일 때 복수 사건(plural event)이 형성된다. (29)에서 보였듯이 과정으로 이루어진 동작 동사의 끝점은 내재적이지 않고 임의적이며 따라서 원자성을 내포하지 않는다. 반면에 완성 사건이나 달성 사건은 정해진 끝점이 내재되어 있어 사건의 원자성을 확보한다. 2장에서도 언급했듯이 동작 사건은 시공간에 일정한 경계가 없다는 점에서 물질명사와 유사하며 완성 사건과 달성 사건은 한정된 종결점을 갖추고 있으며 하나의 개체로 인식되기 쉽다는 점에서 가산명사와 비슷한 면이 있다.

중단된 과정을 이어주고 [계속]을 의미하는 '다시'는 사건의 원자성이 아니라 과립성에 관여한다. [계속]은 사건의 각 국면의 이어짐을 뜻하는데 끝점이 내재적이고 원자성도 띠게 되면 사건의 자연스러운 종결에 따라 과립성을 요구하는 '다시'가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며 전체 사건에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먼저 사건에 명시된 끝점이 정해지거나 사건이 원자성을 갖추는지를 나타내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자.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Dowty(1991: 567-571)에서 제시한 누적 대상(incremental theme)이라는 개념이 유용하다. 가령 'mow the lawn'이란 사건이 종결되었는지는 잔디의 상태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잔디에 아직 변화가 없으면 잔디를 깎는 사건이 시작되지 않았음을, 잔디의 1/3 정도가 깎였다면 사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잔디 전체가 다 깎여 있다면 이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때 잔디나 풀이 바로 누적 대상에 해당한다. 누적 대상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행위의 영향을 받아 커지거나 작아지는 양의 변화 등을 겪은 대상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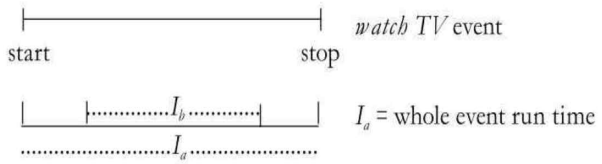
(30) ㄱ. 윤기가 밥을 먹는다.
ㄴ. 민호가 집을 짓는다.
ㄷ. ?존스가 뛴다.
ㄹ. 어머니께서 테이블을 닦는다.

(30′) ㄱ. 윤기가 밥 한 그릇을 먹는다.
ㄴ. 민호가 집 한 채를 짓는다.
ㄷ. 존스가 백 미터/집까지 뛴다.
ㄹ. 어머니께서 테이블을 깨끗하게 닦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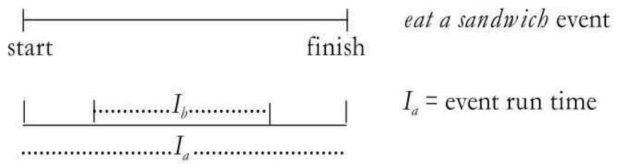
(30)은 각각 소비 동사(consumption verb), 산출 동사(creation verb), 이동 동사(motion verb), 상태변화 동사(verbs of change of state)를 포함한 예문이다. 이들은 모두 동작 동사로서 시작점과 종결점이 없고 과정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런데 (30)에 대응되는 (30′)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먹는 행위는 한 그릇의 밥이 소진되었음에 따라, 집을 짓는 행위는 한 채의 집이 생겼음에 따라, 뛰는 행위는 집까기 도착하거나 백 미터를 완주했음에 따라, 닦는 행위는 테이블이 깨끗해졌음에 따라 종결된다고 말할 수 있다. (30)과 (30′)의 비교에서 대상역을 담당하는 명사를 수량사로 한정하여 특정성을 부여하거나 이동의 착점, 변화의 결과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건이 내재적인 종결점을 획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동사구가 기술하는 상황 유형이 동작으로부터 완성으로 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작 사건과 완성 사건 사이의 종결성(telicity)과 관련한 차이는 하위 시구간 속성(The sub-interval property)에서도 드러난다.

(31) ㄱ.



ㄴ.



Kearns(2000: 163-164)에 따르면 (31ㄱ)에서 비종결적 사건인 'Jones watched TV(존스는 티비를 봤다)'라는 문장은 I_a에도 적용될 수 있고 그 하위 시구간 I_b에도 적용될 수 있다. 반면에 종결점이 내재되어 있는 (31ㄴ)의 'Jones ate a sandwich'라는 문장은 I_a 구간에 포함되는 사건에는 적용되지만 하위 시구간 Ib에는 적용되지 못한다. I_b 구간에 포함되는 사건은 존스가 샌드위치를 먹는 과정만 있고 종점이 없기 때문에 진행형인 'Jones was eating a sandwich(존스는 샌드위치를 먹고 있다)'로 기술해야 한다.

영어에는 사건의 종결성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시구간을 나타내는 두 개의 시간 전치사구가 있다. Levin & Rappaport(1995: 57)에서는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한다.

(32) ㄱ. Patricia ate grapes <u>for</u> an hour.
ㄴ. Patricia ate a bunch of grapes <u>in/*for</u> an hour.

(32ㄱ)에서는 목적어가 비한정적으로만 제시되어 'for an hour'의 공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32ㄴ)에서는 누적 대상이 구체적인 양으로 한정되고 특정성을 가지면서 'for'의 사용이 어색해진다. 누적 대상의 정량화는 사건의 종결성을 확보해준다. 한국어에서는 시간 부사구 '-동안'과 '-만에'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33) ㄱ. 윤기는 포도를 <u>두 시간 동안</u> 먹었다.
ㄴ. 윤기는 포도 한 송이를 <u>두 시간 만에</u> 먹었다.

(33ㄱ)에서는 '포도'가 관형사나 수량사의 수식 없이 맨 명사구 형식으로만 제시되어 문장은 포도를 먹는 과정만 기술하는 반면, (33ㄴ)에서는 '한 송이'로 인하여 포도

의 양이 구체적으로 정량화됨으로써 사건의 끝점이 정해진다. 이에 따라 (33ㄱ)은 사건의 지속을 뜻하는 '-동안'과 공기하나 (33ㄴ)은 '-동안'보다는 사건의 완료를 나타내는 '-만에'와의 공기가 더 자연스럽다.

사건이 종결되는지, 즉 원자성을 갖추는지는 '다시'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친다.

(34) ㄱ. 윤기가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밥을 먹는다.
ㄴ. 민호가 (장갑을 끼고 나서) **다시** 집을 짓는다.
ㄷ. 존스가 (10초만 쉬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다.
ㄹ. 어머니께서 (걸레를 한 번 헹구고 나서) **다시** 테이블을 닦는다.

(34′) ㄱ. 윤기가 **다시** <u>밥 한 그릇</u>을 먹는다.
ㄴ. 민호가 **다시** <u>집 한 채</u>를 짓는다.
ㄷ. 존스가 **다시** <u>백 미터를/집까지</u> 뛴다.
ㄹ. 어머니께서 **다시** 테이블을 <u>깨끗하게</u> 닦는다.

(34)에서 '다시'는 종점이 내재되지 않은 동작 동사와 공기하여서는 [계속]으로 쉽게 해석된다. 반면에 종점이 확보된 완성 동사와 공기하면 (34′)에서처럼 [반복]을 의미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즉, (34ㄱ)이 식사가 안 끝나고 밥을 계속 먹는 경우라면 (34ㄱ′)은 한 그릇을 끝내고 두 번째 그릇의 밥을 먹는 해석, [반복]의 의미를 가진다. (34ㄱ')을 굳이 [계속]으로 해석하려면 화청자 사이에 윤기는 원래 밥을 두 그릇을 먹는다는 전제가 공유되어 있어야 한다. 이때는 원자성을 가진 전체 사건이 한 그릇을 먹는 일이 아니라 두 그릇을 먹는 일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사건 내부에 관여하는 '다시'가 사건의 각 국면을 전체 사건으로 이어주는 집합성을 가지는 특성과 관련된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배분성을 가진 '또'와의 비교를 통해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한편 '다시'가 완성되지 못한 과정을 연결하여 [계속]을 의미할 때에는 해당 과정의 진행을 깨고 그 중간에 들어가는 다른 사건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27)의 그림에서 김 선비가 서울로 가는 사건을 중단시키는 '쉬는 사건'의 경우이다. 이러한 사건은 통사적으로 연결어미 '-다가, -ㄴ데도, -고 나서' 등을 통해 종속 접속절로 실현되곤 한다.

(35) ㄱ. 샤워를 하다가 친구 전화를 받았다.
ㄴ. 철수가 무리하다가 결국 병이 났어.
ㄷ. 그렇게 먹는데도 살이 찌지 않는다.
ㄹ.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운동하면 안 된다.

(35ㄱ)에서 '-다가' 절은 '전환'의 의미를 띠고 (35ㄴ)에서 '-다가' 절은 주절의 원인을 나타낸다. (35ㄷ)에서 '-ㄴ데도' 절은 양보의 의미로 주절 내용의 필연성을 나타내며, (35ㄹ)에서 '-고 나서' 절은 밥을 먹는 것이 운동에 선행함을 표현한다. 이러한 연결어미들은 기본적으로 선·후행절이 기술하는 두 사건이 시간 순서에 맞게 전환됨을 뜻하기 때문에 사건의 두 국면을 연결하여 [계속]을 의미하는 '다시'와 잘 어울린다. 물론 이러한 종속절이 '다시'의 [계속] 해석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다.

(36) ㄱ. 멈추지 말고 **다시** 달려.
ㄴ. 어느덧 세월이 **다시** 흘러, 현룡의 나이가 열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ㄷ.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36)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다른 예문에서와 달리 동사가 기술하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의 개입도 없고 중단되지도 않는다. (36ㄱ)과 같은 발화에서 멈춘다는 행위를 실제로 실현하지 않아도 '다시'의 사용은 성립된다. (36ㄴ)에서도 세월은 당연히 중간에 끝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이때 과정을 잠깐 끊고 중간에 개입하는 사건으로 기능할 만한 것으로는 발화의 진행 과정 자체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 즉, (36ㄴ)은 현룡의 성장 과정을 진술하는 글에서 나타날 만한 문장으로, 현룡이가 열다섯 살이 되기 전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한 후에 시간이 계속 지나갔다는 뜻으로 '다시'를 사용하고 있다. (36ㄷ)도 마찬가지이다. 문장은 한강물이 한때 고갈되어 끊겼는데 이제 물이 생겨 계속 흐른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의미를 나타내기만 한다. 이처럼 과립성이란 특성을 가진 과정에 '다시'가 개입되면 과정의 이어짐이 한층 명확하게 강조된다.

과정을 하위 사건으로 가지는 상황 유형으로는 달성 동사도 있다. 그러나 달성 사건은 결과상태가 핵 사건이 되기 때문에 예비과정은 다른 요소나 맥락의 도움이 없이는

부각되지 않는다. 아래 (35)처럼 과정을 작용역으로 취하고 사건의 진행 모습을 수식하는 방식 부사[23]를 추가해야 예비과정이 비로소 강조된다.

(37) ㄱ. 허리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천천히** 앉아야 한다.
ㄴ. 처음으로 긴 거리를 운전했는데 목적지까지 **잘** 도착했다.
ㄷ. 응달 식물인 아디안텀 고사리가 강력한 햇볕을 쬐어 죽**고 있다**.[24]

(37ㄱ)에서는 전형적인 방식 부사인 '천천히'가 달성 동사 '앉다'를 수식함에 따라 문장이 앉는 과정이 빨라서는 안 되고 허리와 무릎이 아프지 않도록 천천히 앉아야 한다는 뜻이 된다. (37ㄴ)에서는 '잘'이 방식 부사로서 '무사히, 안전하게'의 뜻으로 사용되어 역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인 과정을 수식한다. (37ㄷ)의 '죽다'는 달성 동사에 속하지만 과정을 나타내는 '-고 있다'와 결합하여 죽어가는 과정이 인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시'는 과정의 모습이나 진행 방식을 명시하는 기능을 하지 않고 그 과정이 중단되면 이어주는 기능만 한다. 따라서 (38)에서 보이듯이 (37)에서의 방식 부사를 '다시'로 단순 치환하면 예비과정이 부각되지 못한다.

(38) ㄱ. 허리랑 무릎이 너무 아파서 **다시** 앉아야 한다.
ㄴ. 목적지까지 **다시** 도착했다.
ㄷ. 크리스가 **다시** 죽었다.

(38)에서 '다시'는 모두 [반복]을 의미한다. (38ㄱ)은 앉아 있어야 허리와 무릎이 편해지기 때문에 앉는 동작을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뜻이다. (38ㄴ)도 목적지에 두 번째로 도착했다는 뜻이다. (38ㄷ)은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크리스가 가상적인 인물이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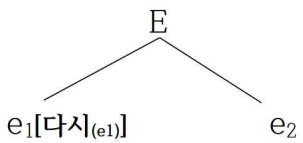
23) 서정수(1996: 466)에 따르면 방식 부사는 동작의 모습이나 양상을 여러모로 한정하는 구실을 한다. 예컨대, 잘하고 못함, 쉽고 어려움, 빠르고 느림 따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해당 논의에서는 동태 부사어로 논의하였는데 동태는 'manner'의 번역으로 본고의 방식 부사어와 같다. 따라서 사건의 과정에 개입하지만 '다시'는 방식 부사와는 구별해야 한다.

24) (37ㄷ)은 여러 개의 고사리가 하나둘씩 죽었다는 반복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순간 동사가 지속을 의미하는 '-고 있다'와 결합하여 반복 의미를 드러내는 경우는 본고에서 따로 논의하지는 않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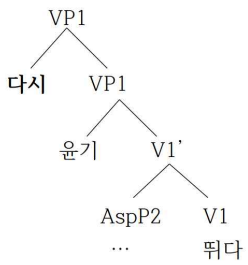
닌 이상은 ‘다시’가 어떤 의미로든 ‘죽다’와 어울리기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과정을 작용역으로 하여 사건의 과립성에 관여하는 ‘다시’가 [계속]을 의미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사건구조와 통사구조에 반영하면 아래와 같다.

(39) ES:



SS:



즉, [복원]으로 해석되는 ‘다시’와 달리 [계속]이란 의미를 나타낼 때의 ‘다시’는 사건구조에서 하위 사건인 e_2가 아니라 e_1과 관련되고, 통사구조에서도 위로 상승하여 VP1 외곽에 결합되어 사건의 행동주성을 나타낸다.

3.2. 사건 층위의 ‘다시’

3.1.1절과 3.1.2절에서 ‘다시’의 [복원]과 [계속]으로의 해석이 각각 하위 사건인 결과상태와 과정에 관여할 때 나타남을 논의하였다. 이 절에서는 ‘다시’가 전체 사건에 작용하여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전체 사건을 양화하여 [반복]을 나타내는 ‘다시’는 양화 부사에 속한다. 양화는 가산성을 바탕으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무엇을 셀 수 있고, 셀 수 없는지를 구별하는 기준이나 방식을 갖추어져야 한다. 앞에서 개체로 도입된 사건에 대한 양화가 명사의 양화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여기서 더 자세히 논의해 보자.

(40) ㄱ. 가산명사: 사과, 연필, 자동차, 책
ㄴ. 물질명사: 물, 우유, 치즈, 밀가루

(40ㄱ)의 예들은 가산명사들이다. 이러한 개체들은 일정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들의 공간적인 경계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40ㄴ)의 물질명사들이 지시하는 물질들은 그 자체가 일정한 형태로 파악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시공간에서 이들이 어떤 경계를 가지는지 말할 수 없어 셈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한편, (40ㄱ)의 가산 개체들은 그것을 쪼개면 쪼개진 부분들이 그 개체 전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분을 지시하는 말이 개체 전체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자동차를 분해하면 바퀴, 엔진, 좌석 등 여러 부품이 나오는데 그 부품 중에 엔진이나 바퀴만을 가리키면서 차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40ㄴ)의 물질들은 다르다. 이들을 쪼개도 쪼개진 부분들을 여전히 그 물질로 부를 수 있다. 시냇물의 일부를 병에 담아도 병에 있는 것 역시 여전히 물이다. 이런 점에서 물질명사는 동질적(homogeneous)이지만 가산명사는 이질적(heterogeneous)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대등하게 5보를 걷는 것과 100보를 걷는 것은 모두 길을 걷는 동작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위 사건인 결과 상태나 과정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곧 완성 혹은 달성 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동작 사건은 동질적이지만 완성과 달성 사건은 이질적이다.[25]

2장에서 기술한 것처럼 사건 의미론에 따라 사건도 개체로 인식되어 명사처럼 양화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Smith(1997: 23-32)에서는 가산명사처럼 일정한 경계를 가진 상황 유형으로 완성과 달성에 더해, 그리고 하위 사건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인 순간 사건까지가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일정한 종결점이 내재되어 있으며 그 종결점으로 인해 경계성을 획득한다. 곽은주(1999: 473)에서는 이러한 사건의 경계성을 '사건의 단일성'이라고 하는데, 사건의 단일성은 사건의 원자성(atomicity)을 확보해준다고 하였다. 달리 말하면, 명확한 경계를 가진 사건이어야 '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원자 사건(atomic event)'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26] 이때, 원자성을 구비한 사건은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문장의 의미 범주에 따르면 'E'에, 통사구조에서는 'EP'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자성이 확보될 때 '다시'는 양화부사로서 작동하여 [반복]을 나타낸다.

---

25) 이는 앞서 (31)의 도식에 반영되어 있다.

26) 유의해야 할 것은 이때 소위 '사건의 단일성'은 사건의 개체성을 강조하는 것이지, 사건구조에 있어서 단순이나 복합 사건구조를 가지는지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41) ㄱ. 동작: 윤기가 밥을 먹는다.
ㄴ. 상태: 윤기가 키가 작다.
ㄷ. 완성: 윤기가 밥 한 그릇을 먹는다.
ㄹ. 달성: 윤기가 학교에 도착했다.
ㅁ. 순간: 윤기가 재채기를 했다.

(41ㄱ)은 동작 유형이다. 이 사건은 경계가 없어서 '윤기가 밥을 먹는 사건'이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다. (41ㄴ)은 상태 유형이다. 상태 유형 역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속성이므로 동작 유형처럼 그 경계를 정할 수가 없다. 하지만 (41ㄷ)-(41ㅁ)에서는 사건 유형들의 경계가 정해져 있다. (41ㄷ)과 (41ㄹ)은 '밥 한 그릇', '학교에' 등과 같은 누적 대상이 명시되어 그 경계가 명확하다. (41ㅁ)과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 자체가 과정과 결과를 따로 나눌 수 없을 만큼 순간적이므로 사건 그 자체로 인식되어 경계가 명확하다.

그러나 사건의 경계 유무 또한 명사의 경계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앞에서 일정한 한계와 형태를 가진 개체를 지시하는 가산명사와 그렇지 못한 물질을 지시하는 물질명사를 구별하였는데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가산명사도 물질명사처럼, 물질명사도 가산명사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42) ㄱ. There was dog splattered all over the road. (Bach 1986: 10)
ㄴ. 우유를 다 마셨어?

(42ㄱ)에서 가산명사인 'dog'는 물질명사처럼 사용되어 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셀 수 없는 현상을 표현한다. 이는 맨 명사구로 단수 개체와 복수 집합을 모두를 지시할 수 있는 한국어에서는 더욱 흔한 현상이다. 반면에 (42ㄴ)은 원래는 물질명사인 '우유'가 병에 들어가거나 화·청자가 알고 있는 일정한 양의 우유에 해당할 때에는 '다'의 양화 대상이 되기도 함을 보여준다. 이는 셀 수 있는 개체가 셀 수 없는 물질처럼 표현되기도 하고, 셀 수 없는 물질이 셀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가산과 불가산 간의 교체 현상에 해당한다. Bach(1986: 10-11)에 따르면 전자는 연마(granding) 현상

이고 후자는 수량사의 한정을 통해 물질에 경계성을 부여하는 포장(packaging) 현상이다.[27]

사건에도 이러한 논의를 적용해 볼 수 있다. 3.1.2절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수량사로 대상을 한정하거나 이동의 경로, 변화의 최종 상태 등을 제시함으로써 동작 사건을 완성 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다.

(43) ㄱ. 윤기가 밥 (한 그릇)을 먹는다.
ㄴ. 민호가 집 (한 채)을 짓는다.
ㄷ. 존스가 (백 미터를/집까지) 뛴다.
ㄹ. 어머니께서 테이블을 (깨끗하게) 닦는다.

(43)처럼 '한 그릇' 등의 수량사나 도착점, 최종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어를 통해 종결점이 없는 동작 사건이 완성 사건으로 포장될 수 있다. 이때 '다시'가 선호하는 해석도 달라진다.

(44) ㄱ. 정순이는 **다시** 그림 (하나를) 그린다.
ㄴ. 민호는 **다시** 집 (한 채를) 짓는다.
ㄷ. 배고픈 아이는 **다시** 밥 (한 그릇을) 먹는다.

(44)에서 '다시'는 [계속]의 의미와 [반복]의 의미로 모두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목적어가 정량화된 완성 동사인 경우에는 [반복] 해석이, 목적어가 불특정적인 동작 동사인 경우에는 [계속] 해석이 선호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이처럼 과정이 중점이 되는 완성 사건과 과정으로만 이루어진 동작 사건에서 '다시'는 [반복]과 [계속] 사이에서 중의성을 가진다.

이는 2장에서 언급한 사건-내적 반복과 사건-외적 반복의 차이와도 관련된다.

---

27) '포장'과 '연마'라는 번역 술어는 곽은주(1999: 474)를 따른 것이다. 이것은 곧 사건의 원자성 및 과립성과 유사한 개념이다. (42ㄱ)을 한국어로는 '강아지가 길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강아지'는 가산명사인데 여기서는 마치 물질명사처럼 계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는 경계가 있는 것을 경계가 없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연마 현상이다. 반면에 (42ㄴ)은 세지 못하던 것을 양화사나 한정사 등을 통해 셀 수 있게 '포장'하는 사례이다.

Cusic(1981: 65)에서는 아래 예문을 바탕으로 사건의 복수성을 각각 국면(the phase), 사건(event), 경우(occasion) 층위로 구분하였다.

(45) ㄱ. The mouse nibbled the cheese. [the level of phrase]
ㄴ. The mouse nibbled the cheese again and again on Thursday. [the level of events]
ㄷ. Again and again, the mouse nibbled the cheese on Thursday. [the level of occasions]

(45ㄱ)에서는 'nibble'이라는 동사를 통해 사건 내적 복수성(internal plurality of each event)이 표현되고 한 사건 안의 여러 국면이 반복하여 나타난다. 이와 달리 (45ㄴ)과 (45ㄷ)은 사건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각각 사건 및 경우 층위에서의 반복을 나타낸다. 그러나 임채훈(2011: 118)에서는 사건이 목요일이라는 상황 요소를 포함하여 반복되는지와 관련하여 '사건 반복'과 '경우 반복'이 유형론적으로 뚜렷한 구별 표지를 가지는 경우가 거의 없음을 지적하며 사건 층위와 경우 층위를 구별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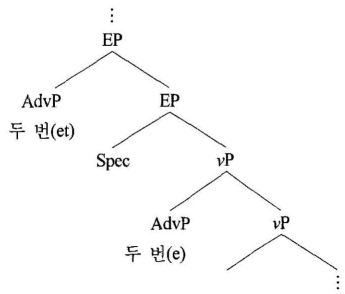
본고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45ㄱ)과 (45ㄴ)의 차이이다. (45ㄱ)에서 쥐가 치즈를 조금씩 갉아먹는다고 할 때 먹는 과정은 한 입 한 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즈를 먹는 한 사건은 여러 국면의 연속으로서 사건-내부에서 복수성을 형성한다. 반면에 (45ㄴ)은 쥐가 목요일마다 치즈를 먹었다는 의미로, 개체성을 확실히 가지는 사건들이 모여 사건-외부에서 복수성을 형성하는 경우이다. 관련하여 임채훈(2012: 125-129)에서는 (45ㄴ)이 쥐가 치즈를 먹는 사건의 반복이라면 (45ㄱ)은 쥐가 치즈를 먹는 사건의 진행 양상을 기술하는 것일 뿐 반복 사건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였다. 본고도 이러한 관점에 동의한다. 만약 사건의 진행 양상까지도 사건의 반복으로 인정하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다 반복 사건으로 인정될 듯하다. 예컨대, 책을 읽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는 양상으로 진행되는데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책 읽는 사건'이 한 번씩 반복된다고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물을 마시는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한 모금씩 마시는 양상으로 진행되는 물을 마시는 사건을 반복 사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분명히 납득하기 어려운 해석이다.

(46) ㄱ. 철수는 종을 두 번 쳐 봤다.
ㄴ. 철수는 두 번 종을 쳐 봤다.

임채훈(2012: 125)

위 두 문장은 모두 중의적이지만 더 선호되는 해석은 존재한다. (46ㄱ)에서는 동일한 종을 동일한 시간 영역 안에서 연속적으로 두 번 쳐 봤다는 의미가 선호되나, (46ㄴ)에서는 종을 쳐 본 경험이 불연속적으로 두 번 있었다는 의미가 선호된다. 즉, 전자는 '철수가 종을 치는 사건' 내부에 두 번 연속으로 친 국면이 존재한다는 뜻인 반면에, 후자는 '철수가 종을 친 사건'이 별개의 두 사건으로 존재한다는 뜻이다(임채훈 2012: 125 참조). 이러한 의미의 차이는 통사구조에도 반영된다.

(47)



임채훈(2012: 128)

vP에 결부된 '두 번'은 한 사건 내부의 연속적인 두 국면을 의미하지만 EP에 결부된 '두 번'은 불연속적인 두 사건의 발생을 의미한다. 사건 반복은 이 중 사건 내적인 진행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건을 양화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즉, (46)의 통사구조에서 [계속]을 의미하는 '다시'는 vP 외곽에 있는 '두 번'과 같고 [반복]을 의미하는 '다시'는 EP에 결부하는 '두 번'과 같다.

지금까지 '다시'가 동작 동사와 완성 동사 사이에서 [계속]과 [반복]의 중의적인 해석을 가짐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다시'가 달성 동사와 공기할 때에 기본적으로는 [반복]을 의미하나 [복원]의 의미도 강하게 드러내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49) ㄱ. H 회사가 **다시** 올해 핸드폰 매출량 1위에 도달했다.
ㄴ. 얼음이 **다시** 녹았다.

ㄷ. 윤기가 **다시** 정순이에게 잡혔다.

(49)에서 각 예문은 H 회사가 1위에 도달한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났음, 얼음이 녹은 사건이 적어도 두 번 발생했음, 윤기가 잡힌 사건이 한 번 더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즉, 이때의 '다시'는 모두 [반복]을 표현한다.

앞에서 '다시'의 [복원] 해석이 행동주가 해당 행위를 처음 수행하면서 대상을 원래 가졌던 상태로 회복시킴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경우 행동주와 대상이 구별되는 타동사와 공기하는 특성을 가짐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49ㄱ)에 대해 H 회사가 1위에 도달하는 행위를 한 적은 없지만 1위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즉, 전형적인 [복원] 의미는 불가능하다. 이는 달성에 속하는 동사들에 (49ㄴ)과 같은 자동사들이 많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달성동사에 속하는 자동사에는 크게 '도착하다, 도달하다, 눕다, 앉다'와 같은 비능격 동사(unergative verb)와 '녹다, (살이) 찌다, 타다'와 같은 비대격 동사(unaccusative verb), 그리고 '잡히다, 깨지다, 씻겨지다' 등 피동사가 있다. Pustejovsky(1995: 191)에서는 핵(Head) 사건과 관련된 논항이 반드시 표층구조에 나타나는 데 반해 핵 사건이 아닌 사건은 그들과 관련된 논항들이 통사 층위에는 반드시 나타나지 않아도 됨을 지적한다. 달성 동사의 경우에는 결과상태와 관련된 논항만 표층구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표층구조에 행동주와 대상의 구별이 반영되지 않으면 행동주가 행위를 처음 함으로써 대상을 원래 있었던 상태로 회복시켜준다는 해석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 결과 '다시'가 전형적인 [복원] 의미를 나타내는 것도 제한된다.

(50) ㄱ. H 회사가 매출량 1위에 도달했다.
ㄴ. 윤기가 침대에 누웠다.
ㄷ. 정순이가 의자에 앉았다.

(51) ㄱ. 얼음이 녹았다.
→ 녹은 대상은 얼음이다.
ㄴ. 목이 탔다.
→ 탄 대상은 목이다.
ㄷ. 야채가 시들었다.

→ 시든 대상이 야채이다.

(52) ㄱ. 윤기가 (정순이에게) 잡혔다.
ㄴ. 얼룩진 컵이 (어머니에게) 깨끗하게 씻겨졌다.
ㄷ. 책장이 (언니에게) 정돈되었다.

(50)-(52)은 각각 비능격 동사, 비대격 동사, 피동사의 예문이다. 비능격 동사 구문에서는 표층구조의 주어가 심층구조에서도 주어이다. 비대격 동사 구문에서는 표층구조의 주어가 심층구조에서는 직접 목적어이다. 또한, 비대격 술어는 외적 논항을 본래적으로 결여한 술어이지만, 피동 동사는 논항 실현 억제의 결과로 외적 논항을 결여한 것이다(박소영 2003: 87 참조). (50)의 동사들은 의미상 행동주 논항 하나만을 가지며 대상역은 가지지 않는다. (51)의 비대격 동사들은 문장 주어가 심층구조에서 대상역을 부여받고 '햇살 때문에 얼음이 녹았다'처럼 '햇살' 같은 행동주역을 상정할 수 있다. (52)의 피동사의 경우에는 대응하는 타동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행동주역과 대상역이 보다 분명하게 구분된다.[28)]

'다시'의 [복원] 의미로는 행동주가 어떤 행위를 처음 하면서 대상에 해당하는 사물을 원상태로 회복시켰다는 해석이 가장 전형적이다. 이에 따라 (50)과 같은 비능격 동사, 즉 본래적으로 행동주와 대상의 구분이 없는 경우는 전형적인 [복원] 의미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이 자연스럽다. (51)의 비대격 동사의 경우도 행동주가 상정되지 않으므로 전형적인 [복원] 의미로의 해석은 어렵다. 굳이 해석하면 (51ㄱ)은 '지난번에 햇살 때문에 얼음이 녹았고, 이번에는 히터 때문에 얼음이 다시 녹았다' 정도를 의미할 수 있다. 단, 이때 얼음이 녹은 사건은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다른 두 경우에 비해 행동주와 대상이 심층구조에서 구별되는 피동사의 경우는 [복원] 의미가 비교적 쉽게 도출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자연스럽지는 않다. 가령, (52ㄱ)은 '숨바꼭질 게임에서 윤기는 지난번에 형한테 잡혔었는데 이번에 다시 정순이에

28) 다른 두 유형과 달리 피동사는 원래 동작성이 강하고, 과정에 중점이 놓이는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에 피동 접미사가 결합한 결과, 결과상태에 중점이 놓이는 사건을 나타내게 된 경우이다. 이를 사건구조 모형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박소영 2003: 110).

$$^{*}e_1[\text{process}] + e_2[\text{state}] \xrightarrow{\text{피동화}} e_1[\text{process}] + {}^{*}e_2[\text{state}]$$

게 잡혔다'의 의미를 가져 이번이 정순이가 처음으로 윤기를 잡은 것이라고 해도 '다시'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때 문장은 '윤기가 잡힌 상태로 회복된다'는 해석을 가질 수 있다.

(49)에서 '다시'가 자동사인 달성 동사와 공기할 때 기본적으로 [반복]을 의미함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와 함께 (49ㄱ)은 H 회사가 1위 자리에서 떨어졌다가 이제 1위에 돌아왔다는 뜻, (49ㄴ)은 물로 얼린 얼음이 물인 상태로 돌아왔다는 뜻, (49ㄷ)은 윤기가 자유로워졌다가 정순이에 의해 잡힌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뜻, 즉 [복원]의 뜻을 강하게 나타낸다. 이는 달성 사건이 결과상태에 중점이 놓이는 상황 유형이기 때문이다. 달성 상황에서는 결과상태가 부각되므로 이를 작용역으로 취할 수 있는 '다시'와 어울리면 문장은 [복원] 해석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다시'는 결과상태가 핵이 되는 사건구조에서 [반복]과 [복원]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어 중의성이 발생한다. (49)의 문장들이 [반복]을 의미하면서 [복원] 해석도 함께 가지는 양상은 전체 사건과 결과상태에 모두 작용할 수 있는 '다시'가 결과상태가 핵이 된 달성 사건과 결합할 때에 가지는 모습이다.

그리고 아주 제한적이지만 '다시'가 상태 술어와 공기하기도 한다.

(53) ㄱ. *윤기가 **다시** 키가 작다/착하다.
ㄴ. 윤기가 정순이를 **다시** 사랑하였다.
ㄷ. 정순이가 윤기의 마음을 **다시** 알았다.
ㄹ. 머리가 **다시** 아파.
ㅁ. 배가 **다시** 고파.

(53ㄱ)은 사람이나 사물의 영구적인 속성을 뜻하는 일반 상태 술어는 '다시'와 공기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그런데 영어 'again'이 'love, know' 등과 공기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53ㄴ), (53ㄷ)에서 보이듯이 한국어에서는 '다시'가 '사랑하다, 알다'와도 함께 쓰일 수 있다. 이는 '사랑하다, 알다'가 논의에 따라 상태 술어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달성 동사로 분류되기도 할 만큼 동적인 속성이 비교적 강한 술어이기 때문이다. 특히 '알아가고 있다'처럼 아는 상태가 되기 전의 과정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을 보면

한국어의 ‘알다’와 ‘사랑하다’는 순전한 정적상태 술어라기보다는 동작 동사에 가까운 특징을 보인다.

또한, (53ㄹ), (53ㅁ)의 ‘아프다, 고프다’가 상태 술어임에도 ‘다시’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작다, 착하다’와 달리 해당 속성이 점유하는 시간이 비교적 짧은, 장면층위 술어(stage-level predicates)에 속하기 때문이다. 키가 큰 사람이 키가 작아지거나, 정직한 성품을 가진 점원이 갑자기 부정직해지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기 어렵다. 이와 같이 변하기 어려운 속성을 표현하는 술어를 개체층위 술어(individual-level predicates)라고 한다. 반면에 이와 반대되는 특성, 즉 변하기 쉬운 속성을 가진 술어들은 장면층위 술어라고 한다(전영철 2013: 37-38). (53ㄹ), (53ㅁ)에서 ‘다시’의 양화를 받을 수 있는 상태 술어는 장면층위 술어에 속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상태를 나타내지 않고 시공간 속에서 짧은 시간 동안만 유지된다. 끝점과 경계성도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개체 사건으로 인식되기 쉽다.

이 외에 문장이 개별문인지 총칭문(generic sentence)인지에 따라서도 ‘다시’는 [반복]과 [복원] 의미 사이에서 중의적 해석을 가질 수 있다.

(54) ㄱ. 철수는 **다시** 술을 마신다.
ㄴ. 민호는 **다시** 담배를 피운다.
ㄷ. 영희는 **다시** 운동을 한다.

(54)의 문장들은 모두 현재 시제로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문장들을 개별문으로 보면, 가령 (54ㄱ)은 지금 철수가 술을 한 번 더 마신다는 의미로 이때 ‘다시’는 사건의 [반복]을 나타낸다. 반면에 (54)의 문장들을 주어의 습관이나 일상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총칭문[29]으로 이해하면 이때 ‘다시’는 술을 마시는 사건이 몇 번 일어나는지를 의미하지 않고 [복원]을 뜻한다. 즉, 철수는 결심하여 술을 끊기로 했는데 결국 참지 못하고 이제 다시 마시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이처럼 현재시제와 가장 잘 어울리고 발화

29) 문장의 총칭성이란 어떤 개체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의 기술이나 일정한 사건들에 대한 일반화의 기술을 나타내므로 어떤 특성이 특정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범시간적으로 실현됨을 뜻한다. 현재 시제가 가장 무표적인 시제로 간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칭문의 범시간성을 구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제가 된다(전영철 2013: 154).

시점을 포함한 일반적 상태에 관한 서술을 담은 총칭문은 상태성을 강하게 띠기 때문에 이때의 '다시'는 원래 상태로 회복된다는 [복원]의 의미로 해석되곤 한다.

'다시'가 [반복]으로도 [복원]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중의적 현상은 다음 (55)와 같은 순간 동사 구문에서도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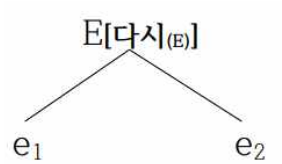
(55) ㄱ. 불이 **다시** 깜빡이다.
ㄴ. 윤기가 **다시** 재채기를 한다.
ㄷ. 준이 문을 **다시** 두드렸다.

(55ㄱ)을 예로 들면 이 문장이 불이 한 번 더 깜빡인다는 개별문으로 이해될 때에는 '다시'가 [반복]을 의미한다. 순간 동사가 나타나는 상황 유형은 아주 짧은 시간 사이에 발생하기 때문에 과정과 결과상태가 모두 상정되기는 어려우며 사건의 개체성이 매우 뚜렷하다. 이에 순간동사와 함께 쓰인 '다시'는 [반복]으로 해석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가진 순간 동사는 습관문을 이루는 주요 술어이기도 한다. (55ㄱ)은 고장이 나서 계속 깜빡였던 불이 잠깐 깜빡이지 않다가 이제 다시 지속적으로 깜빡인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때는 총칭문 혹은 습관문의 강한 상태성 때문에 문장은 불이 깜빡이는 상태로 회복된다는 [복원]의 의미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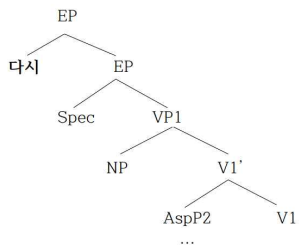
이상에서 '다시'가 동작 동사와 완성 동사 사이에서 [계속]과 [반복]을 중의적으로 의미할 수 있으며 일부 달성 동사, 상태 술어, 총칭문과 공기할 때에는 술어나 구문의 특성에 따라 중의적 해석으로 [반복]과 [복원] 해석을 가지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시'가 [반복]을 나타내는 경우를 사건구조와 통사구조에 반영하면 아래와 같다.

(56) ES:



SS:



[반복]을 나타내는 '다시'는 사건구조에서 전체 사건을 양화하고 통사구조에서 사건

구 EP에 결부된다. 위에서 살펴본 ‘다시’의 여러 의미적·통사적 차이들은 ‘다시’가 실제 문장에서 출현하는 위치에도 반영된다.

(57) ㄱ. 윤기가 테이블을 **다시** 깨끗하게 닦았다.
ㄴ. 윤기가 **다시** 테이블을 깨끗하게 닦았다.

(58) ㄱ. 어머니께서 찌개를 **다시** 뜨겁게 데우셨다.
ㄴ. 어머니께서 **다시** 찌개를 뜨겁게 데우셨다.

위의 예문들은 모두 중의성을 가진다. (57)을 예로 들면 ‘다시’는 결과상태를 작용역으로 취하면 [복원]이나 [수정/새로이]로 해석되고, 전체 사건을 작용역으로 취하면 윤기가 테이블을 깨끗하게 닦는 행동을 두 번 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다시’의 위치에 따라 선호되는 영향권이 달라짐을 볼 수 있다. (57ㄱ)에서는 결과상태가, (57ㄴ)에서는 전체 사건이 작용역으로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통사구조와도 부합한다. 즉, 하위 사건에 작용하는 ‘다시’는 문장의 더 안쪽에, 전체 사건에 작용하는 ‘다시’는 더 바깥쪽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3. ‘다시’의 사건 접속과 발화 접속

3.1.2절에서 한 사건의 중단된 과정을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다시’의 [계속] 의미를 논의하였다. 이 절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다시’가 연결적 기능을 하는 경우이나, 한 사건 내에서 국면과 국면의 연결이 아니라 두 사건에 관여하여 사건의 연쇄를 뜻하는 [그런 다음에]를 의미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더 나아가 ‘다시’가 사건 층위에서 벗어나 담화 차원으로 상승하여 텍스트의 응집성 장치로 발전되는 용법도 다룰 것이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다시’가 결과상태와 전체 사건에 관여할 때의 [복원]과 [반복] 의미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최근 들어 류병래(2018), Lee(2017, 2018)에서 이전에 일어난 적이 없는 두 사건 사이에 놓여 후행 사건이 선행 사건을 이어서 발생

한다는 ‘다시’의 용법에 주목하였는데, 류병래(2018)에서는 이때의 ‘다시’가 순차해석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용법은 <연세>에는 실려 있지만 <표준>과 <고려>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해당 의미가 ‘다시’의 문법화 과정에서 새로 발전된 의미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아래 (59)에서 ‘다시’는 연쇄적으로 발생한 두 사건 사이에 놓여 이전에 발생한 적이 없는 후행 사건에 대해 그것이 선행 사건이 일어난 후에 연이어 발생함을 나타낸다.

(59) ㄱ. 윤기가 만두를 삶았고, **다시** 감자를 튀겼다.
ㄴ. 영희가 실수로 공을 떨어트리자, 철수가 얄밉게도 **다시** 그것을 일부러 멀리 차버렸다.
ㄷ. 그리고 그는 실제로 서양의 의학, 과학, 지리학, 천문학 등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그 결과를 **다시** 책으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ㄹ. 옥졸이 회자수칸에서 길산을 나오도록 하여 좌옥 이칸으로 옮겨 가도록 했다. **다시** 칼을 쓰고 발목에는 차꼬를 차고서 옥문을 나서는데 우대용이가 그의 등뒤에 대고 말했다.

(59ㄱ)-(59ㄷ)에서 윤기는 전에 감자를 튀긴 적이 없고, 철수는 영희의 공을 멀리 차버리는 행위를 처음 했으며, ‘그’라는 사람은 이전에는 책을 낸 일이 없다. 그리고 (59ㄹ)에서도 칼을 쓰는 일을 한 번 더 했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다시’가 사용된 것이 아니다. 옥졸이 길산을 이칸으로 옮긴 후에 칼로 차꼬를 차는 행동을 하였다는 뜻이므로 ‘다시’는 두 행동의 연쇄를 연결해 준다. 이러한 ‘다시’의 의미를 [그런 다음에]로 기술할 수 있다. (59)에서 ‘다시’의 수식을 받는 행위는 이전에 발생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 일어난 사건이다. 3.1.2절에서 살펴본 중단된 과정을 이어주거나 그전에 하다가 완성되지 못했던 행위를 이제 계속한다는 ‘다시’의 의미가 아니다. 이때의 ‘다시’는 한 과정의 계속을 의미하지 않고 [그런 다음에]의 의미로서 선행 사건과 후행 사건의 연쇄적 발생을 나타낸다.

(59)에서와 같은 ‘다시’와 관련하여 류병래(2018)에서는 기존의 [반복]과 [복원]에 더해 ‘순차해석’을 하나 더 설정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류병래(2018: 711-712)에 따르면

순차해석은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사건의 결과상태를 초기 상태로 하여 이전 사건과 동일하지 않은 사건이 이어서 일어났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60)을 바탕으로 이러한 순차적 해석을 성립시키려면 Grice(1975)의 대화 격률(maxims of conversation) 등 화용론적 제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60) ㄱ. *철수는 감자를 요리하였고 **다시** 그것을 튀겼다.
ㄴ. 철수는 감자를 요리하였고 **다시** 그것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ㄷ. 철수는 감자를 씻어 깎았고 **다시** 그것을 오븐에 넣어 구웠다.

류병래(2018: 712)

(60ㄱ)을 적절한 발화로 간주하기 어려운 이유는 일반적으로 감자를 요리했다고 하면 더 이상 감자에 대해 다른 추가적인 조리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60ㄱ)은 세계 지식의 순서에 맞는 언어표현이 되지 못하고 '순서에 맞게 발화하라(be orderly)'라는 방식의 격률(maxim of manner)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순차해석의 조건에서 '선행 사건의 결과상태가 후행 사건의 초기 상태가 된다'라는 설명은 명확하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60)의 예문처럼 (59ㄱ)까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60)에서 감자를 요리한 결과상태는 감자가 익은 것이고 이는 익은 감자를 아이에게 주거나 오븐에 넣은 행위의 초기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9ㄱ)에서도 만두를 삶은 결과상태가 만두가 익은 것이지만 이것은 감자를 튀기는 행동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즉, 먼저 만두를 냄비에 넣어 만두가 완전히 익지 않은 상태더라도 옆의 냄비에서 바로 감자를 튀길 수 있다. 또한, 대화 격률을 준수하는 조건도 '다시'와는 무관해 보인다. (60ㄱ)에서 '다시'를 제외해도 이 발화 연쇄는 여전히 그 자체로 어색하다.

(59)와 같은 용법에 대해 Lee(2017)에서는 '다시'가 [반복] 의미를 유지하면서 '유사반복'이란 용법으로 쓰인다고 하였다. 아래 (62)와 같이 '상위어적 다시'를 제안한다.

(61) 상위어 '다시'(hypernymic again)

$다시_{hyper}$ (P <i, t>) (e) = 1 iff $P(e) \wedge \exists e'[e' < e \wedge P_{hyper}(e')]$

$= 0$ iff $\sim P(e)$ & $\exists e'[e' < e$ & $P_{hyper}(e')]$

(P_{hyper} is an immediate hypernym of P)

Lee(2017: 69)

이러한 상위어적 '다시'는 그가 수식하는 동사의 직접 상위어(P_{hyper})에 의해 기술된 사건이 이전에 일어났다는 뜻이다. 이러한 주장을 반영하면 (62)와 같은 문장을 얻게 된다.

(62) *빌이는 이전에 감자를 요리하였고, **다시** 그 감자를 튀겼다.

그러나 (62)처럼 '다시'가 수식하는 '튀기다'의 직접 상위어를 '요리하다'로 설정하고 이를 선행절에 위치시키면 비문이 됨을 볼 수 있다. 사실상 '다시'가 존재하는 후행절에 나온 동사의 직접 상위어가 선행절 사건을 기술하는 술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후행절 동사가 동일한 상위어의 하위어여야 보다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가정한다 하더라도 상위어와 하위어의 설정은 지나치게 분석적이며 실제 언어 사용에 있어서는 그리 유용하지 않다. 화자가 선·후행절 서술어가 하나의 상위어로 통합되는지를 판단하고 나서야 발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59ㄱ)에서 '삶다'와 '튀기다'의 공동 상위어로 '요리하다'를 상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59ㄴ), (59ㄷ)에서 '떨어트리다'와 '차다', '연구하다'와 '정리하다'의 공통 상위어가 무엇인지는 상정하기가 쉽지 않다.

Lee(2018)에서는 [그런 다음에]를 의미하는 '다시'를 '목적 반복'으로 파악한다. 선행절 사건과 후행절 사건의 목적이 같기에 '다시'가 목적의 반복을 뜻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두를 가져온 목적과 감자를 삶은 목적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 혹은 아이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등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목적 반복'의 '다시'가 쓰인다고 하였다.

(63) ㄱ. 빌이 만두를 가져왔고, **다시** 감자를 삶았다.

ㄴ. 빌이 학교에서 왔고, ***다시** 감자를 삶았다.

(Lee 2018: 163)

그러나 '다시'의 의미가 목적의 반복이라면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가 여전히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63ㄴ)에 대해 빌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목적이 학교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밥을 먹기 위함이라고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 온 목적과 감자를 삶은 목적이 모두 배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같아지고 이는 목적 반복에 만족스러운 상황이 된다. 문제는 이러할 때에도 (63ㄴ)이 적절한 발화가 아니라는 데 있다.

'다시'가 시간적으로 순차적 관계에 있는 두 사건을 연결하여 [그런 다음에]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실은 이를 구체적으로 공통 상위어로 해석할 것인지 공통 목적으로 해석할 것인지와 상관없이 어쨌든 선행 사건과 후행 사건 사이에 어떤 연결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직관적으로 선행 사건과 후행 사건은 언제나 어떤 더 큰 상황이나 맥락 안에 있기 마련이다. (59)의 예문들을 다시 생각해보면 선·후행 사건은 (59ㄱ)에서는 '빌이 요리하는 과정'에 속하며 (59ㄴ)에서는 화자가 목격하고 있는 영희와 철수가 놀고 있는 장면에 속하고 (59ㄷ)에서는 '그'라는 사람이 서양 문명을 고찰하여 알려주는 상황에 속한다.

3.1.2절에서 언급했듯이 과정은 관점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다. Link(1998 : 240-241, 284-287)에서는 사건들이 단 하나의 체계를 형성할 수는 없으며, 세분화의 정도에 따라 다단계적인 체계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세분화의 정도가 적절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소위 세분화하는 적절한 정도에 대해 곽은주(1999: 475)에서는 이를 '같은 지표'라고 하였다. 즉, '같은 지표'를 가진 구조에 속한 개별 사건들이어야만 적절한 발화 연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접속적 기능을 가진 '다시'로 이어지는 선·후행 사건은 '무언가'로 인해 서로 연결된다고 하였는데 이 무언가를 '같은 지표'로 설명할 수 있다.

(64) ㄱ. Immediately after touch-down, the president opened his seat belt/*prepared a spee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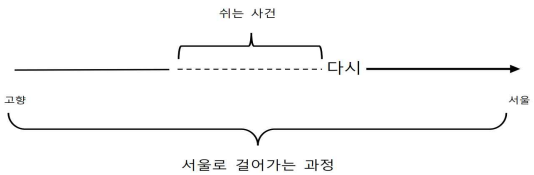
ㄴ. Immediately after landing, the president prepared a speech/*opened his seat belt.

곽은주(1999: 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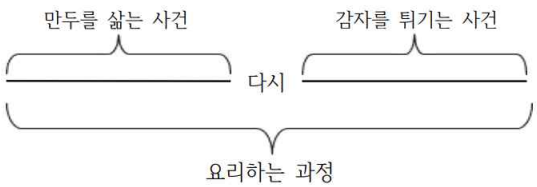
‘immediately after’는 두 사건을 연결하되 그 사이에 다른 사건이 개입되지 않음을 함축하는 접속사이다. 만약 대통령이 비행기가 땅에 닿는 순간 좌석 벨트를 풀고 연설 내용을 준비하였다면 (64ㄱ)처럼 ‘the president opened his seat belt’란 사건과 ‘touch-down’이란 사건은 접속사 ‘immediately after’에 의해 연결될 수 있지만 ‘the president prepared a speech’란 사건은 후행 사건으로 연결될 수 없다. 그러나 선행 사건을 ‘touch-down’보다 좀 더 거시적인 사건인 ‘landing’으로 바꾸면 ‘opened his seat belt’란 사건이 비록 착륙 직후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것이 ‘landing’과 같은 지표의 사건이 아니기에 두 사건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한다. 이러한 예는 사건의 세분화의 정도가 하나의 관점을 형성하며, 이 관점은 문맥상 자연스러운 흐름을 형성해야 함을 보여준다. 더불어 사건의 세분화라는 문제가 언어상에도 존재함을 보여준다(곽은주1999: 475 참조).

흥미로운 것은 [그런 다음에]를 뜻하는 ‘다시’가 3.1.2절에서 논의한 중단된 과정의 연결을 뜻하는 ‘다시’와 의미적으로 깊은 연관을 가진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서는 ‘다시’가 한 사건의 진행을 끊어 개입한 사건과 중단된 사건 사이에 놓인다면 후자의 경우에서는 ‘다시’가 더 거시적인 한 과정이나 한 상황 안에 속한 두 사건 사이에 놓인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65)



(66)



(65)에서 ‘다시’는 전에 발생하여 중단된 사건의 과정을 이어주고 (66)에서 ‘다시’는 완전히 독립적인 두 사건을 이어준다. 그런데 인간의 인지에서 연속된 독립적인 두 사

건은 환유를 통해 하나의 더 큰 과정이나 상황에 속하는 것으로 인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둘을 연결하기 위해 '다시'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위의 그림처럼 '요리하는 과정'은 비록 언어를 통해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인지 차원에서 더 거시적인 하나의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상에서 [그런 다음에]로 해석되는 '다시'가 더 이상 한 사건이나 사건 안에 국한하지 않고 사건과 사건을 연결하여 동일하지 않은 두 사건의 연쇄적인 발생을 뜻하기도 함을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다시'의 연결적 기능은 사건 층위에 머무르지 않고 아래 예문처럼 담화 차원에서 텍스트적 기능을 하기도 한다.

(67) ㄱ. 굴지의 개화인물이요 한말외교는 이분 없이 불가능했다던 윤치호, 의학계의 선구자 윤치왕, 대사를 역임한 바 있는 윤치창은 윤웅열의 아들들이요, 윤치오-윤치소, 지금도 생존한 윤치영은 윤영열의 아들들이다. **다시** 장관을 역임한 윤영선은 치호의 아들, 장관과 서울대학총장을 역임했던 윤일선은 치오의 아들, 그리고 대통령을 역임한 윤보선은 아산의 만석꾼 치소의 아들인 것이다. 만약 무덤의 적선발복이라면 대단한 발목이 아닐 수 없다.

ㄴ. 대저 나이란 무엇일까. 서른까지는 사랑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것, 서른을 넘기면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을 챙기는 것, **다시** 그 후에는 지나온 인생을 되짚는 것이다.

ㄷ. 주화는 동준의 시신 앞에 머리를 바닥에 댄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끓어 오르는 슬픔이 목구멍으로 토해졌다. **다시** 심장이 파득거렸다.

ㄹ. 비명이 터졌다. 쓰러진 사람은 아버지인 것 같기도 하고 재구인 것 같기도 했다. 아니, 탱크를 모는 사람이 아버지가 되었다. **다시** 일단의 사내들이 총구를 겨누고 달려오고 있었다.

(67)은 '윤 씨 집안 사람에 대한 소개', '나이란 무엇인지', '주화의 감정 변화', '술에 취한 후의 환각들'을 주제로 한 문장들이다. 여기서 '다시'는 시공간에 존재하는 사건의 연쇄적인 발생을 나타내기보다는 한 주제와 관련된 문장들 사이에 놓여 일종의 응집성[30] 장치로, 텍스트적 기능을 담당한다. (67ㄱ)에서 '다시'는 '윤영선'이 할아버지

나 아버지 세대 후에 장관을 역임하였음을 뜻하지 않는다. (67ㄴ)에서는 '다시'에 이어 더 명백한 시간부사인 '후에'가 쓰인 것을 볼 수 있으며, (67ㄷ)에서는 '다시'에 후행한 '심장이 파득거리는 일'이 사실은 슬픔과 흐느낌과 동시에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다. 이처럼 (67)과 같은 경우에서 '다시'는 선후 문장이 나타나는 내용이 시간 순서에 맞게 일어났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긴밀도 있게 이끌어 나가는 기능을 한다.

3.4 요약

본 장에서는 '다시'와 관련된 언어 현상을 관찰하였다.

먼저 '다시'는 하위 사건인 결과상태를 작용역으로 하고 V2'에 결합하여서는 기본적으로 [복원]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다시'는 주로 상태나 처소 변화 술어, 도착점이 있는 이동 술어와 공기한다. 이러한 술어들은 모두 결과상태를 하위 사건으로 가지는 복합 사건구조를 가진다. [복원]을 의미하려면 원상태가 있어야 한다. 원래의 상태가 없는 제조 동사나 변화 후의 결과를 나타내는 '-게'형 결과 부사어와 쓰이면 '다시'는 문장 전체 의미의 영향을 받아 [수정]이나 [새로이]를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다시'가 과정을 작용역으로 하고 VP1 외곽에 위치하게 되면 '다시'는 중단된 과정이나 사건의 각 국면을 연결하는 [계속]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다시'는 주로 사건의 과립성에 관여하며 동작 동사와 공기하곤 한다.

이어서는 '다시'가 전체 사건에 작용하고 EP 범주에 결부하여 원자성을 가진 사건을 양화하는, [반복]을 의미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다시'는 주로 원자성을

---

30) 하인즈 파터(2001)에서는 텍스트성의 기준으로 응결성(cohesion)과 응집성(coherence)을 구별하였다. 응결성은 대화 속의 어떤 요소를 해석하는 것이 다른 요소를 해석하는 일과 의존관계에 있는 경우에 나타난다. 하나는 다른 하나를 전제하는데,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는 효과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이런 응결 관계의 전형적인 예는 하나의 대명사와 그 선행사들과의 관계이다. 한편, 응집성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에서 구분된다. 넓은 의미에서 응집성은 문장 이상의 문법적(→텍스트문법) 관계와 의미론적 관계를 포괄하는 텍스트를 형성하는 문장들의 결속 관계로 간주된다. 통사론과 형태론의 형식적인 수단들 외에 특히 의미론적 구조들도 응집성을 형성한다. 좁은 의미에서 응집성은 "문법적인 텍스트접속(=응결성)과 구별되는데, 특히 어떤 텍스트의 의미론적인, 즉 어떤 텍스트의 내용 의미론적인 구성단위 또는 인지적인 구성단위를 말한다(이성만 2006: 41-62 참조).

가진 완성 동사와 달성 동사, 그리고 과정과 결과상태를 상정하기 어려운 순간동사, 시간적 속성이 짧은 장면층위 술어와 공기한다. 완성과 동작 사건의 유연성 때문에 '다시'는 [반복]과 [계속] 사이에서 중의적 해석을 가질 수 있고, 결과 상태에 중점이 놓이는 의미적 특성의 달성 동사와 쓰일 경우에는 [반복]과 [복원]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별다른 주목받지 못하였던 '다시'의 용법을 논의하였다. '다시'는 한 사건에서 벗어나 연쇄적으로 발생한 두 사건 사이에 놓이게 되면 [그런 다음에]를 의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접속적 기능이 발전되면 '다시'는 담화 지향적인 기능을 보인다. 텍스트 응집성을 위한 장치가 된 '다시'를 관찰할 수 있다.

4. ‘또’의 의미와 통사

본 장에서는 한국어에서 ‘다시’와 함께 반복표현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사 ‘또’와 관련되는 언어 현상들을 살펴볼 것이다. 사건 층위의 ‘또’는 ‘다시’와 마찬가지로 [반복]을 의미하지만, 하위 사건에는 작용하지 않으며 주로 배분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다시’와 구분된다. ‘또’는 사건 층위를 넘어 명제·사실, 화행 층위에도 작용하는데, 이때의 ‘또’가 나타내는 다양한 의미들을를 논의할 것이다. 더불어 한 문장의 내적 의미 층위를 넘어 접속부사로서 문장과 문장을 접속하는 ‘또’의 기능도 다룰 것이다.

4.1 사건 층위의 ‘또’

3.1.1절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와 ‘또’의 비교를 통해 ‘또’가 전체 사건만을 작용역으로 취하고 하위 사건을 작용역으로 삼지 않음을 잠깐 살펴본 바가 있다.

(1) ㄱ. 윤기가 설거지를 **다시** 하였다.
ㄴ. 윤기가 설거지를 **또** 하였다.

(1)의 두 문장의 목적어가 모두 맨 명사구로 동일하지만 (1ㄱ)에서는 전과 같은 설거지를 하는 해석이, (1ㄴ)에서는 전과 다른 설거지를 하는 해석이 선호된다. 이는 ‘또’가 전체 사건의 반복을 의미하기에 하위 사건과 무관하고 결과상태의 갱신을 의미하지 못함과 관련된다. (1ㄴ)에서는 사건의 변화에 따라 맨 명사구가 지시하는 개체도 바뀌게 된다.

다음은 ‘다시’가 [복원]으로 해석되는 전형적인 예문들에서의 ‘다시’를 ‘또’로 교체한 것이다.

(2) ㄱ. 윤기가 창문을 **또** 열었다.
ㄴ. 엄마가 휴지를 **또** 말았다.
ㄷ. 아들은 어머니께서 해준 김치찌개를 **또** 데웠다.
ㄹ. 짓궂은 아이들이 남준이가 막 맞춰진 퍼즐을 **또** 파괴했다/부수었다.
ㅁ. 친구가 술잔을 **또** 채워줬다/비웠다.

(3) ㄱ. 강아지는 불편해서 주인이 입혀준 옷을 스스로 **또** 벗었다.
ㄴ.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봐 보물을 **또** 땅속에 숨겼다.
ㄷ. 정순이가 그 책을 윤기에게 **또** 주었다.

(4) ㄱ. 톰이 미국에 **또** 갔다.
ㄴ. 아이가 **또** 집으로 달렸다.
ㄷ. 그가 **또** 마을로 돌아갔다.

(2)는 상태변화 동사를, (3),(4)는 도착점이 있는 이동동사를 포함한 문장이다. 이러한 경우에서 '또'는 '다시'와 달리 모두 [반복]으로 해석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2ㄱ)은 윤기가 문을 여는 행동을 적어도 두 번 했다는 뜻이다. (2ㄴ)도 '아이가 푼 휴지를 엄마가 또 말았다'라고 하면 엄마가 휴지를 마는 행동을 그전에 이미 한 번 했다는 전제를 저절로 유발한다. 다른 상태변화 술어가 포함된 나머지 문장들도 마찬가지이다.

(3ㄱ)에서 처음 옷을 입어본 강아지가 그 옷을 처음 벗었다는 [복원] 해석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몇 차례나 주인이 옷을 입혀주기만 하면 강아지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해석만이 가능하다. (3ㄴ), (3ㄷ)도 행동주가 보물을 숨기는 행동과 정순이가 윤기에게 책을 주는 일이 한 번 더 일어났다는 [반복] 의미로만 해석된다. (4)의 2항 이동동사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4ㄱ)은 톰이 평생 처음으로 미국을 떠나 이제 돌아갔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다시'가 제조동사 및 '-게'형 결과 부사어와 공기하여 [수정]이나 [새로이]를 의미하는 것과 달리 '또'는 같은 문장에 나타나도 결과에 대한 개선이나 갱신 등의 뜻은 표현하지 않고 순전히 사건의 반복만을 나타낸다.

(5) ㄱ. 윤기는 잡채를 **또** 만들었다.
ㄴ. 민호는 집을 **또** 지었다.
ㄷ. 어머니께서 빵을 **또** 구웠다.
ㄹ. 정국이가 그림을 **또** 그렸다.

(6) ㄱ. 엄마가 휴지를 **또** 동그랗게 말았다.
ㄴ. 아들이 김치찌개를 **또** 뜨겁게 데웠다.
ㄷ. 어머니는 테이블을 **또** 깨끗하게 닦았다.

(5)는 제조 동사를 포함한 경우이다. '또'를 통해서는 윤기가 잡채를 만든 사건이 적어도 두 번 이상 발생했고, 민호가 집을 짓는 일을 두 번 이상 했다는 등의 [반복] 해석만이 가능하다. 다른 사람이 망친 잡채에 조미료 등을 추가해서 맛을 살렸다는 뜻이나 구조가 안 좋은 집을 새롭게 지었다는 의미는 표현되지 못한다.

(6)에서는 결과 부사어를 바탕으로 결과상태가 명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6)의 문장들이 행동주가 그 행위를 처음 함으로써 대상을 원상태로 복원시켰다거나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않아 이를 고쳤다는 뜻으로 읽히지는 않는다. 단지 결과상태와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났다는 해석만이 가능하다. '또'는 [수정]이나 [새로이]를 의미하지 않으며 결과의 개선이나 갱신과 무관하게 순전히 사건의 반복만을 표현한다.

중점이 결과상태에 놓이는 달성 동사와 공기할 때에도 '또'는 여전히 [반복] 해석만을 가진다. [복원]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다.

(7) ㄱ. H 회사가 **또** 매출량 1위에 도착했다.
ㄴ. 윤기가 침대에 **또** 누웠다.
ㄷ. 정순이가 의자에 **또** 앉았다.

(7′) ㄱ. H 회사가 **다시** 매출량 1위에 도착했다.
ㄴ. 윤기가 침대에 **다시** 누웠다.
ㄷ. 정순이가 의자에 **다시** 앉았다.

(7)과 (7′)은 각각 ‘또’와 ‘다시’가 달성 동사 구문에 나타난 경우이다. 모두 [반복]을 뜻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차이가 존재한다. H 회사가 1위에 도달한 일이 한 번 더 발생했다는 측면에서는 ‘또’가 쓰인 (7ㄱ)과 ‘다시’가 쓰인 (7ㄱ′)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다시’의 경우에는 이전에 1위를 한 적이 있음을 전제할 뿐만 아니라 단언된 사건의 바로 직전에 H 회사가 1위에서 떨어졌다는 의미도 함께 함축한다. 반면에 ‘또’가 쓰인 경우에는 H 회사가 연속적으로 1위를 두 번 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또’가 결과상태에 작용하지 않아 [복원]의 의미로는 쓰이지 않고 단지 전체 사건을 작용역으로 삼아 동일한 사건을 하나 더 추가하는 뜻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또’가 결과상태에는 작용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복원]이나 [수정]을 의미하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이어서는 ‘또’가 하위 사건인 과정을 작용역으로 취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의 예들에서 ‘다시’가 중단된 과정을 이어주고 [계속]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과 달리 ‘또’는 국면의 연결이 아니라 개체 사건의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 더 전형적인 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8) ㄱ. 윤기가 **또/다시** 뛴다.
ㄴ. 정순이가 남은 밥을 **또/다시** 먹는다.

(8)은 ‘또’와 ‘다시’가 과정만을 그 하위 사건으로 가지고 과립성이라는 특성이 뚜렷한 동작 동사와 공기하는 경우이다. (8ㄱ)에서 ‘또’, ‘다시’의 두 부사의 사용이 모두 가능하나 아래 (9)에서 보듯이 선호되는 해석은 같지 않다.

(9) ㄱ. 윤기가 중간에 넘어졌는데도 일어나서 **다시** 뛴다.
ㄴ. 윤기가 어제 저녁에 운동장에서 뛰었는데 오늘 **또** 저녁에 운동장에서 뛴다.

(8ㄱ)을 (9)처럼 달리기 대회에서 종점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넘어진 윤기가 일어나서 계속 달리는 경우로 해석한다면 이때에는 ‘또’보다 ‘다시’가 선호될 것이다. 반면에 윤기가 어제 운동장에서 달렸고 오늘도 운동장에서 달렸음을 말하는 경우라면 ‘다시’보다 ‘또’가 선호된다. ‘멈추지 말고 다시 달려’가 ‘멈추지 말고 또 달려’보다 훨씬 자

연스러운 발화인 것은 사건 내부에 관여할 때 '또'보다 '다시'의 사용이 선호됨을 잘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8ㄴ)에 대해서도 '다시'와 '또'가 선호하는 상황이 다르다.

(10) ㄱ. 정순이가 전화를 끊고 다시 **남은** 밥을 먹는다.
ㄴ. 정순이가 어제 남은 밥을 먹었는데 오늘 **또** 남은 밥을 먹는다.

(10ㄱ)처럼 정순이가 다 못 먹은 밥을 계속 먹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면 '다시'를 사용하지만 (10ㄴ)처럼 정순이가 며칠 동안 야근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매일 가족들이 남긴 밥을 먹는 경우를 말하기 위해서는 '또'를 사용할 것이다. 두 부사의 이러한 차이는 '남은'이란 한정적 표현을 삭제해도 여전히 성립된다. '정순이가 다시 밥을 먹는다'라는 발화는 밥을 계속해서 먹는 상황에 자연스러운 반면, '정순이가 밥을 또 먹는다'라는 발화는 식욕이 많은 정순이가 밥 한 끼 먹고 나서 한 시간 만에 한 끼를 또 먹는 상황에 더 잘 어울린다.

(11) ㄱ. 김 선비가 한참 쉬었다가 ?**또/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ㄴ. 그는 ?**또/다시** 묵묵히 하던 일을 계속했다.
ㄷ. 휴정하다가 재판을 ?**또/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1)은 하던 일을 계속하거나 중단된 과정을 이어주는 의미를 표현하려면 '또'보다 '다시'의 사용이 훨씬 자연스러움을 보여준다.[31] '다시'가 중단된 과정을 이어주고 사건의 각 국면을 한 사건으로 결속하는 뜻을 나타낸다면, '또'는 독립된 각 사건을 모아 복수 사건을 형성하는 기능을 더 전형적인 기능으로 가진다. 이는 '다시'는 집합성이 강한 반면에 '또'는 배분성이 뚜렷한 것과 관련된다.

31) 이러한 '또'의 사용도 어느 정도는 허용되나 전형적이지는 않다. 중단된 과정을 이어주는 용법으로 쓰이는 '또'도 수용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은 '다시'와 '또'의 의미가 비슷한 면이 많고 의미전염(contagion) 등의 기제 때문에 언중들이 점점 두 부사의 차이를 인식되지 못하게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월급이 적다'를 '월급이 작다'로 발화하거나 '다리가 굵다'를 '다리가 두껍다'로 발화하는 등의 현상이 대표적인 의미전염 현상에 해당한다. 이처럼 중단된 과정을 이어주는 기능은 '다시'에서 '또'로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본고는 '또'의 전형적인 사용과 두 부사 간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3.1.3절에서 논의하였듯이 사건-내적 복수성은 한 사건의 진행 양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진정한 반복 사건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반면에 사건-외적 반복은 개체성을 가진 전체 사건을 반복대상으로 삼기에 진정한 사건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한 사건 내부에 관여하며 집합적이고 후자는 복수의 개체 사건들에 관여하며 배분적이다. 이처럼 '다시'와 '또'는 각각 집합성과 배분성의 경향성을 지녀 서로 구분된다.

집합성과 배분성의 문제는 한국어에서 흔히 복수 표지 '들', 조사 '씩', '마다', '끼리'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전영철 2007, 정상희 2010, 2021 참조).

(12) ㄱ. 사람(들)이 왔어.
ㄴ. 원숭이(들)은 숲 속에 살아요.

전영철(2007: 326)

전영철(2007)에 따르면 (12)에서 '들'의 유무는 문장의 의미적 차이를 유발한다. (12ㄱ)에서 '들'이 쓰이면 온 사람의 수가 둘 이상이라는 것이 분명해 지지만, '들'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하나는 온 사람이 한 명이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온 사람이 여러 명이지만 인원수가 부각될 필요가 없는 경우일 것이다. (12ㄴ)은 총칭문으로 해석될 때에는 '들'이 없는 표현이 선호되어 원숭이라는 종류의 동물이 숲 속에 사는 속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들'이 실현되면 명사구는 원숭이 종 전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드러난 여러 마리의 원숭이들을 지시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들'이 나타나면 복수의 지시체 각각의 존재가 부각된다. '들'의 이러한 특성, 배분성(distributvity)을 아래 예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13) ㄱ. 사람들이 각자 간식을 챙겨 왔다.
ㄴ. *사람이 각자 간식을 챙겨 왔다.

'들'이 부착된 경우만이 '각자'와 공기할 수 있다. 이는 복수의 대상을 개별화시키는 '각자'의 의미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다. '들'은 배분성을 가져 복수 개체들의 존재를 하나씩 독립적으로 부각시키기 때문에 '각자'의 의미와 잘 부합한다. 반면 '들'이 결여된 맨 명사구는 단수 개체와 복수 개체의 집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복수 대상의 개별화를

요구하는 ‘각자’의 의미와 잘 어울리지 못한다.

집합성은 한국어의 보통명사나 집합명사, 그리고 집단적 술어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아래에서 먼저 집합성을 명사의 관점에서 알아보자.

(14) ㄱ. 집단명사: 단체들, 팀들, 위원회들 …
ㄴ. 집합명사: 가족들, 이웃들, 국민들, 국군들, 경찰들 …

박철우(2010: 60)에서는 (14)처럼 집단 복수만을 지시하는 명사류 (14ㄱ)을 집단명사로 보았고 집단 복수나 구성원 복수를 지시하는 중의적인 (14ㄴ)은 집합명사로 보았다. 전영철(2015)에서는 박철우(2010)의 집합명사 부류를 (15)처럼 보다 세분하였다.

(15) ㄱ. 집합명사: 위원회, 위원회들 …
ㄴ. 의사집합명사: 가족, 가족들 …
ㄷ. 보통명사: 경찰, 경찰들, 사람, 사람들, 학생, 학생들 …

전영철(2015: 811)에서는 기존에 집합명사로 분류되던 것들을 집합명사, 의사집합명사, 보통명사로 나누었다. (15ㄱ)은 집단성 표지나 집단 형성함수 없이 어휘 의미만으로 집단적 해석을 나타내는 진정한 집합명사이고, (15ㄴ)은 ‘들’의 결합으로 집단 복수나 구성원 복수를 지시하는 의사집합명사이다. 그리고 (15ㄷ)은 보통명사가 집단 형성함수의 적용을 받아 집단적 해석이 도출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중에서 보통명사가 집단 형성함수의 적용을 받아 집단적 해석이 도출되는 것은 아래 (16ㄴ)처럼 표현될 수 있다.

(16) ㄱ. [사람] = {a, b, c}
ㄴ. [사람-들] = {a+b, a+c, b+c, a+b+c}
ㄷ. [사람-Ø] = {↑ (a+b), ↑ (a+c), ↑ (b+c), ↑ (a+b+c)}

전영철(2015: 803)

(16ㄱ)의 ‘a, b, c’는 각각 한 명의 사람을 지시한다. 그리고 개별화된 복수 표현인 ‘사람-들’은 (16ㄴ)처럼 개체 합들 중의 하나로 실현되며, 이때 개체 합을 구성하는 개

체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제각기 드러낸다. 반면에 비개별화된 복수 표현인 '사람-Ø'은 (16ㄷ)처럼 집단 표지 'Ø'에 의해 개체 합에서 파생된 집단을 지시하므로 개별 개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집단 형성함수 '↑'에 의해 이러한 속성이 명시적으로 표상된다(전영철 2015: 801-803 참조).

보통명사 '사람'과 달리 '위원회'는 단수형으로 집단 표지 'Ø'의 도움 없이 어휘 내적으로 집단을 지시하고 '사람-Ø'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위원회들'은 위원회 구성원 각각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체 집단에 대한 합, 즉 복수의 위원회를 표상한다. 이를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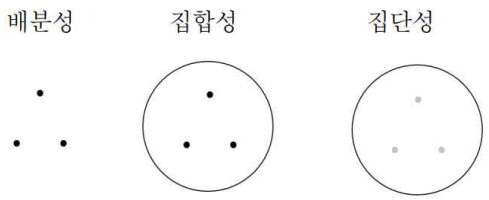
(17) ㄱ. [위원회] = {↑ (a+b), ↑ (a+c), ↑ (b+c), ↑ (a+b+c)} (단, a, b, c는 단수 개체임.)

ㄴ. [위원회들] = {A+B, A+C, B+C, A+B+C} (단, A, B, C는 개체 집단임.)

전영철(2015: 806)

한편, 정상희(2021)에서는 '배분성'과 구별되는 수 개념인 '집합성'과 '집단성'을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배분성 · 집합성 · 집단성을 연속체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18) ㄱ.



ㄴ. 배분성 · 집합성 · 집단성의 의미 자질

배분성	집합성	집단성
[+개별성]	[+개별성]	[−개별성]
[−결속성]	[+결속성]	[+결속성]

정상희(2021: 51)

(18)에 이들 세 개념들의 인접한 속성과 공유 의미 자질이 잘 반영되어 있다. '집합성'은 중간적 성격을 가져, 배분성과 같이 개별성을 가지면서도 집단성처럼 결속성 또한 지닌다. 이러한 연속적인 속성을 아래 예문을 통해 관찰할 수 있다.

(19) 볼빨간사춘기가 앨범을 발매했다.
(20) ㄱ. 안지영, 우지윤이 각자 앨범을 발매했다.
ㄴ. 안지영, 우지윤이 함께 앨범을 발매했다.
ㄷ. 볼빨간사춘기가 (우지윤이 없이) 앨범을 발매했다.

볼빨간사춘기는 원래는 안지영과 우지윤으로 구성된 여자 듀엣 그룹이었다. 그런데 후에 우지윤이 탈퇴하면서 안지영이 혼자 '볼빨간사춘기'란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에 대한 해석으로 (20)의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20ㄱ)은 배분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복수 개체들의 개별성이 드러나 있고 하나로 결속되지 않는다. 각 복수 개체들은 개별적인 사건에 참여한다. (20ㄴ)은 집합적으로 해석되어 복수 개체들의 개별성이 드러나면서도 구성원 전원이 함께 하나의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 (20ㄷ)은 집단적 해석으로 구성원 개개인의 참여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 집단 개체는 '볼빨간사춘기'라는 자격으로서 앨범을 발매하는 사건에서 참여자로 기능한다.

이상에서 선행 연구를 통해 배분성 · 집합성 · 집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다시'와 '또'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앞에서 계속 논의해 온 것처럼 '다시'는 한 사건의 여러 국면을 이어주고 중단된 사건을 한 사건으로 연결해주는, [계속]을 의미할 수 있다. 이처럼 완성되지 못한 사건의 각 국면을 하나로 결속해 주는 기능은 (18)에서 제시한 [+결속성]과 일치하다. 그리고 과정 그 자체는 다단계적으로 세분화될 수 있는 과립성을 지니며 중간 과정에 끼어들어온 다른 사건도 '-다가', '-ㄴ데도' 등의 연결어미로 명시될 수 있어 [+개별성] 또한 확보된다. 따라서 과정에 관여하고 [계속]을 의미하는 '다시'는 집합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속성은 이전에는 발생한 적이 없고 순차적으로 새로 일어나는, [그런 다음에]를 뜻하는 '다시'의 용법에서도 드러난다. 만두를 삶은 사건과 감자를 튀기는 사건은 거시적으로 요리하는 과정이라는 하나의 과정에 속하여 '다시'

의 선·후행 사건이 같은 지표에 있을 때 자연스러운 발화 연쇄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거시적인 하나의 과정에 속한다’, ‘같은 지표 하의 사건들에 해당한다’ 등의 설명은 집합성의 [+결속성] 자질에 부합한다.

반면에 ‘또’는 중단된 과정을 하나의 완전한 사건으로 이어주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사건의 각 국면을 한 사건으로 통합하기보다 오히려 사건 간의 경계선을 더욱 선명하게 긋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특성은 ‘또’가 배분적이고 [+개별성]을 가지지만 [+결속성]은 가지지 않음에서 비롯된다. ‘다시’가 집합성이 강하다면 ‘또’는 배분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명사를 표상하는 (16)과 (17)를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표상할 수 있다.

(21) ㄱ. [다시-사건 국면] = {↑(e_1+e_2), … ↑(e_1+e_n), ↑(e_{n-1} + e_n)} (e_1, e_2, e_n은 한 사건의 국면임.)

ㄴ. [다시-전체 사건] = { (E_1+E_2), (E_1+E_3), (E_2+E_3), … (E_{n-1} + E_n)} (E_1, E_2, E_3은 같은 사건이고 ‘다시’는 [반복]을 의미함.)

ㄷ. [다시-전체 사건] = {↑(E_1+E_2), ↑(E_1+E_3), ↑(E_2+E_3), … ↑(E_{n-1} + E_n)} (E_1, E_2, E_3은 다른 사건이고 ‘다시’는 [그런 다음에]를 의미함.)

ㄹ. [또-전체 사건] = { (E_1+E_2), (E_1+E_3), (E_2+E_3), … (E_{n-1} + E_n)} (E_1, E_2, E_3은 같은 사건이고 ‘또’는 [반복]을 의미함.)

(21ㄱ)은 중단된 과정을 이어주는 ‘다시’가 집단 형성함수 ‘↑’처럼 사건의 각 국면 ‘e_1, e_2, … e_n’을 연결하여 전체 사건으로 인상하고 [계속]을 의미하는 경우이다. (21ㄴ)은 ‘다시’가 같은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난다는 [반복]을 의미하는 경우이다. (21ㄷ)에서 ‘다시’는 서로 다른 두 사건을 한 상황으로 인상하며 [그런 다음에]의 뜻을 나타낸다. 반면에 (21ㄹ)에서 전체 사건을 작용역으로 취하는 ‘또’는 하위 사건 e_1, e_2, … e_n에 관여하지 않고 배분성을 띠어 개별성을 가진 전체 사건을 모아 복수 사건을 형성한다.

앞서 누적 대상을 수량사 등으로 한정하고 특정성을 부여함에 따라 동작 사건이 원자성을 가진 완성 사건으로 포장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역시

동작 동사와 공기할 때 문장을 전체 사건의 반복으로 해석되게 한다. ‘또’가 문장에서 마치 한정적인 누적 대상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예문 (8)에서 ‘다시’와 ‘또’가 과정으로만 구성된 동작 사건에 결합할 때 집합적인 ‘다시’는 [+결속성]을 바탕으로 [계속]의 의미, 즉 사건의 이어짐을 나타내지만, 배분적인 ‘또’는 종결점이 내재적이지 않은 과정에 끝점을 부여하고 사건의 경계를 드러내어, [반복]의 해석을 유도한다.

‘또’의 배분성은 아래와 같은 예문에서도 확인된다.

(22) 유승이가 거실에서 라면을 빨리 먹는다.

(23) ㄱ. **또** 유승이가 먹네. /**또** 라면을 먹네. /**또** 빨리 먹네. /**또** 거실에서 먹네.
ㄴ. **또** 라면을 빨리 먹네. /**또** 거실에서 라면을 먹네. /**또** 거실에서 빨리 먹네.
ㄷ. **또** 거실에서 라면을 빨리 먹네.
ㄹ. **또** 먹는 거니?
ㅁ. **또** 유승이/거실/라면이니?
ㅂ. **또** 빨리니?

(임채훈 2012: 122)

임채훈(2012: 121-124)에서는 사건 반복의 최소 조건을 논의하면서 한국어의 전형적인 반복표현으로 ‘또’를 예로 들었다. 해당 논의에 따르면 (22)와 같은 예문은 (23) 중 어떤 해석도 가질 수 있다. 화자는 유승이가 거실에서 라면을 빨리 먹는 사건을 목격한 후 (23)과 같이 다양하게 그 반복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23ㄱ)에서는 사건의 구성 성분 중 두 가지가 동일하고, (23ㄴ)에서 세 가지, (23ㄷ)에서는 네 가지가 동일하다. 심지어는 (23ㄹ), (23ㅂ)과 같이 구성 성분 중 하나만 동일해도 ‘또’를 사용하여 이러한 반복성을 포착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임채훈(2012: 124)는 “어떤 사건 간에 사건의 구성 요소 중 하나라도 동일성이 있으면 반복 사건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다. 한편 ‘다시’도 전체 사건에 관여하여 반복을 나타낼 수 있지만 위의 예문의 ‘또’를 교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사건의 구성 요소 중 하나라도 동일성이 있으면 반복 사건을 구성할 수 있다”는 조건에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다. 가령, A가 2021년 9월 10일 12

시에 식당에서 낙지볶음밥을 먹었고, 같은 시간에 B도 같은 식당에서 같은 메뉴를 먹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A가 먹은 사건과 B가 먹은 사건의 구성 요소는 적어도 장소, 시간, 메뉴, 먹는 행위의 네 가지 요소가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B가 낙지볶음밥을 먹은 사건이 A가 낙지볶음밥을 먹은 사건을 반복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단지 두 사건의 구성 요소 중에 일부분이 중복된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반복(repetition)과 중복(overlap)이 서로 가까운 개념이면서도 분명 구분되는 개념인 것과 관련된다.

이때 '또'는 사건의 반복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사건 간 구성 요소의 중복을 뜻한다. 중복과 반복은 워낙 유사한 개념이라서 사건 반복을 뜻하는 배분적인 '또'가 사건 구성 요소의 중복을 표현하는 데에도 사용되는 것은 언어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개별성을 강조하는 '또'의 배분성이 사건 간 일부 구성 요소의 겹침을 표현하는 것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개별성 혹은 원자성을 가진 전체 사건을 양화 대상으로 선호하는 '또'는 사건을 구성하는 각 요소에도 영향을 미쳐 각 성분이 단독적으로 나타날 때도 '또'와 잘 어울리게 만든다.

위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로 사건 내부에 관여하며 집합성이 강한 '다시'가 사건의 각 국면을 전체 사건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사건 외부에 관여하며 배분적인 '또'는 전체 사건을 양화하고 사건의 개체성과 원자성을 드러낸다. 과정으로만 이루어진 동작 동사의 상황 유형을 물질명사인 물에 비유해 보면 '다시'는 강물과 바닷물을 연결하는 '하구'의 역할을 하고, '또'는 물을 담는 그릇 같은 용기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은 집합성과 배분성이 반드시 배타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다.

(24) ㄱ. 각자 모여라.
ㄴ. 각자 흩어져라.
ㄷ. 아이들이 모였다.

예문 (24)에서는 배분성을 의미하는 '각자'와 집단적 술어인 '모이다, 흩어지다'가

자연스럽게 함께 쓰이고 있다. 이는 전영철(2007: 333)에서 지적하였듯이 집단성과 배분성이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완성과 동작의 집단 동사들은 배분적 표현인 '들'이나 '각자'와 공기할 수 있다.[32]

'다시'는 (25)처럼 하위 사건인 과정에 작용하여 사건 내부에서 집합적 해석을 이루기도 하고 전체 사건에 작용하여 원자 사건을 양화하는, 배분적 해석을 갖기도 한다. 이와 달리 '또'는 전체 사건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분적이다. 다만, 아래 (26)과 같이 사건 간의 연속을 강조하거나 언어적으로 사건 간의 시간 간격을 단축시키는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집합성을 보이기도 한다.

(25) 장학회원들은 지난 2월 졸업식에 찾아와 **다시** 꽃사슴 6마리를 기증해 모두 16마리가 되었다.

ㄱ. 장학회원들이 이전에도 꽃사슴 6마리를 기증했다. → 서술어와 서술어가 이끄는 동사구 전체가 동일함.

ㄴ. 장학회원들이 이전에도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 꽃사슴을 기증했다. → 서술어와 목적어의 일부분이 동일함.

ㄷ. 장학회원들이 이전에도 (꽃사슴인지는 모르지만 무언가를) 기증했다. → 서술어만 동일함.

(류병래 2018: 77)

(26) 윤기가 애지중지하는 검을 하루종일 닦고 **또** 닦아.

류병래(2018: 77)에 따르면 (25)와 같은 단언은 (ㄱ)-(ㄷ) 중 무엇이 전제되든 발화가 가능하다. 이전에 기증한 사건과 이번에 기증한 사건 간의 구성 요소의 동일성 정도는 각각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에서 기본적으로 사건을 기술하는 동사와 사건의 행동주가 같고 동일한 행동주가 기증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문장은 모두 전체 사건의 반복으로 인식된다. 기증하는 사슴의 양이나 기증하는 대상이 달라도 전체 사건을 양화하여 [반복]을 뜻하는 '다시'가 배분성을 가져 사건 간 일부

32) 동사의 상적인 특성에 따라 배분성의 투영 현상이 달라지는 현상은 전영철(2007)에 보다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 이를 참조할 수 있다.

구성 요소의 동일함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된다.

반면에 '또'가 쓰인 (26)은 윤기가 검을 닦는 사건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서, 마치 닦는 사건들 사이에 시간 간격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 연속성을 띠고 집합성을 나타내게 된다. 화자는 윤기가 하루 종일 정말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않고 검을 닦기만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검을 닦는 사건이 발생한 횟수가 너무 많아, 마치 하루에 그 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짐을 강조하여 발화한 것이다.

이상에서 '다시'와의 비교를 통해 '또'는 하위 사건보다는 주로 전체 사건을 작용역으로 삼아 [반복]을 의미하며 배분적 해석을 나타냄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특성의 '또'는 제한적이지만 몇몇 상태 술어를 수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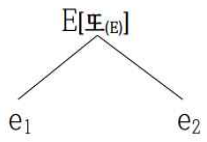
(27) ㄱ. *정순이가 **또** 예쁘다.
ㄴ. *윤기가 **또** 키가 크다.
(28) ㄱ. 너 머리가 **또** 아프냐?
ㄴ. 그러다 **또** 배고프면 잠에 취한 나방을 두드려 깨워 살을 파먹는 …

(27)에서 '또'는 반복의 의미로는 상태 술어인 '예쁘다'나 '키가 크다'와 공기할 수 없다.[33] 그러나 (28)처럼 장면층위 술어인 '아프다'와 '고프다' 등은 수식할 수 있다. 계속 논의해 왔듯이 전체 사건은 원자성을 획득하였을 때 양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일정한 시공간에 존재하며 시작점과 끝점을 비교적 명확하게 가지는 장면층위 술어가 기술하는 사건은 '또'의 양화를 받아 반복 사건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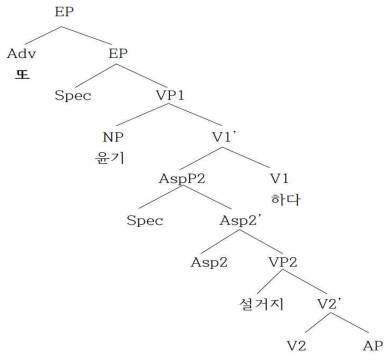
전체 사건에 작용하여 [반복]을 의미하는 '또'의 사건구조와 통사구조를 아래와 같이 표상할 수 있다.

33) 여기서는 '또'가 접속부사가 아닌 반복을 뜻하는 용법으로 쓰인 사례만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또'가 접속부사일 때는 '정순이가 공부를 잘하고 또 예쁘다'처럼 상태 술어와의 공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29) ES:



SS:



4.2. 명제, 사실 층위의 '또'

이 절에서는 '또'가 사건 층위를 넘어 명제와 사실 층위에 작용하여 [양보]와 관련되는 의미를 가지는 현상을 살펴볼 것이다. 사전에 따르면 '또'는 주로 어미 '-(으)면'이나 일정한 뜻을 가진 의문문에서 쓰여 '그럼에도 불구하고'나 '그래도'와 같은 [양보]를 의미한다.

(30) ㄱ. 끈기가 없지만 잘하기는 **또** 잘해요.
ㄴ. 그녀는 키가 작았지만 그 작은 키가 **또** 그렇게 싫지가 않았다.
ㄷ. 누가 **또** 알아? 그 사람이 다시 올지.
ㄹ. 누가 **또** 알겠니? 복권이라도 당첨될지.
ㅁ. 어린애라면 **또** 몰라. 어른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한국어의 대표적인 양보 표현으로는 연결어미 '-아/어도' '-고도', '-더라도', '-을지라도', '-음에도', 조응사 '그렇다'에 '-어도' 등의 연결어미가 통합되어 형성된 '그래도, 그러하더라도, 그런데도' 등의 양보 부사가 있다. '또'가 다른 언어 요소와 어울려 [양보]를 나타내는 예문 (30)은 (31)처럼 연결어미 '-어도'나 양보 부사 '그래도'로 치환될 수 있다.

(31) ㄱ. 끈기가 없지만 잘하기는 **또** 잘해요.

→ 끈기가 없어도 잘하기는 잘해.
→ 끈기가 없어요. 그래도 잘하기는 잘해요.

ㄴ. 그녀는 키가 작았지만 그 작은 키가 **또** 그렇게 싫지가 않았다.
→ 그녀는 키가 작아도 그 작은 키가 그렇게 싫지가 않았다.
→ 그녀는 키가 작다. 그래도 그 작은 키가 그렇게 싫지가 않았다.

ㄷ. (A: 요즘 운이 안 좋은데 왜 복권을 사?)
B: 누가 **또** 알겠니? 복권이라도 당첨될지.
→ 요즘 운이 안 좋아도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어.
→ 요즘 운이 안 좋아. 그래도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어.

ㄹ. (A: 그 사람이 드디어 갔어.)
B: 누가 **또** 알아? 그 사람이 다시 올지.
→ 그 사람이 갔어도 다시 올 수 있어.
→ 그 사람이 갔어. 그래도 다시 올 수 있어.

ㅁ. 어린애라면 **또** 몰라. 어른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 어린애가 아니라 어른인데도 이런 일을 했다.
→ 어린애가 아닌 어른이다. 그래도 이런 일을 했다.

이러한 치환 가능성은 '또'가 양보 의미를 전달하는 발화에 많이 쓰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관련하여 기존 연구 중 일부는 '또'가 양보를 표현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또'에 양태 부사적인 용법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또'가 다른 언어 요소와 공기하여 양보를 표현한다는 것은 결국 '또' 자체만으로는 [양보]를 나타내지 않음을 의미한다. (30ㄱ), (30ㄴ)에서 '또'가 삭제되어도 문장에 의미 훼손이 거의 일어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30ㄷ), (30ㄹ)은 앞의 상황을 상정해야만 전형적인 양보문으로 바꿀 수 있는 특성을 보인다. 한편 (30ㅁ)에서는 '또'가 있는 절이 양보를 나타낸다기보다는 단지 '이런 일'은 어린애가 할 만한 유치한 행동이라는 뜻 정도를

나타낸다. 이때의 '또'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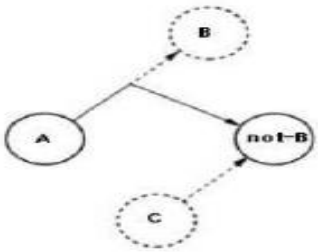
[양보]는 전통문법의 'concessives'를 번역한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내일 비가 와도 소풍을 간다'와 같이 주로 보조사 '도'가 결합한 연결어미 '-어도', '은데도' 등으로 실현된 복문을 양보문이라고 한다. 박재연(2010)을 비롯한 대부분 논의에서 [양보]는 '기대의 부정'이나 '비관여성'으로 파악되며 선행절의 조건하에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반대되는 상황을 나타낼 때 쓰인다고 하였다.

(32) ㄱ. 내일 비가 오면(A) 소풍을 안 갈 것이다(B).
ㄴ. 내일 비가 와도(A) 소풍을 갈 것이다(not-B).

(33) ㄱ. 끈기가 없고(A) 잘하지 않는다(B).
ㄴ. 끈기가 없지만(A) 잘하기는 또 잘한다(not-B).

일반적인 기대는 비가 안 오면 소풍을 가지만 (32ㄴ)처럼 비가 오는(A) 경우라면 소풍을 안 간다는 것이다. 양보문인 (32ㄴ)은 '-어도'를 통해 이러한 기대를 부정하여 선·후행절의 비관여성을 나타낸다. 양보문의 이러한 구조는 Rudolph(1996: 394)에서 제시한 그림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34)



양보가 전제하는 두 가지 연쇄

원래는 A에 의해 B라는 관여적인 기대가 생기고, C에 의해 not-B라는 관여적인 기대가 생성되지만 양보문은 '-어도' 등의 양보 표현을 통해 선행절 A와 후행절 not-B를 연결한다.[34)]

[양보] 의미와 관련해서 '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기에 앞서 양보 표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조사 '도'를 잠시 살펴보자. 보조사 '도'는 한국어의 대표적인 첨가 초점사이다.

(35) ㄱ. 존이 순이에게 빌도 소개해줬다.
ㄴ. M = {빌, 톰, 윤기, ---}

(36) ㄱ. 존이 순이에게 톰을 소개해줬다.
ㄴ. 존이 순이에게 윤기를 소개해줬다.
ㄷ. 존이 순이에게 빌을 소개해줬다.

초점사 혹은 초점 민감사(focus-sensitive)는 대안 집합을 일으키며 이때 초점화되는 요소를 대조초점이라 한다. 영어의 'also, too, even, only', 독일어의 'auch', 그리고 한국어의 '도, 만' 등이 대표적인 초점 민감사로 다루어져 왔다. (35)와 같은 발화에서는 첨가 초점사 '도'로 인해 '빌'이 초점이 되어 (35ㄴ)과 같은 '빌'과 같은 속성을 가진 요소들로 이루어진 대안집합을 일으킨다. 즉, (35ㄱ)과 같은 발화를 하면 보조사 '도'로 인해 존이 순이에게 빌 외에도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는 의미가 같이 전달된다. 또한, 첨가 초점사는 (35ㄴ)처럼 대안집합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36)처럼 초점 요소를 대안 원소로 대체한 대안 명제들도 생성한다.

최규련(2001: 209)에서는 부사 '또'를 '또한, 역시'와 함께 보조사 '도' 외에 영어의 'also, too'에 대응될 수 있는 첨가 초점사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해당 논의에서 '또'가 첨가 초점사로 기능하는 양상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환묵(1987)에서 '또'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또'가 첨가 초점사로 기능한다는 분석을 뒷받침할 수 있다.

(37) 철수가 **또** 왔다.

34) 그림에서 보이듯이 양보에는 A와 not-B의 연결인 직접 양보뿐만 아니라 A와 C의 연결인 '간접적 양보', A와 not-B와 C가 모두 연결되는 '완전 명세 양보'도 있다.

(38) ㄱ. 철수가 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철수가 전에 온 적이 있다.)
ㄴ. 철수가 온 것 외에 한 일이 있다.
ㄷ. 철수 외에 온 사람이 있다. (어제 영희가 오고 오늘 철수도 왔다.)

이환묵(1987)에 따르면 (37)에 대해 (38)의 세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38ㄱ)에서 '또'가 [반복]을 의미하여 '철수가 온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다'라는 전제를 유발한다면 (38ㄴ)에서는 '또'로 인해 '(철수가) 온 사건'이 대조초점이 되고 '온 일 외의 사건'들이 대안집합의 구성 요소가 된다. '온 일 외의 사건'은 '수업을 한다', '쇼핑을 한다' 등 화자가 알고 있는 철수의 행동에 해당한다. (38ㄷ)에서는 '철수'가 대조초점이 된다. 이때 대안집합은 '철수 외의 사람'인 '영희, 민호, 지훈' 등 화자 집에 온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38 ㄴ), (38ㄷ)과 같은 해석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또'에 의해 초점화되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집합이 상정된다는 인식 자체가 '또'를 첨가 초점사로 간주할 수 있음을 뒷받침해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한국어의 전형적인 양보 표현으로는 '-어도' 등의 연결어미와 '그래도' 등의 부사가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첨가 초점사 '도' 때문에 양보 의미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Haspelmath and König(1998: 585)에 따르면 첨가 초점사는 여러 언어에서 양보 표현을 형성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네덜란드어의 'zelfs', 일본어의 'mo', 한국어의 '도' 등이 그 예이다. 제한적이지만 '또'는 '도'처럼 첨가 초점사로 기능한다. 이에 '또'가 양보의 의미를 전달하는 발화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을 '도'와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König and Siemund(2000)에서는 담화 기원적인 관점에서 양보문을 분석하면서 첨가 초점사가 왜 범언어적으로 양보 구문을 형성하는 중요한 방책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담화 기원적으로 보면 [양보]에는 어떤 전제를 일단 인정한 후에, 그와 반대되는 의견을 추가하여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추가해서 무엇을 더 말하겠다'는 양보문의 발화 의도는 무엇을 더 추가하여 말하는 첨가 초점사의 기능과 일치하며 이에 따라 첨가 초점사를 양보 구문에서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39) A: Why are you late for work?
B: My car broke down. (X) (+> I could not get here earlier. (Z))
A: I see (X'), but there is always public transport. (Y) (+> You could have gotten here earlier. (W))

König and Siemund(2000: 357)

(39)에서 화자 A는 'I see'를 통해 B가 지각한 이유를 일단 인정한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but' 절을 통해 지각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방법을 추가하는데, 그 결과 화자 B의 변명을 부정하게 되어 발화 전체에서 [양보]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이처럼 첨가 초점사는 상대방의 의견을 부정하기 위해 그 의견을 일단 인정한 후 반대 관점을 추가로 제시할 때에 사용될 수 있다. 첨가 초점사의 '무엇을 첨가하는 기능'을 통해 반대 의견이 담긴 명제 혹은 화자가 참으로 인정하는 사실 내용이 추가로 전달되며, 이것이 [양보] 의미를 도출한다.

사전에서 제시된 '또'가 [양보]의 의미로 쓰인 예문들을 다시 가져와 살펴보자.

(30) ㄱ. 끈기가 없지만 잘하기는 **또** 잘해요.
ㄴ. 그녀는 키가 작았지만 그 작은 키가 **또** 그렇게 싫지가 않았다.
ㄷ. 누가 **또** 알아? 그 사람이 다시 올지.
ㄹ. 누가 **또** 알겠니? 복권이라도 당첨될지.
ㅁ. 어린애라면 **또** 몰라. 어른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30ㄱ), (30ㄴ)에서 '또'는 기대를 부정하는 후행절에 속하며 이때 '또'가 첨가 초점사로서 'not-B' 부분을 문장에 추가하는 역할을 한다. (30ㄱ)에서 '또'는 끈기가 없는 사람이 가지는 속성들, 가령 일 따위를 잘하지 못한다는 속성 등으로 이루어진 집합에 일 따위를 잘한다는 예외적인 속성을 추가한다. (30ㄷ), (30ㄹ)에서 '또'를 포함한 의문절은 실제로 아는 사람이 누군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관용 표현으로서 후행절과 관련하여 '그 사람이 다시 올 가능성이 있다',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와 같은 예상과 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함을 표현한다. 이때의 '또' 역시 기대와 반대되는 'not-B' 부분을 문장 해석에 추가하는 역할을 한다.

(30ㅁ)은 사정이 약간 다르다. (30ㅁ)에서는 후행 문장만으로도 '어른인데도 이런 일을 했다'라는 양보 의미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또'가 이끄는 문장은 '어린애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뜻만을 표현하고 양보 의미와는 직결되지 않는 듯 보인다.

(40) ㄱ. 어른이다(A). 이런 일을 안 한다(B).
ㄴ. 어린애이다(C). 이런 일을 한다(not-B).

(30ㅁ)에서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40)처럼 풀어쓸 수 있다. 여기서 양보문을 구성하는 부분은 주로 'A+ not-B'이며 (30ㅁ)에서 '또'가 속한 문장의 내용은 'C+B'에 해당하다. 이때 '또'는 양보문 형성에 직접 참여한다기보다는 양보문과 관련되는 다른 참인 명제 즉, 화자가 인정하는 사실을 담화에 추가하는 역할을 한다. 보조사 '도'가 그 자체로는 [양보]를 표현하지 않으면서 양보 표현을 구성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부사 '또'도 그것이 포함된 문장이나 맥락 전체를 통해 [양보]를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또'는 주로 조건을 표현하는 연결어미 '-(으)면', 대조의 연결어미 '-지만'과 함께 쓰여 [양보]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는 [양보]라는 개념이 [대조]나 [조건]과 아주 밀접하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박진호(2012)에서는 '대조 - 사실적 양보 - 양보적 조건 - 조건' 의미를 사슬 구조로 파악하였다. [대조]란 두 명제 사이에 모종의 대립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양보]와 달리 선행절 명제가 후행절 명제에 대해 어떤 기대(expectation)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양보]는 후행절 명제가 선행절 명제로부터 발생하는 기대와 어긋남을 나타낸다. [조건]은 선행절 명제의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나, 선행절 명제가 참임을 상정할 때 그것을 선행조건으로 하여 후행절 명제가 성립함을 나타낸다. [양보적 조건]은 [조건]과 [양보]의 교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선행절 명제의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면서 후행절 명제가 선행절 명제로부터 발생하는 기대와 어긋남을 나타낸다. [양보]를 넓게 정의하면 [양보적 조건]도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다(박진호 2012: 486-488). 이는 각각 아래의 예문으로 보일 수 있다.

(41) ㄱ. 철수는 회사원이나/회사원이지만 영희는 학생이다. (대조)
ㄴ. 내일 비가 오면 소풍을 안 갈 것이다. (조건)
ㄷ. 어제 비가 왔지만/왔는데도/와도 소풍을 갔다. (양보)
ㄹ. 내일 비가 와도/오더라도/올지라도 소풍을 갈 것이다. (양보적 조건)

박진호(2012: 486)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부사 '또'는 명제·사실 층위에 작용할 때 [양보] 의미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 그러나 '또' 자체가 양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또'는 첨가 초점사로서 화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참으로 인정하는 명제 혹은 사실을 담화 맥락에 첨가하는 기능을 하고, 이것이 다른 언어 요소 특히 대조나 조건을 뜻하는 연결어미와 함께 실현됨에 따라 맥락 전체에서 [양보] 의미가 도출되게 된다. 이때 첨가하는 명제나 사실은 (34)에서 제시한 양보와 관련된 명제 연쇄 중에서 not-B, 혹은 C+B 부분인 경우가 많다.

4.3. 화행 층위의 '또'

앞에서 첨가 초점사로서의 '또'가 다른 언어 요소와 어우러져 [양보]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명제·사실 층위에 그치지 않고 '또'가 화행 층위에서도 기능함을 살펴볼 것이다. 이때의 '또'는 명제의 진리치와 무관하며 화자의 감정적 태도를 표현한다.

(42) ㄱ. 이건 **또** 뭐야?
ㄴ. 이건 **또** 누구냐? 처음 보는 녀석인데.
ㄷ. 난 **또** 무슨 일이라고.
ㄹ. 뭘 **또** 사 왔어.

(43) ㄱ. (우는 모습을 보고) **또 또 또**!
ㄴ. 밥은 **또** 무슨 밥, 라면이나 먹자.
ㄷ. 휴가는 **또** 무슨 휴가, 하루 집에서 잠이나 잤으면 좋겠다.

(42)에서 '또'는 구어체로 화자의 놀라움을 나타내고 (42)에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표현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또'의 용법이 앞에서 살펴본 [양보] 의미와 관련되는 '또'의 용법과 모종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4.2절에서 논의하였듯이 담화 기원적으로 볼 때 [양보]는 상대방의 의견을 일단 인정한 후, 상대방과 반대되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부정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부정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또'는 점점 화자의 부정적 감정 자체를 표현하는 용법으로 발전할 수 있다. 화자가 청자를 향해 자신이 어떤 감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이러한 '또'는 화행 층위에서 기능한다.

흔히 어떤 요소가 화자의 태도를 표현한다고 하면 이를 '양태' 범주와 관련시킨다.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부사를 묶어 양태부사로 지칭하는 식이다. 그런데 전형적인 '양태부사'는 '아마, 확실히, 분명히' 등과 같이 화자가 해당 명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부사어들로 문장의 의미 층위로 볼 때 명제 층위에 작용하는 부사들이다.

(44) ㄱ. <u>아마</u> 윤기가 세 시에 집에 도착했을 것 같아.
ㄴ. <u>확실히</u> 윤기가 세 시에 집에 도착했어.
ㄷ. <u>분명히</u> 윤기가 세 시에 집에 도착했어.

화자는 (44ㄱ)에서는 부사 '아마'를 통해 '윤기가 세 시에 집에 도착했다'라는 명제에 대해 확신이 없음을 나타내고, (44ㄴ), (44ㄷ)에서는 '확실히, 분명히'를 통해 '윤기가 세 시에 집에 도착했다'라는 명제가 참임을 확신함을 드러낸다.

이와 달리 (42),(43)의 '또'는 명제가 참인지를 짐작하거나 판단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42ㄱ)은 화자가 친구가 준 선물을 보고 매우 기뻐하는 상황에 할 법한 발화이다. 화자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면서도 '또'를 통해 자신의 놀라움과 기쁨을 전달한다. 한편 (43ㄱ)에서 화자는 상대방의 우는 모습이 못마땅한데, 이는 부사 '또'의 연속적 발화만으로 잘 드러난다.[35]

35) 이는 '감정 양태'가 '양태' 범주에 들어가는지의 문제와 관련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양태

신서인(2014)에서는 Ramat and Ricca(1998)에 따라 한국어 부사를 다기능적으로 분류하였다. 그중에서도 “문장이 기술하는 명제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발화행위 그 자체와 관련되는 것”을 발화행위 부사라고 지칭하였다. 발화행위 부사에는 ‘요컨대, 예컨대’ 등의 발화행위 중심 부사, ‘사실, 솔직히’ 등의 화자 중심 부사, 그리고 ‘제발, 부디’ 등의 청자 중심 부사가 있다. 담화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화자, 청자, 발화행위 등에 대한 메타적 언급이 부사로 실현된다는 것이 해당 부사 부류의 특징이다. 이와 비슷하게 김태인(2019)에서는 화행 부사어를 “화행 층위에서 화자가 발화하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를 표현하는 부사”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따를 때 (42), (43)의 화자의 감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또’는 명제의 참이나 거짓에 초점을 두지 않으며 화행 층위에 작용한다는 점에서 화행 부사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36]

한편, 담화 차원에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기능을 가진 언어 요소들을 담화표지로 간주하기도 한다. 담화표지는 일반적으로 영어 ‘you know’, ‘well’, ‘oh’, ‘anyway’, 한국어 ‘그러니까, 근까, 이제’ 등과 같이 명제의 진리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실제적인 내용을 전달한다기보다 기능어로서 담화 맥락상 응집성을 강화시키는 언어 요소들을 이른다.[37]

는 인식 양태와 의무 양태로 나뉜다. 전자는 명제가 기술하는 내용의 진리성에 대한 화자의 인식적 판단을 나타내고 후자는 명제가 기술하는 행위의 규범성에 대한 화자의 사회적 판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화자의 감정적 태도를 가리키는 감정 양태가 설정되기도 한다. 화자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 요소까지를 양태의 하위 범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감정 양태를 포함한 양태 범주는 체계적인 하위의 의미 영역을 가지지 않고 폭이 매우 넓어서 문법적으로 유의미한지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본고는 화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또’가 양태부사인지 아닌지를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또’의 다기능적인 용법을 제시하고 이러한 다기능적은 양상이 부사가 작용하는 의미 층위와 관련됨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36) 화행 층위에 작용하는 ‘또’는 전형적인 화행 부사와는 차이가 있다. ‘솔직히, 윤기가 세 시에 이미 집에 도착했어’란 발화에서 ‘솔직히’는 화행 부사로 화자가 청자에게 솔직한 태도로 윤기가 세 시에 집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의미이다. 이와 달리 (42),(43)의 ‘또’는 ‘~(어떠)한 태도로 ~을 발화한다’는 방식으로, 즉 ‘솔직히’ 같은 대표적인 화행 부사처럼은 환언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명제의 진리값과 무관하게 놀라움이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특성은 ‘또’가 화행 층위에서 기능함을 잘 보여준다.

37) 담화표지에 관한 본격적 연구는 Schiffrin(1987)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담화표지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이후 Fraser(1988, 1990, 1999), Jucker(1993), Blakemore(1987, 1992, 2002) 등 후속 연구들로 이어져 담화표지라는 용어가 일관되게 사용되었으며 공시적 관점에서 담화표지가 폭넓게 논의되었다. 이외에 Brinton(1996)은 통시적인 시각에서 대부분의 담화표지가 실제 사용에서 다양한 의미를 담당하는 것을 일종의 문법화 과정으로 설명하면서 담화표지 대신 화용표지(pragmatic marker)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장소원 외 2020: 14-49 참조).

담화표지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정의나 범위 설정 등에서 학자마다 여전히 크고 작은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혼란의 원인 중 하나는 담화표지로 간주할 만한 표현들 중에는 통사적으로 부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 즉, 부사 기원의 담화표지가 많다는 것이다. 부사 기원이라는 말은 해당 표현이 통사적으로 부사에 속하나 문법화 과정에서 의미 탈색을 겪었고 담화 차원에서 내용어가 아니라 담화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어로서 사용된다는 의미이다.

(45) ㄱ. 이제 맨 위에 보세요.
ㄴ. 이제~ 그~ 작년에 갔을 때 인제~

(45ㄱ)에서 '이제'는 '지금'과 같이 내용어로 시간부사의 역할을 하지만 (45ㄴ)의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시하는 부사가 아니라 담화에서 담화의 공백을 메우거나 부연설명을 하는 등의 새로운 기능을 획득하여 담화표지가 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장소원 외(2020: 9)에서는 담화표지를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46) 담화표지의 정의:
ㄱ. 넓은 의미의 담화표지: 화자의 발화 의도나 심리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모든 언어적 요소.
ㄴ. 좁은 의미의 담화표지: 넓은 의미의 담화표지 중에서 새로운 담화 기능을 이차적으로 획득한 언어적 요소.

장소원 외(2020: 9)

(46)에 따르면 넓은 의미에서는 해당 요소가 문법화를 겪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화자의 의도와 심리적 태도를 전달하고 담화의 응집성을 위해 작동한다면 모두 담화표지로 부를 수 있다. 이 중에서 문법화를 통해 의미 탈색을 겪어 원래 의미와 달라졌으며 이차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획득하게 된 요소들이 있는데, 이러한 주로 부사 기원인 담화표지들을 좁은 의미에서 담화표지라고 부른다. 따라서 원래 [반복]을 뜻하나 문법화 과정에서 이차적으로 화자의 놀라움이나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을 획득한 '또'는 담화표지로 간주될 수도 있다. 실제로 '또'를 담화표지로 다룬 선

례가 관찰된다.

(47) ㄱ. 구씨: 훨훨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정다운데, 이내 몸은,
은찬모: (눈 흘기며) **또 또 또**. (화자의 부정적 태도)
ㄴ. 오티에서 괜히 얼굴 알려놔 가지구, 내가 **또** 인기짱 끌었지 **또**. 웬 놈의 **또** 소문은 **또** 그렇게 많이 도는지.

심란희(2019: 180, 188)

심란희(2019: 178-190)은 (47)의 '또'를 화자의 태도 표현 기능을 하는 담화표지로 분석 한다. (47ㄱ)에서는 '또'에 의해 '은찬모'가 '구씨'의 행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음이 표현되며 (47ㄴ)에서는 '내'가 인기를 끌었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또'가 담화표지로서 어떤 발화의 내용을 강조하는 기능은 아래 예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48) ㄱ. **또** 애가 성격은 웃긴 게 **또** 성격은 되게 고급스러워 갖구. **또** 내 맘에 잘 안 들구.
ㄴ. 버스가 진짜 추운 거 알지, 완전히. 에어콘 때문에, 그러구 진짜 동태 돼서 내리거든, 게다가 **또** 그 시간대는 **또** 사람이 없잖아 별로.
ㄷ. 되게 꿀꿀해서 피자 먹자 해 가지구 입맛 돌아서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 **또**.
ㄹ. 이십대는 인제 약간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구 있는. 음 <중략> 나이 들면 **또** 다 생활에 **또** 묶여 살게 돼 있어.
ㅁ. 춤은 **또** 못 참지.
ㅂ. A: 네가 밥 먹었잖아.
B: 내가 **또** 훠궈를 좋아해 가지구 ~

'또'에 의해 (48가)에서는 '그 애'의 단점이, (48ㄴ)에서는 버스가 추운 사실이, (48ㄷ)에서는 피자를 좋아한다는 것이, (48ㄹ)에서는 나이가 들면 이십대처럼 살지 못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49ㅁ)은 춤을 좋아하는 사람이 신나는 노래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하는 발화로, 이때 '또'는 춤을 두 번은 못 참는다는 [반복]을 의미하지 않는

다. 단지,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을 강조한다. (48ㅂ)은 B가 밥을 이미 먹었는데 다른 사람이 훠궈를 먹는 것을 보고 같이 먹기 시작한 상황에서의 대화이다. 이때 '또'는 B가 훠궈를 좋아함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외에 '또'는 담화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49)처럼 공백 메우기나 시간 벌기 같은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49) ㄱ. 뭐~ **또** 시간이 **또** 지나고 그러다 보면은 **또** 희석이 되겠지 그런 부분들이.
ㄴ. **또** 항간에 **또** 나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아서 **또** 이렇게 나간 것처럼 돼 가지구 …
ㄷ. 영화가 너무 슬프거나 또 아니면 **또** 그~ 가슴 아프게 하거나 그럴 때만 쓰는 말은 아니죠.
ㄹ. 거기에 **또** 인제 인터넷망과 **또** 결부 지어져서 굉장히 **또** 어떤 말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또**~ 어::~ 뭐 있었드라?
ㅁ. 당연히 포도주류니까 오래 숙성시킬수록 맛이 좋아지고, **또**~ 약간의 그 그:: 뒤끝에 떫고 씁쓰름한 맛이 일품인 그런 술이었어요.

구어는 즉각적이기 때문에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생각하고 정리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한 번에 조리 있게 발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때 발화 중간에 생각이나 말을 다듬는 공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공백 시간을 담화표지로 채우지 않으면 발화의 결속력이 떨어지고 대화가 갑자기 중단된 것처럼 들릴 수 있다. 이러한 담화 공백을 피하고 담화를 연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49)처럼 '또'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담화표지는 일종의 군더더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담화에서 발화의 연속이나 화자의 발언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4.4. 접속부사로서의 '또'

이 절에서는 '또'가 접속부사로 기능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전통적으로 접속부

사는 문장부사의 하나로서 양태부사와 같은 성분부사와는 구별되어 논의되어 왔다. 접속부사에 대한 기존 정의로는 최현배(1971: 585)에서의 “앞에 간 말(대개는 월)을 이어서 그 뒤에 오는 말을 꾸미는 어찌씨”, 남기심·고영근 외(2019: 177)에서의 “앞 문장의 의미를 뒤 문장에 이어주면서 그것을 꾸미는 부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에는 단어를 이어주는 말도 포함됨”, 왕문용·민현식(1993: 192)에서의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들도 궁극적으로 뒷 문장의 서술 용언을 수식함” 등을 들 수 있다.

접속부사는 문장부사의 한 하위 부류로 논의되어 온 만큼 기본적으로 통사적으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요소로 간주된다. 물론 (50)에서 보이듯이 문장뿐만 아니라 성분 간, 단어 간의 접속도 가능하다.

(50) ㄱ. 눈의 망막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한다. **또** TV와 전기담요도 강력한 전자파를 발생하는 가전제품이다.
ㄴ. 그렇게 두꺼운 책이라면 우선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또** 교과 내용을 모두 암기할 수도 없을 것이다.
ㄷ. 제발로 걸을 수 있는데도 권위를 과시할 필요가 있거나, **또** 아랫사람들이 아부 수단으로 부액하기도 했던 것이다.
ㄹ. 그는 변호사이며 **또** 국회의원이다.
ㅁ. 경찰들이 정확하고 **또** 빠르게 단서를 찾았다.
ㅂ. 윤기가 사과, 배, 바나나, **또** 키위를 사 왔다.
ㅅ. 하루 **또** 하루가 흐른다.

(50ㄱ), (50ㄴ)에서 ‘또’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놓여 두 문장을 접속한다. (50ㄷ)-(50ㅁ)에서는 절과 절을, (50ㅁ)-(50ㅅ)에서는 단어를 접속한다. 최현배(1971)에서는 ‘또’가 ‘그뿐 아니라, 더구나, 하물며’와 같이 ‘벌림’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으며, 왕문용·민식(1993)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또’를 [첨가]의 의미를 지닌 접속부사로 판단하였다. 화자가 접속부사 ‘또’로 선행 발화를 한 후에 이에 더함을 표현하는 후행 발화를 추가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Blakemore(1992: 134-145)에서는 담화의 관련성을 논의하면서 청자가 어떤 발화

를 해석할 때 발화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가 서로 관련될 수 있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51) a: It may allow the derivation of a contextual implication.
eg: so, therefore …
b: It may strengthen an existing assumption (by providing better evidence for it).
eg: moreover, besides …
c: It may contradict an existing assumption.
eg: however, neverthless …

Blakemore(1992: 138)

문숙영(2018: 117)에서는 (51)에 따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접속부사로 명시된 한국어 접속부사들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52) ㄱ. 제1부류: 문맥 함축 도출의 연결사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므로, 그리하여, 이리하여, 연즉
ㄴ. 제2부류: (더 좋은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강화와 관련된 연결사
그리고, 하기는, 하기야, 하물며, 연중에
ㄷ. 제3부류: 부정 도입의 연결사
그래도, 그러나, 그런데, 그렇지만, 연이나, 하지만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무엇을 추가한다는 의미로 후행 발화를 도입하는 '또'는 제2부류에 속하는 접속부사가 된다.

그러나 접속부사가 문장과 문장 혹은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텍스트의 응집성을 위한 장치라고 주로 논의되어 온 것과 달리, 아래 예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제로는 접속부사가 선행 발화 없이 문두에 나타나기도 한다.

(53) ㄱ. (부랴부랴 시험공부 하는 아이를 보며) <u>그러니까</u> 공부 좀 미리미리 하랬잖아.

ㄴ. (나가는 아이를 보고 빨래를 하다 말고) 그래서 오늘 못 들어온다고?

ㄷ. (가지 말라고 매달려 우는 아이를 TV에서 보면서) 그래도 엄마라고. 으이그.

문숙영(2018: 124)

문숙영(2018)에서는 접속부사를 관련성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에 따르면 접속부사는 텍스트의 응집성을 위한 담화 연결 장치라기보다는 추론의 유형을 안내하는 절차적 정보를 부호화한 형식에 해당한다. 접속부사가 연결하는 대상에는 선행 문장/담화의 명제적 내용 외에도, 함의, 함축, 전제 등이 있으며 때로는 연결 대상이 문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53)에서의 각 접속부사는 모두 선행 발화 없이 문두에 나타난다. 이때 접속부사가 현재의 발화상황에서 연결할 만한 발화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연결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53ㄱ)의 '그러니까'는 과거에 '시험 때면 힘들 거야' 라든가 '시험공부를 몰아서 하면 힘들어' 등과 같은 발화를 할 만한 상황이 있었음을 내포한다. (53ㄴ)의 '그래서'는 같은 날이든 며칠 전이든 아이가 오늘 집에 안 들어올 것을 말하는 발화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53ㄷ)에서는 눈 앞의 TV 장면이 '그래도'의 선행 발화의 역할을 함을 볼 수 있다. 요컨대 이러한 접속부사들은 '암시적 선행 발화'를 가진 접속부사로서 쓰이고 있는 셈이다. 문숙영(2018: 125)에서는 이를 접속부사가 가지는 절차적 의미의 효력으로 본다.

이와 비슷하게 접속부사가 선행 발화 없이 선행 상황과 연결될 수 있음에 주목한 논의로 김현아(2016)이 있다. 김현아(2016)은 접속부사를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었다. 일차적 접속부사는 (54)처럼 명제와 명제를 잇는 기능을 하고 이차적 접속부사는 (55)처럼 명제와 명제를 잇기도 하지만 담화적 상황과 명제를 연결하기도 한다.

(54) ㄱ. 이 또한 웅장한 절규이었습니다. 아울러 위대한 선언이었고요.

ㄴ. 옳은 말이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의 전부인 듯이 본다면 잘못이다.

ㄷ. 움직이는 모양이 아니요 움직이게 하는 자다. 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움직이는 그이다.

김현아(2016: 54)

(55) ㄱ. 그러나 이 싸움 때문에 남편까지 포기하는 여자들도 있다. 차라리 혼자 살지 언정 어린애와 살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ㄱ′. 차라리 집에 가서 편하게 자렴.

ㄴ. 인체의 아름다움에 매혹되는 걸 탓하진 않겠네. 어차피 그건 영혼의 성장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단계니까.

ㄴ′. 어차피 남순이는 학원 가느라 오늘 못 온대.

김현아(2016: 57-58)

해당 논의에서는 일차적 접속부사들의 의미를 '순차, 역접, 이접, 조건, 원인 등'으로 제시한다. (54ㄱ)에서 '아울러'는 순접의 의미를, (54ㄴ)에서 '하지만'은 역접의 의미를, (52ㄷ)에서 '혹은'은 이접의 의미를 통해 선후 명제를 연결한다. 이와 달리 (55)의 이차적 접속부사들은 (55ㄱ), (55ㄴ)처럼 두 명제를 연결할 수도 있지만 (55ㄱ′), (55ㄴ′)처럼 선행 명제 없이 선행 상황과 명제를 접속할 수도 있다. (55ㄱ′)은 화자가 책상에 엎드려 졸고 있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로서 선행 발화 없이도 '차라리'를 통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대해 집에 가서 자라는 권고를 표현한다. (55ㄴ′)은 화자가 남순이를 위해 밥을 따로 남겨주려는 사람에게 하는 말로, 이때도 선행 명제 없이 '어차피'만으로 발화를 시작할 수 있다.

한송화(2016)에서도 접속부사에 관한 쟁점을 논의하면서 접속부사가 선·후행 담화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선행 문장의 함의를 후행 문장과 연결하기도 함을 지적하였다.

(56) 그런데 '트루 라이즈'는 보디빌딩으로 단련된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여성운동의 결과로 비롯된 긍정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유행에서 나온 일시적인 경향이라는 견해에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헬렌을 연기하는 제이미 리 커티스의 이미지는 리플리의 시고니 위버와 사라 코너의 린다 해밀턴의 이미지와 비슷하고 제임스 카메론의 액션영화의 여주인공이라는 사실도 일치한다. 그러나 헬렌은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야한 옷차림으로 드러난 신체를 통해서 스키너와 함께 눈요깃거리를 제공하고, …

한송화(2016: 227)

(56)에서 ‘그러나’는 선행 문장의 함의와 후행 문장을 연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루라이즈의 여주인공 헬렌은 시고니 위버와 같은 여주인공과 이미지가 비슷하다’라는 문장의 함의, 즉 ‘헬렌은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성상이다’라는 함의와 이와 대조적인 내용이 담긴 후행 문장 ‘헬렌은 강인한 여성상이 아니라 여성을 눈요깃거리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를 ‘그러나’가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접속부사가 통사적으로 문장과 문장 혹은 단어와 단어를 접속할 뿐 아니라 선행 발화 없이 문두에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의미적으로는 접속부사가 명제와 명제를 연결하기도 하지만 명제 내용뿐 아니라 문장의 함의 등을 접속하기도 하고 선행 명제 없이 후행 명제를 선행 상황과 접속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로 연결된다. 이에 따르면 접속부사가 무엇을 접속하는지를 하나로 고정시키지 못하는 학계의 상황은 접속부사 본연의 특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처럼 보인다.

본고의 목적은 접속부사 자체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데 있지 않다. 본고는 단지 접속부사로서의 ‘또’가 다층위적인 접속 기능을 보임을 적절히 관찰하고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접속부사는 통사적으로 다양한 언어 단위를 연결하며 의미적으로도 명제 내용뿐 아니라 함의, 함축, 전제 등을 다양하게 접속할 수 있다. 이는 접속부사가 상위언어적으로 화자의 발화 논리를 제시하는 언어표현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문장의 의미 층위를 하위 사건, 사건, 명제, 사실, 화행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부사가 이중 어떤 의미 층위에 작용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을 논의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 계층이 모두 한 문장에 의해 표현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장은 발화의 기본 언어 형식으로서 사건, 명제, 화행 등 다양한 의미 층위를 나타낼 수 있다. 물론 접속부사는 ‘접속’이란 기능 때문에 기본적으로 접속되는 두 요소가 있어야 하며 이에 한 문장의 내부 층위를 넘는 요소이다. 다시 말하면, 접속부사는 한 문장에 국한되지 않고 상위언어적으로 발화 단위 간의 논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표현하므로 한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 명제, 화행 등의 층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접속부사가 통사적으로든 의미적으로든 다양한 대상을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설명되었다. 상위언어적인 지위를 가진 접속부사는 두 발화 단위를 접

속할 수도 있고 선행 상황과 후행 발화를 접속할 수도 있다. 두 발화 단위가 접속될 때의 '재료'는 통사적으로는 문장뿐 아니라 절 혹은 단어일 수도 있으며 의미적으로는 주로 두 명제[38]를 연결하지만 문장이 나타나는 함의, 함축, 전제 등을 접속하기도 한다. 또한, 상위언어적인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후행 발화를 선행 상황에 결속하기도 하는데 이때의 후행 발화 역시 통사적으로 또 의미적으로 다양한 지위를 취할 수 있다.

사건 층위에서 [반복]을 의미하는 '또'는 (57)처럼 경계성이 모호한 개체층위 술어나 상태 술어를 수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접속부사로 기능하는 '또'는 (58)처럼 이러한 술어들과 얼마든지 공기할 수 있다. 접속부사가 접속하는 요소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57) ㄱ. *정순이가 **또** 예쁘다/똑똑하다/키가 작다.
ㄴ. *민호가 정순이를 **또** 사랑한다.
ㄷ. *송탄은 **또** 평택에 속한다.

(58) ㄱ. 정순이가 성격은 좋고 **또** 예쁘다/똑똑하다/키가 작다.
ㄴ. 민호가 지민이를 사랑하고 **또** 정순이를 사랑한다.
ㄷ. 송북은 평택에 속하고, 송탄은 **또** 평택에 속한다.

(57)에서 '예쁘다', '사랑하다', '속하다' 등의 상태 술어는 지속적인 상태 속성을 기

38) 김태인(2019)에 따르면 화행의 재료도 명제라고 한다.
명제: 단우가 세 시에 학교에 간다.
ㄱ. 단언: 단우가 세 시에 학교에 간다.
ㄴ. 요청: 단우가 세 시에 학교에 가줄래?
ㄷ. 명령: 단우가 세 시에 학교에 가.
ㄹ. 경고: 단우가 세 시에 학교에 가면 안 된다.
"동일한 명제를 가지고 단언, 요청, 명령, 경고 등의 화행이 가능하다. 이를 Searle(1969: 62-64)에서는 명제 내용 규칙(propositional content rule)이라고 할 것을 제안한다. 가령 약속이라고 하면 약속의 내용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화자는 미래에 자신이 할 행위에 관하여 약속을 하는데, 그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명제를 통하여 나타내는 것이다"(김태인 2019: 87-88). '사실'도 참이 된 명제인 만큼 그 '재료'가 명제이다. 이에 김현아(2016)와 같은 일부 기존 연구에서는 접속부사가 기본적으로 명제를 잇는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술하기에 [반복]을 의미하는 '또'의 양화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한 번 더 예쁘다'라는 말이 이상한 것처럼 상태에 대한 양화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반면에 (58)에서의 '또'의 사용은 매우 자연스럽다. 접속부사로서의 '또'는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고 단지 선후 발화를 접속해 주기 때문이다. 가령 (58ㄱ)은 '정순이가 성격이 좋은 데다가 예쁘기도 하다'라는 뜻을 표현한다.

4.5. 요약

본 장에서는 부사 '또'와 관련한 언어 현상들을 살펴보았다.

'또'는 전체 사건에 작용하여 EP 범주에 부가될 때 [반복]을 의미한다. '다시'와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또'는 결과상태에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복원]은 의미할 수 없고 배분적이라는 점에서 중단된 과정을 이어주는 결속성이 없어 [계속]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또'는 원자성을 가진 사건의 반복적 발생을 뜻하거나 배분성을 바탕으로 경계성이 모호한 사건에 원자성을 부여한다.

'또'는 사건 층위에서 벗어나 명제·사실 층위에서 작동하면 다른 언어 요소와 어울려 [양보]를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또'는 보조사 '도'처럼 첨가 초점사로서 기능한다. 양보 구조의 문장 의미에 주로 기대와 반대되는 명제 혹은 화자가 참으로 인정한 사실을 추가한다. 화행 층위의 '또'는 화자의 놀라움이나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담화표지로 쓰여 강조나 공백 메우기, 시간 벌기 등의 담화적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 외에 상위언어적인 접속부사로서의 '또'는 선·후행 발화를 연결할 뿐 아니라 후행 발화를 선행 상황에 추가하기도 한다. 발화가 문장의 형식을 빌려 명제 내용, 함축, 함의 등의 다양한 내용들을 나타내기에 접속부사에 의해 접속되는 것은 하나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본 장의 관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또'는 주로 사건 이상 층위에 작용한다는 점에서 주로 사건 이하의 층위에 작용하는 '다시'와 구분된다.

5. ‘또다시’ ‘다시 또’ ‘다시는’ ‘또는’에 관한 문제

본 장에서는 앞선 논의의 결과를 ‘다시’, ‘또’ 관련 부사들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또다시’와 ‘다시 또’는 모두 ‘다시’와 ‘또’, 두 부사의 연쇄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또다시’가 복합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것과 달리 ‘다시 또’는 그렇지 못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부사가 작용하는 의미 층위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보조사 ‘는’의 결합으로 형성된 ‘다시는’과 ‘또는’을 비교하면서 결국 이들의 차이 역시 근본적으로 ‘다시’와 ‘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논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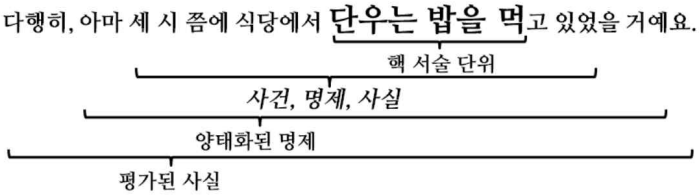
5.1 ‘또다시’와 ‘다시 또’

‘또다시’가 복합어로 사전에 등재된 것과 달리 ‘다시 또’는 사용되기는 하지만 한 단어로 인정되지는 못하였으며 사용 빈도 또한 그리 높지 않다. 이는 ‘다시’와 ‘또’가 작용하는 의미 층위가 다르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다시’는 하위 사건, 특히 결과상태를 작용역으로 선호하며 [복원] 의미를 나타낸다. 복합 사건구조를 가지는 술어나 상태성이 강한 술어와 공기하여 전체 사건에 작용할 때에도 기본적으로는 [반복]을 의미하지만 [복원] 해석도 부가적으로 가진다. 비록 ‘다시’가 사건 내부를 넘어 [그런 다음에]의 의미로서 사건과 사건을 연결하거나 텍스트적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용법은 문법화 과정상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기능이다. ‘다시’의 주된 작용역은 여전히 주로 사건 및 사건 이하의 의미 층위이다. 이와 달리 ‘또’는 전체 사건 및 그 이상의 층위인 명제, 사실, 화행에 주로 작용하며 상위언어적인 접속부사로도 빈번히 사용된다. ‘또’의 작용 층위가 대부분 ‘다시’의 작용 층위에 비해 높이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3, 4장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문장 계층 구조를 바탕으로 볼 때, ‘다시’는 주로 사건 및 사건 이하 층위를, ‘또’는 주로 사건 및 사건 이상의 층위를 작용역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에서는 더 높은 층위에 관여하는 언어 요소들이 문장의 더 바깥쪽에 위치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1) 다행히, 아마 세 시쯤에 식당에서 단우는 밥을 먹고 있었을 거예요.



김태인(2019: 91)

김태인(2019: 119-146)에 따르면 문장의 구조는 핵심적인 부분에서 바깥 부분으로 갈수록 객관에서 주관으로 나아가는 강한 경향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어에서 선문말어미는 그 의미가 객관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주관적인 것으로 가는 순서로 문장에 달라붙고, 부사어는 주관적인 것부터 객관적인 것의 순서로 앞에서부터 줄을 서는 양상을 보인다. (1)은 '세 시 쯤에 식당에서 단우가 밥을 먹고 있었다'라는 사건을 기술한다. 사건의 시간적 속성을 기술하는 시제소가 술어 뒤에 바로 결합되며 마찬가지로 사건의 시간을 명시하는 시간 부사어 '세 시 쯤에'가 여러 부사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즉 술어 가까이에 위치한다. 이러한 사건은 개념화되어 명제로 포섭되는데, 거기에 '아마'라는 양태 부사어와 '-을 것이-'라는 우언적 구성이 붙음으로써 '아마 세 시 쯤에 식당에서 단우는 밥을 먹고 있었을 것이-'라는 양태화된 명제가 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세 시쯤에 식당에서 단우가 밥을 먹고 있었다'라는 명제가 화자에게 참인 명제, 곧 사실이 되면 화자는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문장의 가장 맨 앞에 주어진 평가 부사 '다행히'는 앞선 부사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층위인 사실 층위에 작용하는 부사이다.

이를 바탕으로 '또다시'와 '다시 또'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또'는 문장에서 '다시'보다 높은 의미 층위에 작용한다. 따라서 두 부사가 연쇄될 때에는 '또'가 '다시'보다 앞에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와 달리 '다시'는 '또'보다 낮은 의미 층위에 작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시 또'의 연쇄는 빈번하지 않을 것

이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연쇄가 합성어를 이루기도 쉽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두 부사의 통시적인 발달 양상과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오규환(2012)에 따르면 '또'는 이미 15세기부터 주로 문장부사로 기능하였다고 한다. '또한'의 출현으로 문장부사로서의 기능부담량이 적어지고 성분부사로의 사용 빈도가 점점 높아지기는 하였지만 말이다.[39] 문장부사는 문장 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 실현을 보이나, 대부분 경우에는 문두에 위치한다. 통시적 자료를 살펴보아도 주로 성분부사로 기능하는 '다시'는 문장의 안쪽에, 예전부터 문장부사로 기능해 온 '또'는 바깥쪽에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에서는 '또다시'를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2) ㄱ. 거듭하여 다시.
ㄴ. '다시'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2ㄱ)에서는 '또다시'를 여전히 [반복] 의미를 유지하는 것으로, (2ㄴ)에서는 그 화용적인 기능을 부각시켜 '다시'의 강조형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와 '다시'가 모두 전체 사건에 작용하여 [반복]을 나타내므로 두 부사의 복합형인 '또다시'가 반복을 나타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2ㄴ)에서와 같이 '또다시'를 단지 '다시'의 강조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기술이라고 생각된다. 3장에서 '다시'가 기본적으로 [복원], [계속], [반복], [그런 다음에]의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짐을 살펴보았는데, '또다시'는 이들 전부가 아니라 이 중 일부의 의미만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에는 화행 층위에 작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강조하는 기능도 있다. 그렇기에 '또다시'를 화행 층위의 '또'가 '다시'를 수식하는 형상이라고 분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래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또다시'와 '다시' 사이에는 단순히 강조되는가의 여부 이상의 다른 의미 차이가 존재한다.

(3) ㄱ. 윤기가 창문을 **다시** 닫았다.

39) 더 자세한 통계 자료는 오규환(2012: 210-211)을 참조할 수 있다.

ㄴ. 윤기가 창문을 **또다시** 닫았다.

(3ㄱ)에 대해서는 3장에서 분석하였듯이, [반복]과 [복원]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에 (3ㄴ)은 [반복] 해석, 즉 '윤기가 창문을 닫는 행동을 두 번 했다'는 해석만 가능하고 행위 대상의 상태가 원상태로 회복되었다는 복원해석은 불가능하다. '또다시'는 '다시'와 달리 결과상태를 작용역으로 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4) ㄱ. 윤기가 남은 밥을 **다시** 먹는다.
ㄴ. ?윤기가 남은 밥을 **또다시** 먹는다.

윤기가 다 못 먹은 밥을 계속해서 먹는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4ㄱ)을 발화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즉, 우리는 중단된 과정의 이어감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다시'의 사용을 선호하지는 않는다. '또다시'는 '다시'처럼 집합적으로 결속성을 가지거나 과정을 작용역으로 취하지는 못한다.[40]

(5) ㄱ. 저번에 여기서 넘어졌는데 이번에 **다시** 여기 넘어졌네.
ㄴ. 저번에 여기서 넘어졌는데 이번에 **또다시** 여기 넘어졌네.

(5)에서는 '다시'와 '또다시'가 모두 [반복]을 의미한다. 단, '또다시'는 동일한 사건이 한 번 더 발생했다는 것을 '다시'보다 더욱 강조하는 듯하다. 이처럼 우리는 전체 사건에 작용하여 [반복]을 표현하는 경우에 한해, '또다시'를 '다시'의 강조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3)-(5)의 비교에서 '또다시'는 '다시'와 달리 하위 사건보다는 주로 전체 사건에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다시'의 이러한 사용 양상은 '또'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40) (4)의 두 문장에 대한 직관 조사에서 사람에 따라 (4ㄴ)이 (4ㄱ)보다 윤기가 한 끼의 밥을 먹는 과정 중에 두 번 멈췄고, 두 번 계속 먹는다는 뜻을 더 선명하게 전달한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4ㄴ)을 (4ㄱ)과 같은 [계속]의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또다시'의 경우에는 '다시'에서보다 중단된 사건의 시간 간격이 더 긴 것 같다는 직관도 관찰되었다. 이는 '또다시'가 과정에 작용한다기보다는 [반복]을 나타내어 전체 사건을 양화한다는 직관의 반영인 것으로 보인다.

듯하다. ‘또’가 기본적으로 하위 사건에 작용하지 않는 특징이 ‘다시’와 결합하여 형성된 복합어 ‘또다시’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다.

세종 21세기 말뭉치에서 ‘또다시’와 ‘다시 또’를 추출하면 각각 2065개, 167개의 토큰이 확인된다. 이 중 ‘다시 또’가 쓰인 예문들에 주목해 보면, 이들이 대부분의 경우, (6)처럼 [반복]을 의미하며 ‘또다시’로 치환될 수 있음을 보게 된다.

(6) ㄱ. 그리고 제가 제 평생에 **다시 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ㄴ. 믿지 않는다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극선극악한 경우를 빼놓고 **다시 또**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ㄷ. 이십여 시간 비행기를 타는 고통은 좌선공부보다 더 힘들었다. 그러나 **다시 또** 한 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타고, 버지니아 비치에 도착했다.

물론 ‘또다시’보다 ‘다시 또’의 사용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다.

(7) ㄱ. 그러면 **다시 또**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ㄴ.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고 그래서 **다시 또** 다른 병원을 향하여 발길을 돌려야만 했고 …

(7ㄱ)은 화자가 청자로부터 일련의 질문들을 받은 후에, 이제 자신이 상대방에게 질문할 차례라고 생각하였을 때에 할 법한 발화이다. 이때 ‘또’에는 ‘제가’에 초점을 부여함으로써 ‘질문하는 사람이 이제 당신이 아니라 저’라는 전환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7ㄴ)에서는 ‘또 다른 N’의 결합이 ‘다시 다른 N’보다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다시 또’가 사용된다. (7ㄱ)에서는 ‘또’를 통해 질문하는 주체의 바꿈이 강조되고 (7ㄴ)에서는 ‘또’가 변화를 뜻하는 ‘다르다’와 잘 어울리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는 3장에서 ‘엄마가 설거지를 또 했다’라는 발화를 통해 논의한 ‘또’의 특성과 일맥상통한다. ‘또’는 지금의 ‘설거지’가 전과는 다른 식기들에 대한 다른 설거지임을 뜻하는 경향이 강하다.

5.2 ‘다시는’과 ‘또는’

‘다시’와 ‘또’는 보조사 ‘는’과 결합하여 각각 부정극어 ‘다시는’과 배제적인 선택을 의미하는 접속부사 ‘또는’을 형성한다. 이 절에서 이 두 부사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먼저 부정극어인 ‘다시는’을 살펴보자. ‘다시는’은 다른 부정극어들과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부정 표현과 공기되어야 한다.

(8) ㄱ.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ㄴ. 이제 중요한 것은 **다시는** 종교를 빙자한 사회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점이다.
ㄷ.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테니 샌님 한 번만 용서하십시오.
ㄹ. 이제 **다시는** 못 가십니다.

(8′) ㄱ.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되었다.
ㄴ. *이제 중요한 것은 **다시는** 종교를 빙자한 사회 혼란이 있다는 점이다.
ㄷ.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테니 샌님 더 조심하십시오.
ㄹ. *이제 **다시는** 가십니다.

(8)에서 부정극성을 지닌 ‘다시는’은 ‘않다, 못하다, 없다’ 등의 부정소와 호응하여, 같은 일이 한 번 더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화자의 태도를 표현한다. 즉, ‘다시는’은 좋지 않은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문장에서 종종 쓰인다. 반면에 (8′)처럼 ‘다시는’이 긍정문에서 쓰이면 문장은 비문이 된다.

‘다시는’이 부정극성을 지니게 된 이유는 보조사 ‘는’의 대조적 의미에 있다. 보조사 ‘은/는’은 흔히 화제표지나 대조표지로서 논의되어 왔는데, ‘은/는’의 대조적 기능을 아래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 Q: (철수나 영희가 오기로 한 상황에서) 누가 왔니?
A2: 철수는 왔어. 그런데 영희는 안 왔어.
(10) Q: (민수가 철수나 영희를 만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민수가 누굴 만났니?

A2: 철수는 만났어. 그런데 영희는 안 만났어.

전영철(2019: 107)

대조란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관심 대상들을 관찰하여 그들 사이의 차이를 포착하는 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조의 의미는 다음의 두 단계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관찰의 대상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담화 상에 존재한다. 둘째, 어떤 속성에 대해 이 집합의 일부 구성원은 이 속성을 가지는 반면에 나머지는 그 속성을 가지지 못하거나 그 속성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한다”(전영철 2019: 103). (9)를 예로 들자면 담화 상에는 ‘철수와 영희’로 이루어진 집합이 있는데 ‘는’을 통해 이 집합의 구성원 중에서 ‘철수’는 ‘왔다’라는 속성을 가지나 다른 구성원인 ‘영희’는 그렇지 못하다는 대조가 나타나고 있다.

(11) ㄱ. 철수가 사과는 먹는다.

→ 철수가 (담화에서 언급된 다른) 과일을 먹지 않는다.

ㄴ. 철수가 사과는 먹지 않는다.

→ 철수가 다른 (담화에서 언급된 다른) 과일을 먹는다.

‘는’의 대조적 기능으로 인해 (11ㄱ)처럼 ‘철수가 사과는 먹는다’라는 발화로부터 ‘철수가 다른 과일을 먹지 않는다’라는 함축이 도출될 수 있다. 반면에 ‘철수가 사과는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과와 집합을 이루는 다른 과일들은 ‘철수가 그것을 먹지 않는다’라는 속성을 갖지 않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문장에서 ‘철수가 사과 외의 다른 과일을 먹는다’란 함축이 생성된다. 즉, 대조표지 ‘는’을 통하면 단언이 긍정이라면 함축이 부정으로, 단언이 부정이라면 함축이 긍정으로 드러나게 된다.

(12) 철수가 다시 마을로 갔다.

전제1: 철수가 과거에 마을에 있었다. [복원]

전제2: 철수가 마을로 간 적이 있다. [반복]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12)의 발화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전제를 유발할 수 있다. ‘다시’가 [복원]을 의미하면 철수는 이번에 태어난 마을을 처음 떠난 것이고 따라서 돌아가는 행위도 처음 해 보는 것이다. 이때에는 ‘철수가 과거에 마을에 있었다’는 전제가 유발된다. 반면 ‘다시’가 [반복]을 뜻할 때에는 ‘철수가 과거에 마을에 간 적이 있다’가 전제된다.

그러면 단언이 긍정적이면 함축은 부정적이 되는 대조표지 ‘는’이 전제를 유발하는 ‘다시’와 결합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13) 철수가 **다시는** 마을에 갔다.
→ [철수가 과거에 마을에 있었다]란 전제를 부정한다.
→ [철수가 마을에 간 적이 있다]란 전제를 부정한다.

(13) 같은 긍정문에서 ‘다시는’이 수용되려면 긍정적인 단언과 두 가지 전제의 부정 의미가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11)에서는 ‘철수가 사과를 먹는다’는 명제와 ‘철수가 사과 외의 다른 과일을 먹지 않는다’는 명제가 모두 참이 되어 공존한다. 마찬가지로 (13)에서도 단언된 의미와 두 가지 전제의 부정 의미가 동시에 성립되어야 한다. ‘철수가 과거에 마을에 있었다’란 전제를 부정하면 철수가 과거에 마을에 있어 본 적이 없다는 의미가 도출되며 ‘철수가 마을에 간 적이 있다’란 전제를 부정하면 철수가 마을에 간 적이 없다는 의미가 도출된다. 즉, ‘철수가 다시는 마을에 갔다’라는 발화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철수가 마을에 간 적이 없다’, ‘철수가 과거에 마을에 있었던 적이 없다’라는 명제도 모두 참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것이 완전히 모순적이라는 것이다.[41]

반면에 ‘다시는’이 부정문에 나타나면 이러한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14) 철수가 **다시** 마을로 가지 않았다.
ㄱ. (이번에 가지 않았지만) 철수가 과거에 마을에 간 적이 있다.
ㄴ. 철수가 마을로 안 간 적이 있다.

41) ‘전제’와 ‘함축’은 차이가 있지만 단언에서 도출되는 명제라는 점에서는 같은 속성을 가지므로 여기서는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겠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영향권으로 인해 (14)는 중의적 해석을 가진다. ‘다시’의 영향권이 부정소보다 좁으면 (14ㄱ)의 해석을, 부정소의 영향권이 ‘다시’의 영향권보다 좁으면 (14ㄴ)의 해석을 가진다. 이때 ‘는’이 부착되면 단언이 부정명제이기 때문에 함축은 긍정명제여야 한다.

(15) 철수가 **다시는** 마을로 가지 않았다.
ㄱ. (이번에는 가지 않았지만) 철수가 과거에 마을에 간 적이 있다.
ㄴ. 철수가 마을로 가지 않은 적이 있다.

(15)처럼 ‘다시는’이 부정문에 나타나면 부정문의 전제로는 모두 긍정적 의미가 표현되어, 결과적으로 단언과 전제가 모두 참으로 성립될 수 있다.

정리하면 대조표지 ‘는’이 단언과 함축의 극성을 반대로 유도하는 특징 때문에 ‘다시는’이 긍정문에 쓰이면 ‘다시’로 유발된 전제가 모두 부정되어 단언과 전제가 함께 참된 명제로 성립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와 달리 ‘다시는’이 부정문에 사용되면 유발된 전제 자체는 긍정이 되기 때문에 단언과 전제의 극성이 반대되면서도 모든 명제가 참으로 성립될 수 있다. 이에 ‘다시는’은 긍정문에서의 사용은 제한되지만 부정문에서는 자연스러운 사용이 가능하다.

이어서 ‘또’가 대조표지 ‘는’과 결합하여 형성하는 부사 ‘또는’을 살펴보자. 사전에서는 ‘또는’을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의미로 기술하고 있다. ‘또는’은 (16ㄱ)-(16ㄷ)처럼 접속부사로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기도 하고 (16ㄹ)처럼 절과 절을 접속하기도 한다.

(16) ㄱ. 월요일 **또는** 수요일.
ㄴ. 집에 있든지 **또는** 시장에 가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ㄷ. 특히 세계에는 전기와 후기 산업사회, **또는** 이 사이에 속하는 많은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내다볼 수 없다.
ㄹ. 집에 있든지 **또는** 시장에 가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김현주(2008)에서는 부사 ‘또는’의 의미를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또는’은 역사적으로 일본어의 대역어로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 의미는 [거기에 더해] >

[그렇지 않더라도] > [그렇지 않으면]으로 발전해 왔다고 한다.

본고는 '또는'의 [거기에 더해]라는 의미는 [첨가]를 의미하는 접속부사 '또'의 의미와 비슷한 것으로, [그렇지 않더라도]와 [그렇지 않으면]에서 나타나는 배타적인 의미는 대조표지 '는' 때문인 것으로 본다. 보조사 '는'은 대조를 의미할 때, 관찰 대상 중에 일부가 어떤 속성을 가진다면 다른 구성원은 그 속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배타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의미를 '선행하는 어떤 것 외에 선택될 수 있는 다른 것이 더 있다'로 풀어 생각하면, 이때 '더 있다'라는 뜻은 [첨가]를 의미하는 '또'로부터, '그 외에' 같은 배타적인 뜻은 대안 집합 안의 다른 구성원을 배제하는 '는'으로부터 이어받았다고 설명할 수 있어 보인다.

이상에서 '다시는'과 '또는'이라는 두 부사가 각각 [반복]을 의미하는 '다시'와 [첨가]를 의미하는 접속부사 '또'에 대조표지 '는'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임을 논의하였다. 전자는 부정극어로, 후자는 배타적인 선택을 의미하는 접속부사로 기능한다. 즉, '는'과 결합한 복합어'다시는'과 '또는'에도 어근인 '다시'와 '또'가 선호하는 층위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5.3. 요약

본 장에서는 '다시'와 '또'에 대한 분석을 복합어 '또다시'와 부사 연쇄 구성인 '다시 또', 그리고 부정극어 '다시는'과 배타적 선택을 의미하는 '또는'에 적용해 보았다.

'또다시'가 복합어로 굳어진 이유는 '또'와 '다시'가 작용하는 계층이 다르다는 점을 통해 설명되었다. 앞선 3장과 4장의 분석에 따르면 '또'는 주로 사건 및 사건 이상의 층위에 작용하고 '다시'는 주로 사건 및 사건 이하 층위에 작용하기 때문에 더 높은 층위에 작용하는 요소가 문장의 더 바깥쪽에 위치하는 일반적 원리에 따를 때 '또' + '다시'의 발화 순서가 가장 자연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더 낮은 층위에 작용하는 '다시'가 '또' 앞에 나오는 연쇄인 '다시 또'는 일반적인 규칙에 어긋나며 그 사용도 제한적이다.

그리고 '다시는'의 부정극성과 '또는'의 배타적 의미는 모두 대조표지 '는'과 관련된

다. ‘다시는’은 전체 사건에 작용하여 [반복]을 의미하는 ‘다시’와 대조표지 ‘는’의 결합으로 생성된 것으로, ‘또는’은 상위언어적인 접속부사로 기능하는 ‘또’와 대조표지 ‘는’의 결합으로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와 ‘또’가 작용하는 의미 층위에서 서로 다르다는 특징은 그들과 관련된 부사어들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결론

본고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높은 빈도로 사용되나 부사에 대한 논의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두 부사 ‘다시’와 ‘또’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시’와 ‘또’는 반복표현으로 동일시되곤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복] 외에도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며 두 부사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도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중의성과 의미적 차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우선, 부사의 다의미적, 다기능적 사용은 부사가 연산자로서 문장의 다양한 의미 층위를 그 논항으로 취할 수 있다는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다시’와 ‘또’의 각 의미·기능에 대응되는 작용 계층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다.

(1) ‘다시’:

ㄱ. [복원]을 의미하는 ‘다시’는 하위 사건인 결과상태를 작용역으로 삼는다.

ㄴ. [계속]을 의미하는 ‘다시’는 하위 사건인 과정을 작용역으로 삼는다.

ㄷ. [반복]을 의미하는 ‘다시’는 전체 사건을 작용역으로 삼는다.

(2) ‘또’:

ㄱ. [반복]을 의미하는 ‘또’는 전체 사건에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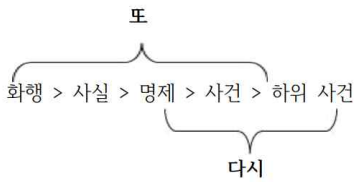
ㄴ. [양보]와 관련되는 ‘또’는 명제·사실에 작용한다.

ㄷ. [화자의 감정 표현]과 관련된 ‘또’는 화행 층위에 작용한다.

한 문장이 의미적으로 어떤 층위의 개체를 지시하는가에 따라 부사도 각기 다른 의미와 기능을 가진다. 이 외에도 ‘다시’와 ‘또’는 문두에 위치하여 발화를 접속하는 기능도 가진다. 이때에는 한 문장이 의미하는 층위에 국한하여 부사의 의미를 논의할 수는 없다. 문법화 정도가 아직 높지 않아서 ‘접속부사’로 인정하기는 이르지만 ‘다시’는

주로 시간적 간격이 짧은 두 사건의 연쇄를 연결하여 [그런 다음에]를 의미할 수 있으며, 시간 속성이 모호해지면 명제를 연결하는 텍스트적 기능도 보인다. 한편, '또'는 전형적인 접속부사로서 상위언어적으로 선행 발화나 상황에 후행 발화를 추가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문장의 의미 계층을 기반으로 볼 때 두 부사는 모두 사건 층위에서 [반복]을 의미할 수 있으나 다른 층위에서는 차이점이 더 많다. '다시'는 주로 사건 및 사건 이하에 작용하는 반면 '또'는 주로 사건 및 사건 이상의 층위에 작용한다. 이를 아래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3)



이러한 분석은 부사의 다의성과 문장의 의미 계층에 대한 2장의 기본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 3장과 4장에서 나누어 다루어졌다.

3장에서는 먼저 결과상태에 작용하여 [복원]을 의미하는 '다시'를 살펴보았다. 결과상태에 작용하기 때문에 주로 하위 사건이 포함된 복합사건 구조를 나타내는 동사들, 상태변화 동사, 도착점이 명시된 이동동사 등과 공기한다. '다시'는 [수정]이나 [새로이]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는 '다시'가 결과상태에 작용하면서 제조 동사나 명령문 등 다른 언어 요소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의미이다. '다시'는 과정을 작용역으로 하면 중단된 과정을 연결한다는 [계속]의 의미를 표현한다. 이때에는 주로 과립성을 가진 과정으로만 이루어진 동작 사건과 공기한다. 전체 사건에 관여할 때에는 '다시'가 [반복]을 의미한다. 주로 종결점이 내재된 완성 동사나 달성 동사와 어울린다. 단, 달성 사건의 경우는 결과상태에 중점이 놓여 있어 '다시'의 [복원] 의미도 함께 드러난다. 완성 사건의 경우에도 [반복]과 [복원]의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데, 이는 과정에 중점이 놓이는 완성 사건이 과거 시제소의 영향을 받으면 결과상태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4장에서는 우선 같은 문장 환경에서의 '또'와 '다시'의 출현을 비교함으로써 '또'는

하위 사건에는 작용하지 않아 [복원]과 [계속]은 의미하지 않으며 주로 전체 사건을 작용역으로 삼아 [반복]을 표현함을 논의하였다. 특히, 중단된 과정을 이어주는 [계속]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또'가 아니라 '다시'를 선호함을 지적하면서 '또'의 배분적 특성 및 '다시'의 집합적 특성을 논의하였다. 끝점이 임의적인 동작 사건과 공기하면 '다시'는 [+결속성] 때문에 각 국면을 이어주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또'는 [-결속성]과 [+개별성] 때문에 과정에 끝점을 부여하며 여전히 [반복]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는 사건 층위를 넘어 명제·사실 층위에 작용하면 첨가 초점사로서 조건이나 대조를 의미하는 연결어미와 호응하여 양보]의 의미를 표현한다. '또'는 또한 화행 층위에서는 화자의 놀라움이나 부정적 태도 등을 표현하며 담화표지로서 담화 내용의 강조, 담화 공백을 메우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5장에서는 '다시'가 주로 '또'보다 낮은 층위에 작용한다는 3, 4장의 관찰 결과를 복합어 '또다시'의 형성에 대한 설명에 적용하였다. 한국어에서 부사나 어미들은 그것이 작용하는 의미 층위에 따라 문장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출현하는데 더 높은 층위에 작용하는 요소는 문장의 더 바깥쪽에 배치되는 특징을 보인다. 여기서 주로 더 높은 층위에 작용하는 '또'가 더 낮은 층위에 작용하는 '다시'보다 앞에 배치되는 연쇄 구성인 '또다시'가 '다시 또' 보다 자연스러우며 따라서 보다 빈번히 출현함을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대조표지 '는'이 '다시'와 '또'에 결합된 형태인 부사 '다시는'과 '또는'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시는'은 사건 층위에 작용하는 '다시'에 '는'이 붙어 부정극어로 생성되었으며 '또는'은 상위언어적 지위를 가진 접속부사 '또'에 '는'이 붙어 배타적 의미를 가진 접속부사로 쓰이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본고에서는 고빈도로 사용되지만 부사 연구에서 종종 간과되어 온 '다시'와 '또'에 주목하여 이들의 다의미적, 다기능적 사용 양상 및 두 부사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부사 연구에서 문장의 의미 층위가 매우 유용한 개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 있다.

우선, 반복을 의미하는 부사에는 '다시'와 '또' 외에도 '도로, 다시금, 재차' 등이 더 있는데 이러한 부사들이 어떤 의미 층위에 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부사가 연산자로서 문장의 각 의미 층위를 논항으로 취할 수 있다

고 보는 본고의 기본 전제는 [반복]을 나타내는 더 많은 부사들에 적용될 때, [반복]에 관한 언어표현뿐만 아니라 인간이 '반복'이란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밝히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반복상'에 관한 논의로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반복상'을 나타내는 언어 요소로는 부사 외에도 '-곤 하다' 등의 보조 용언, '착착' 같은 의태어, '-마다, -씩' 등의 보조사들이 있다. 반복상과 관련된 언어 요소와 반복표현 부사의 연관성도 이후 더 연구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반복상은 습관상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이에 대한 관찰도 더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문장의 의미 층위는 범언어적으로 공통된 것으로, 본고의 논의는 다른 언어의 반복표현에 대한 설명에 확장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어에는 '也 , 又 , 再 , 还' 등의 반복표현이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을 한국어의 반복표현과 비교하는 대조 연구를 시도해 볼 수도 있다.

본고는 언뜻 비슷해 보이는 부사 '다시'와 '또'가 실제로는 여러모로 구별되며 언어 사용에서 담당하는 기능도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두 부사의 의미 차이와 선택적 사용 양상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었다.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언어 사용과 표현 선택이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 존재하는 나름의 체계에 따른 것임을 증명했다는 측면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강범모(2000), 논항의 의미 유형과 다의성 기술 , 이정민 외 (2000), 의미구조의 표상과 실현, 소화출판사. 185-228.

강범모(2014),『양화와 복수의 의미론』. 서울: 한국문화사.

김량혜윤(2003),『부사와 부가구조』, 생성문법연구 13-3, 한국생성문법학회, 481-493.

김상태(2005),『현대국어 시간표현 어휘 연구』, 학고방.

김윤신(2014), 국어 결과 구성과 동사의 사건구조, 어문론집, 57, 81-105.

김태인(2014), 한국어 부사 '잘'의 의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인(2019), 한국어 문장의 의미 층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현아(2015), 국어 문장부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곽은주(1999),『사건의미론』, 형식의미론과 한국어 기술, 한신문화사, 458-497.

남기심·고영근 외(2019), (새로 쓴) 표준 국어문법론, 한국문화사.

남승호(2004), 한국어 술어의 사건 구조와 상적 의미, 인문논총(52), 75-124.

남승호(2007),『한국어 술어의 사건구조와 논항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박진호(2012), 의미지도를 이용한 한국어 어휘요소와 문법요소의 의미기술, 국어학63, 459-519.

박진호(2015),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국어학』73, 국어학회, 375-435.

박소영(2003), 한국어 동사구 수식 부사와 사건구조,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재연(2011), 한국어 연결어미 의미 기술의 메타언어 연구,『국어학』62, 167-197.

백인영(2019), 한국어 비노부사의 의미구조 연구, 석사학위논문.

류병래(2018). 한국어 다시의 중의성, 언어 43(4), 695-720.

마금선(2003), '또'와 '다시'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127, 34-38.

문금현(2004), 前提의 유형,『한국어 의미학』14, 한국어의미학회, 223-254.

문숙영(2009),『한국어의 시제 범주』, 파주 : 태학사, 2009.

문숙영(2018), 관련성 이론의 관점에서 본 접속부사의 의미기능, 국어학 88, 97-136.

서정수(1996),『(현대)국어 문법론』, 한양대학교 출판원.
신서인(2014), 담화 구성 요소를 고려한 문장부사 하위분류, 한국어 의미학, 44, 89-118.
심란희(2019), 한국어 담화표지 기능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손남익(1995),『국어부사연구』, 박이정출판사.
양용준(2018), 영어와 한국어의 전제 유발체 비교 분석,『영어영문학』23(1), 한국영어영문학회, 249-269.
오규환(2012), '또한'과 '또'의 분포 및 기능 변화와 그 원인, 국어학 63, 195-220.
왕문용·민현식(1993),『국어 문법론의 이해』, 서울: 개문사.
윤재학(2007), '다시'와 '또',『언어와 정보』21, 1-22.
이순욱(2017), 한국어 양보의 표현 방책과 의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헌(2008),『평가부사와 증거부사의 의미 기술』, 영어영문학21, 21세기 영어영문학회, 151-171.
이후인(2015), 한국어 양태접속부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환묵(1987), 국어함수 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채훈(2006), 완성성과 상의 구조적 실현, 한국어학 30, 267-290.
임채훈(2007), 반복 사건과 문장 의미 구성, 한국어학 36, 249-287.
임채훈(2012),『사건 발화상황 그리고 문장의미』, 서울 : 역락.
전영철(2007), 한국어 복수 표현의 의미론, 언어학 49, 325-347.
전영철(2013),『한국어 명사구의 의미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전영철(2015), 한국어 집합 명사와 복수 표지 '들', 語學硏究 51.3, 793-814.
정상희(2010), 한국어 배분 표지 '들, 마다, 끼리, 씩'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정상희(2021), 현대 한국어 수 범주 연구 - 개체와 사건의 배분성·집합성·집단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우헌(2019), 보조사 '도'의 초점 투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규련(2001),『국어 첨가 초점사의 의미』. 한국어 의미학, 8, 291-321.
최규련(2005), 국어의 초점사 현상 : 의미와 기능 분석, 한국문화사.
최현배(1971),『우리말본』, 정음사.
하인츠 파터(2001),『텍스트의 구조와 이해』: 텍스트언어학의 새 지평, 이성만 옮김』, 배재대학교 출판부, 2006.
황주원(2011), 한국어 결과구문의 의미 특성, 한국어 의미학, 36, 531-556.
황현동(2020), 한국어 전제 유발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후박문(2021), 한국어 진실성 부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ach, Emmon(1986), The Algebra of Events, Linguistics and Philosophy 9,5-16.
Beck S(2005), There and Back Again: A Semantic Analysis, Journal of semantics : 3-51.
Blakemore, D(1992), Understanding utterance, Oxford, England: Blackwell.
Comrie, Bernard(1976), Aspect :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verbal aspect and related problem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wty, David(1991), Thematic Proto-Roles and Argument Selection, Language 67, 547-619.
Fabricius-Hansen, C. (2001). Wi(e)der and again(st). In C. Fery & W. Sternefeld(Eds.), Audiatur Vox Sapientiae: A festschrift for Arnim von Stechow. Berlin: Akademie Verlag.
Guo, Rui 郭锐(2010), A semantic map study of adverbs related to "supplement" 副词的补充义与相关义项的语义地图.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for Comparative and Typological Research on Languages of China 中国语言的比较与类型学国际研讨会, Hong Kong, China.

Gusic, David Dowell(1981), Verbal plurality and aspect, Ph. D.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Huang, Yan(2007), Pragmatic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Haspelmath, M. & König, E. (1998), Concessive conditionals in the languages of Europe, Adverbial constructions in the languages of Europe, Mouton de Gruyter, 563-640.

Jackendoff, Ray(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IT Press.

Kearns, Kate(2000), Semantics Modern Linguistics Series, London : Macmillan Press.

König, E. & Siemund, P.(2000), Causal and concessive clauses: Formal and semantic relations, Cause-Condition-Concession-Contrast. Cognitive and Discourse Perspectives, Mounton de Gruter, 341-360.

Larson, Richard K(1988), On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Linguistic inquiry 19 (3), 335-391.

Lee, Juwon(2017), "Semantic Taxonomies and tasi 'again' in Korea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5-4, 59-81.

Lee, Juwon(2018), "Intentionality, Purpose, and Tasi 'Again' in Korea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6-2, 147-173.

Levin, Beth and Hovav, Rappaport(1995), Unaccusativity : at the syntax-lexical semantics interface, Cambridge : MIT Press.

Lewis, David(1975), Adverbs of Quantification. in Edward L. Keenan (ed.) Formal Semantics of Natural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3-15.

Link, Godehard(1998), Algebraic Semantics In Language and Philosphy, Stanford: CSLI Publications.

Lyons, J.(1977), Semantics(Vol.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Oh, Sei-Rang(2015), “A Crosslinguistic Semantic Analysis of Agai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25, 851-872.

Parsons, Terence(1990), Events in the semantics of English, Cambridge : MIT Press.

Partee, B. H.(1995), Quantification Structures and Compositionality, in Bach et al. (eds.), Quantification in natural languages,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541-601.

Pustejovsky, James(1991), The Syntax of Event Structure, Cognition 41, 47-81.

Pustejovsky, James(1995), The Generative Lexicon, Cambridge, Mass. : MIT Press.

Ramat, P. and D. Ricca(1998), Sentence adverbs in the Language of Europe, in vander Auwera ed. Adverbial Constructions in the Language of Europe. Berlin: Mouton de Gruyter, 187-275.

Rudolph, E.(1996), Contrast Adversative and Concessive Relation and their expression in English, German, Spanish Portuguese on Sentences and Text Level, Walter de Gruyter.

Smith, Carlota S.(1997), The Parameter of Aspect, Boston : Kluwer Academic Publishers.

Stechow, A. von(1995) ‘Lexical decomposition in syntax’. In U. Egli, P.E. Pause, Ch. Schwarze, A. von

Stechow, A. von(1996) ‘The Different Readings of Wieder ‘‘Again’’: A structural account’. Journal of Semantics 13:87-38.

Tenny, C. L.(2000), "Core events and adverbial modification" CSLI LECTURE NOTES : 285-334.

Travis, Lisa(1988), The syntax of Adverbs, in McGill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McGill University.

Travis Ld(1994), "Event phrase and a theory of functional categories"

PROCEEDINGS OF THE ANNUAL CONFERENCE- CANADIAN LINGUISTIC ASSOCIATION : 559-570.

Travis, Lisa(2010), Inner Aspect: The Articulation of VP. Springer.

Vendler, Z(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M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Zhang, Ying(2017), Semantic map approach to universals of conceptual correlations: a study on multifunctional repetitive grams, Berlin/Heidelberg: Springer Berlin Heidelberg, Vol.3 (1), p.1-37.

<중문 요약>

'다시'和'또'的语义研究

刘宇鑫
韩语语言文学系 语言学专业
国立首尔大学 研究生院

'다시'和'또'作为韩国语中表达【反复】语义的副词， 在实际生活中使用频率很高。但现存的研究中对这两个副词的具体分析却十分不足。本文旨在揭示副词'다시'和'또' 各自的多语义、多功能现象，并以句子所能表达的语义层级为基础分析两者的差异及其成因。

除【反复】之意外，副词'다시'还具有：受事状态的【复原】；【修正/重新】；被中断过程的【继续】，以及 '继先行行为后实行其他行为'的【之后】之意。副词'또'除【反复】之外，与连接语尾等其他语言要素相呼应时可以表示【让步】；表达话者惊讶、不满等感情色彩；并且具有连接副词的功能。本文认为，同一副词具有多语义·功能，以及两副词既有共同点又有差异的现象来自于副词可以作用于句子不同语义层级的特性。针对句子语义的先行研究中，常将句子的语义层级构造设定为：言语行为>事实>命题>整体事件>下位事件。从语言共性来看，副词可作为'算子'，各个语义层级可视为论元，根据'算子'所作用的层级不同，副词本身也可有多种释义。

第二章首先以字典和语义地图为基础，概括整理了'다시'和'또'的基本词义、两个副词之间的共性与差异。并介绍了本文的基本理论框架，即：句子的语义层级划分、事件结构，以及统辞结构。此外，还将'反复'定义为了区别于'频度'的量化概念。

第三章的论述根据'다시'所作用的不同层级而展开。当'다시'作用于下位事件之'结果状态'时具有【复原】之意，但当原本状态不存在或者在其他语用因素的影响下，'다시'常被释义为【修正/重新】。这些词义常在该副词与具有复杂事件结构的动词或结果状态句式共现时得到。当'다시'作用于下位事件之'过程'时，可表达被中断过程的【继续】。但和一般修饰过程的方式副词不同，与过程相关联的'다시'并不修饰行为的进行方式，只表中断过程的延续。当'다시'表达【反复】时，主要与具备原子性的完成、成就动词共现，个别情况下也可修饰阶段层面谓词的形容词。此外，在语法化的影响下'다시'不再仅局限于一个事件，还可连接顺序发生的两个事

件，并由此进一步发展为具有语篇凝聚功能的语言要素。

第三章的论述根据‘또’所作用的不同语义层级而展开。在事件结构中，‘또’只视整体事件为作用域表【反复】，因此不具有【复原】，【继续】之意。与集合性较强的‘다시’相比，‘또’的分配性更明显，因此在与边界模糊的动作事件类型共现时，‘또’可起到明确划分事件边界的作用。事件层级之外，‘또’的语义及功能更加多样。首先，当该副词作用于命题·事实层级时表达【让步】之意，此时常与表对照或条件的连接语尾共现。其次，在言语行为层级时，‘또’不再与命题的真伪相关，而表达话者的惊讶或否定等感情。最后，当该副词不再局限于一个句子所能表达的语义层级时，作为上位语言性质的连接副词起到连接先后话语或情况的功能。

因此，‘다시’和‘또’两个副词虽然都可表示【反复】之意，但基于句子的语义层级和事件结构来看，两者仅在作用于整体事件时具有相同词义，在其他语义层级的情况下差异明显。‘다시’主要作用于整体事件及其以下层级，相反，‘또’主要作用于整体事件及其以上层级。并且，围绕事件结构两者所体现的差异也可通过VP_1,VP_2,EP的设定反映在统辞结构上。

第五章以三、四章结论为基础进一步分析了相关复合词‘또다시’，副词连续体‘다시　또’；以及负极性词‘다시는’和具有排他之义的连接副词‘또는’。并通过这些相关副词或者副词连续体的语义及功能进一步证明了‘다시’和‘또’作用于各语义层级时展现出的倾向性。

关键词：副词，作用域，层级结构，事件结构，量化，反复，分配性·集合性，让步，连接副词

学号: 2019-23460